



정답과 해설

고등학교

독서와 작문

최인영 외

1. 독서와 작문, 사이를 잇다

01 소통하는 독서와 작문

제재 1 밑줄을 긋다 보면

본책 012~015쪽

★ 확인 문제

01 ② 02 ④ 03 ⑤ 04 ⑤ 05 ④ 06 ⑤ 07 ③

01 이 글은 독서와 밑줄 긋기라는 일상적 소재와 경험을 통해 독서를 통한 정신적 연결에 대한 필자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ㄴ). 또한, ‘스킨십’, ‘카누의 노’, ‘손자국’, ‘스케이트 날 자국’ 등의 비유적 표현과 밑줄을 긋는 이유를 나열하는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하여 필자의 관점을 감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ㄷ).

02 (나)에서 필자는 밑줄 긋는 행위가 독서를 진행하는 힘과 리듬을 만든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독서 속도를 높이거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필자는 “나중엔 나조차 거기 왜 줄을 쳤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고백하고 있어, 밑줄이 기억을 돕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필자는 모르는 정보, 저자가 새로운 의미를 보여 준 문장, 자신을 웃게 하거나 생각에 잠기게 하는 문장, 아름다운 문장 등에 다양한 이유로 밑줄을 긋는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필자는 줄을 긋는 행위가 독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리듬을 만든다고 하였다.

③ (다)에서 필자는 책에 밑줄을 긋는 행위가 저자와 악수한 흔적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밑줄을 그음으로써 책의 저자와 소통하며 글의 내용을 읽는다는 의미이다.

⑤ (나)에서 필자는 어디에 줄을 칠 것인지 ‘순전히 주관적인 독서 경험과 호흥’에 따라 정한다고 하였다.

03 필자는 밑줄을 그으면 그 문장에 연필이 닿고 몸에 촉감이 전해지고 소리가 들린다고 말한다. 이는 독서를 통해 텍스트와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필자는 이를 ‘스킨십’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밑줄을 긋는 행위를 문장과 물리적, 정신적으로 접촉하며 교류하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04 필자는 책에 그은 밑줄을 ‘빙상 경기장 얼음판에 새겨진 스케이트 날 자국’에 비유하며 ‘정신적 운동’, ‘연습의 흔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스케이트 선수가 연습으로 스케이트를 타며

얼음판에 흔적을 남기듯, 필자 역시 밑줄 긋기를 통해 자신의 능동적인 사고와 독서의 과정을 남긴다는 의미이다.

05 <보기>에서 독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고, 책은 인간의 삶과 사회·문화를 드러낸다고 하였다. (바)에서 필자는 책을 읽으며 친 밑줄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삶과 만나기를 희망하고 있으므로 독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삶과 사회의 모습을 만나기를 바란다고 이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독자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독서한다고 하였다. 필자는 자신의 독서 습관인 밑줄 긋기를 통해 독서의 의미를 확장하여 서술하고 있을 뿐, 다양한 독서 방법이나 독서의 효과를 서술하지 않았다.

②, ③ <보기>에서 책에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과 사회 모습이 반영된다고 하였다. 이 글의 필자는 독서를 통해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독서를 통한 다른 사람과의 이어짐, 사회와의 이어짐을 중시하고 있다. 효율적으로 독서하여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거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자 하지는 않았다.

⑤ 필자는 (라)에서 「곡강」을 인용하여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세계에 대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는 문학을 접함으로써 세계를 풍요롭게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6 필자는 두보의 「곡강」을 예로 들며, “‘꽃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삶’과 ‘그렇게 떨어지는 꽃잎 때문에 “봄이 깎인다.”라고 이해하는 삶’은 다르다고 하였다. 이는 같은 현상도 문학을 통해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의 봄이 아닌 여러 개의 봄’이라는 표현은 문학이 세계를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의미이다. 즉, 문학을 통해 일상적 현상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세계를 더욱 풍부하게 감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는 문학이 진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다양하게 감각하게 하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② 필자는 하나의 현상을 개인의 주관적 관점과 경험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학의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필자는 문학을 통해서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서술한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풍요롭고 섬세하게 감각하게 한다고 하였다.

④ 문학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하나의 봄’), 새롭고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한다(‘여러 개의 봄’).

07 필자는 밑줄을 그을 때 책에 파인 홈이 ‘물고랑 밧고랑 할 때 ‘고랑’처럼 느껴진다.’고 하며, ‘나와 나 자신을, 현재와 과거

를, 우리와 타자를 잇는 먹 고랑'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독서가 현재와 과거를 뛰어넘어 자기 성찰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소통까지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제2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과학자

+ 확인 문제

본책 016~019쪽

01 ⑤ 02 ③ 03 ① 04 ④ 05 ② 06 ④ 07 ② 08 ①

01 이 글은 물리학자인 정재승 교수가 올려놓은 자기소개로 시작된다. 이는 인터뷰 대상인 정재승의 자기소개이지, 정재승이 한 질문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뷰 대상의 질문으로 글을 시작했다는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 ① 이 글에서는 정재승이 쓰는 글의 주요 내용, 글을 쓰는 비법, 글을 쓸 때 활용하는 전략 등을 간결하고 유기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나)에서 정재승이 쓰는 글이 '다양한 사회 현상을 과학으로 읽고, 인문과 경제 현상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 ③ (라)에서 정재승이 과학적 지식을 대중에게 쉽게 알리기 위해 인용, 비유, 예제 등의 표현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 ④ (라)에서 정재승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글을 쓰는 이유인 소통의 기쁨을 제시하고 있다.

02 (라)에서 '그가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소통'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다.'라고 하였으며, 이어서 '과학이 밝혀내는 우주의 경이로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수식 너머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흥분되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글을 쓰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⑤ (라)를 통해 정재승은 명성을 얻는 것이나 주변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 학술 논문 발표를 위한 홍보가 아니라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글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② (다)에서 과학을 모르는 사람에게 과학을 알려서 과학 소양을 높이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하겠다는 목표로 글을 쓴다고 하였다.
- ④ (다)에서 정재승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해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과학을 알려주는 글쓰기를 지양한다고 하였으므로 과학적 사실의 정확한 나열은 정재승의 글쓰기 목적이 아니다.

03 (나)에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현상들이 과학적인 원리로 설명되는 것을 보여 주면서 독자들에게 신선한 지적 자극을 주는 게 정재승의 전체 저술에서 일관되게 보이는 글쓰기 비법이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 ② 정재승의 글쓰기는 사회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로 사회 현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 ③ 정재승의 글쓰기는 인문과 경제 현상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④ 정재승식 글쓰기는 첨단 과학 기술을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 현상(반딧불이, 추시계 등)을 과학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 ⑤ 이 글에는 과학의 역사적 발전이나 미래 사회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정재승의 글쓰기는 우리 주변의 현상을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04 (다)에서 정재승은 이야기를 중시하는데, 그 이유는 이야기가 무언가를 단순히 '알려 주는 것'을 넘어 독자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05 이 글에서는 과학적 지식을 글로 쉽게 풀어 씀으로써 대중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는 정재승의 글쓰기를 제시하고 있다. (아)에서 생각에 머물러 있던 것을 글로 씀으로써 자신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매개로서 작용하는 작문의 특성을 서술하며, 이러한 작문의 특성으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정재승의 바람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정재승이 자신의 글이 독자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작문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06 (아)에서 '정 교수는 자신의 글쓰기가 자기 삶을 성찰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던 것을 글로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삶도 그렇게 되도록 만든다고 말했다. 그에게 글은 생각과 삶 사이에 놓인 매개물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생각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그 생각대로 실천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정재승에게 글쓰기란 생각과 삶을 연결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 오답 풀이 |

- ① 과학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은 글쓰기의 결과일 수 있으나, (아)에서 강조한 정재승의 글쓰기 목적은 자기 삶의 성찰과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아)에서 정재승은 글쓰기를 통해 생각으로 머물던 것들을 삶 속에서 현실화한다고 하였다. 현재 관심을 둔 주제를 정리하기 위해 글로 남기는 행위는 정재승의 글쓰기로 볼 수 없다.

오답원 평가 문제

③ (아)에서 정재승은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고 하였고, '세상을 바꾸는 상상력' 즉 세상과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글을 쓰고자 한다. 다른 사람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할 뿐 다른 사람의 삶을 글로 기록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

⑤ (마)에서 정재승은 과학 지식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글을 썼다고 하였다. (바)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류하여 과학과 여러 분야를 융합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과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이를 소통하여 세상을 나아지게 만드는 데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의 보편적 원리를 전달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07 (마)에서 정재승이 학창 시절부터 폭넓은 독서를 해 왔을 뿐 아니라 대학 시절과 대학원 석사 1학년 때 학교 신문에 영화 평을 기고하거나 과학 잡지에 영화 속의 과학 이야기를 연재하는 등 다양한 글쓰기 경험을 통해 대중적 과학 글쓰기의 바탕을 쌓았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마)에서 정재승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글을 썼고, 단일 분야의 전문성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융합적 접근이 그의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③ (바)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정재승이 부담감을 해소하여 글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식일 뿐 글쓰기의 근본적인 자양이 된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마)에서 대학 시절의 영화평 기고나 과학 잡지 연재, 폭넓은 독서 등을 글쓰기의 기반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 동호회 활동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마)에서 정재승은 학술지 논문이 아니라 '학교 신문 영화평', '과학 잡지 연재' 등 대중을 위한 글쓰기 경험을 하며 대중적 과학 글쓰기의 바탕을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08 (바)에서 정재승은 ㉠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책을 쓰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도록 시도했다.'고 하였다(㉡).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교류를 시도한 것이다.'라고 하며 '자연 과학과 사회 과학만이 아니라 인문 과학, 심지어는 예술까지 포함한 다양한 학문이 조화롭게 콘서트처럼 섞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정재승의 말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교류하며 글을 쓰지 못하던 부담감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 정재승은 다양한 학문이 '조화롭게 콘서트처럼 섞여야' 한다고 하였을 뿐, 과학과 예술을 결합하여 새로운 학문 분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 정재승은 사회 과학이라는 특정 학문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분야의 조합을 지향하였다.

01 ② 02 ⑤ 03 ② 04 ④ 05 밑줄 그은 책에 파인 홈을 '먹 고랑'으로 표현하고, 밑줄이 나와 나 자신을, 현재와 과거를, 우리와 타자를 이어준다고 하였다. 06 ③ 07 ⑤ 08 ② 09 정재승은 이야기를 중시하는데, 이야기는 단순히 '알려 주는 것'을 넘어 독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0 ⑤ 11 ② 12 ① 13 ④

01 이 글은 필자가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은 경험을 통해 독서의 의미를 성찰하는 수필이다. 필자의 주관적이고 능동적인 독서 경험을 제시할 뿐, 독자에게 특정한 독서 방법을 설명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짧은 문장과 단문을 사용한 간결한 문체로 밑줄 긋는 행위에 대한 필자의 성찰을 차분하게 전개하고 있다.

③ 책을 읽으며 연필로 밑줄을 긋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 독서가 나와 나, 현재와 과거, 우리와 타자를 잇는 의미 있는 행위임을 발견하고 있다.

④ 두보의 「곡강」을 인용하여 문학이 세계를 더 풍요롭게 감각하게 한다는 독서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

⑤ '스킨십', '카누의 노', '스케이트 날 자국', '먹 고랑' 등 다양한 비유적 표현과, 필자가 문장에 밑줄 긋는 이유를 나열하는 열거법을 활용하고 있다.

02 2번째 문단에서 '어디에 줄을 칠 것인가 하는 판단은 순전히 주관적인 독서 경험과 호흡에 따라 이뤄진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필자가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에 따라 밑줄을 긋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의 연필꽃이에는 여러 종류의 연필이 꽂혀 있으며, 연필을 손에 잡히는 대로 꺼내 쓴다고 하였다.

② 필자는 나중에는 거기 왜 밑줄을 쳤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다고 하였다.

③ 필자는 연필 자국이 저자와 악수한 뒤 남은 손자국 같다고 표현하며, 밑줄 그은 흔적을 저자와의 소통으로 느끼고 있다.

④ 필자는 밑줄을 그으며 연필을 긋는 소리와 연필을 그으며 종이와 연필이 맞닿는 촉감을 느끼면서 물리적으로 교류하고, 그 글을 읽으며 글과 정신적으로 교류하는 것처럼 느낀다.

03 필자는 밑줄을 그으며 읽는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글과 정신적으로 교류하고 저자와 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글의 '끝' 부분에서는 이러한 소통이 꾸준히 이어져 다른 사람의 삶과 만나 소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필자는 독서를 통해 세계와 접촉하고 서로 소통하며 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4 필자는 꽃잎이 떨어지는 현상을 단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삶과, 이를 봄이 깎인다고 이해하는 삶의 차이를 언급하며, 문학이 우리에게 하나의 봄이 아닌 여러 개의 봄을 선사함으로써 이 세계를 한층 풍요롭게 감각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ㄴ). 즉, 필자는 문학이 다양한 정서를 이해하고, 사물과 상황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세상을 이해하게 해 준다고 본 것이다(ㄷ). 나아가 필자는 종이를 동그랗게 구기면 주름이 생겨 부피가 생기듯 허파 파괴처럼 나와 이 세계의 접촉면이 늘어난다며, 문학을 통해 우리의 삶과 세계 사이의 접촉면이 확장된다고 하였다(ㄱ).

| 오답 풀이 |

ㄷ. 필자는 문학이 우리에게 여러 개의 봄을 만들어 주며 세계를 풍요롭게 감각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이는 다양한 경험과 정서를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세상을 풍부하게 접한다는 의미이지,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서술을 통한 현실 세계의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05 [A]에서 필자는 연필로 인해 파인 흠과 고랑 모두 무언가가 고인다는 특성이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밑줄 자국을 ‘먹 고랑’에 비유하였다. 밑줄을 그으며 독서를 함으로써 나와 나 자신, 현재와 과거를, 우리와 타자를 연결해 주기 때문에 독서를 소통의 매개라고 생각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먹 고랑’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필자가 책에 파인 흠을 ‘먹 고랑’에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유를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6 필자는 밑줄 긋는 행위를 ‘카누의 노’에 비유하며, 카누를 젓는 노가 카누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듯이 밑줄 긋는 행위가 독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고 하였다. 즉, 밑줄 긋는 행위가 독서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과 리듬을 만들어 독서를 능동적으로 지속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에게 밑줄을 긋는 행위는 독서를 통해 나 자신 및 다른 사람, 세상과 소통한다는 의미이다. 필자는 왜 자신이 그 문장에 밑줄을 쳤는지 잊어버린다고 하였으므로 책의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없다.

② 독서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밑줄 긋기가 독서에 힘과 리듬을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④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는 행위가 필자의 독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으나, 감상 방법을 찾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글을 지속하여 읽게 해 준다는 것이다.

⑤ 어려운 내용이 나와도 독서를 멈추지 않는 용기와 밑줄 긋기의 관계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밑줄 긋기가 독서를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필자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07 필자는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이야기도 누군가의 삶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며, 이야기의 이어달리기와 배턴 터치가 계속되기를 소망하였다. 이는 독서를 통해 이야기가 이어지며 서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 소통의 이어짐을 강조하는 표현이지, 독자와 저자 간의 즉각적인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는 연필꽃잎을 보며 생산국이 제각각인 연필들이 모여 있는 모습에서 세계의 나무들이 솟은 작은 숲을 떠올렸다고 하였다.

② 필자는 책에 그은 밑줄이 방상 경기장 얼음판에 새겨진 스케이트 날 자국처럼 보인다고 하며, 이를 정신적 운동의 결과인 연습의 흔적이라고 하였다.

③ 필자는 꽃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삶을 ‘하나의 봄’으로, 봄이 깎인다고 이해하는 삶을 ‘여러 개의 봄’으로 표현하였다. ‘하나의 봄’은 세상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④ 필자는 연필을 왼 손에 힘을 주면 책에 흐릿한 흠이 파이고, 그 흠에는 밑줄을 그은 순간 느낀 시간과 감정이 고인다고 하였다.

08 (가)에서 정재승 교수가 올려놓은 자기소개로 글을 시작하여 독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끌어내고 있다. 이어서 ‘세상과 소통하는 특별한 과학자’라는 정재승에 대한 대중의 생각을 제시하며 앞으로 정재승에 대한 내용이 제시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정재승의 견해에 대한 필자의 반박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필자가 정재승의 생각과 글쓰기 방법을 서술하고 있다.

③ 이 글에서는 정재승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을 글로 쉽게 대중에게 전달하여 과학을 통해 사회와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는 정재승의 글쓰기 방법과 글쓰기에 대한 정재승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④ (마)에서 정재승이 작가가 되기 이전에도 과학 이야기를 쉽게 전달하기 위한 글쓰기를 했다고 하였으므로 작문 방법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정재승의 글쓰기를 통해 글쓰기가 개인적 소통뿐 아니라 사회적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이 글에는 정재승의 글쓰기에 대한 긍정적 측면이 제시되어 있을 뿐, 부정적 측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09 (다)에서 정재승이 이야기를 중시한다고 하며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는 ‘알려 주는 것’을 넘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정재승이 글을 쓸 때 ‘이야기’를 중시한다는 것과 ‘이야기’를 중시하는 이유를 함께 썼다.	☐
(다)에서 주요 내용을 찾아 썼다.	☐

10 (나), (다)에서 정재승이 다양한 사회 현상을 과학으로 이해하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다시 돌아보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과학적 지식을 익혀 독자가 생활 속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11 (라)에서 정재승이 글을 쓰는 이유를 ‘소통’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라고 하였으며, 정재승의 말을 인용하여 ‘과학이 밝혀내는 우주의 경이로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수식 너머에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흥분되고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듭니다.’라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 ① (바)에서 인간과 인간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정재승은 글쓰기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새롭게 돌아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④ 정재승은 과학의 유용성을 전달하기보다는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바라본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나누고자 한다.
- ⑤ 일상 속의 현상과 과학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은 정재승식 글쓰기의 방법이나, 정재승이 글을 쓰는 이유는 소통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이다.

12 <보기>에서 필자는 글을 쓰는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완성한다고 하였다. (나)에서 정재승은 다양한 현상을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해석하여 과학의 원리를 설명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정재승이 새로운 과학 분야를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아닌 사회 현상과 과학의 연관성을 서술하여 대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글쓰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② (다)에서 정재승은 과학 지식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 돌아봤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이는가를 염두에 둔 글쓰기를 한다고 하였다. 이는 <보기>에서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를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다.
- ③ (라)에서 정재승은 과학적 지식을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인용, 비유, 예제를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하였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글을 쓴다는 점과 관련된다.
- ④ (바)에서 정재승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 다양한 학문이 조화롭게 섞여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하였다. 이는 <보기>에 제시된 공동체를 이해하기 위한 글쓰기와 관련된다.
- ⑤ (사)에서 정재승은 자신의 화두가 세상을 바꾸는 상상력이며, 이 사람 덕에 세상이 조금 더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는 <보기>의 작문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실천 행위라는 점과 관련된다.

13 (바)에서 정재승은 ㉠을 극복하기 위해 책을 쓰는 것 자체가 공부가 되도록 시도하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교류를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주제적인 읽기와 쓰기

본책 026~027쪽

오답원 평가 문제

- 01 ④ 02 ① 03 ② 04 작문 맥락으로 글의 목적, 주제, 예상 독자, 매체가 있는데, ㉠은 예상 독자, ㉡은 매체에 해당한다.
05 ④ 06 ③ 07 ① 08 ① 09 ⑤

01 책을 고를 때는 자신의 독서 목적, 흥미, 글의 수준, 책에 대한 평가 등을 고려해야 하며, 책의 가격은 책을 선정하는 본질적인 기준이 아니다.

02 <보기>의 학생은 작가 소개를 꼼꼼히 읽거나 출판사의 목록을 훑어보는 등의 행동을 하며, 신뢰도의 측면에서 책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추천 도서 목록’과 같이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단체의 판단을 참고하여 책의 가치를 확인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② 책의 내용 구성이나 짜임새를 확인하는 태도이다.
- ③ 정보의 전달 방식이나 내용 이해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태도이다.
- ④ 책의 시각적 요소나 심미적 가치를 확인하는 태도이다.
- ⑤ 자신의 독서 목적이나 관심사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태도이다.

03 서점에서는 다른 독자의 후기를 참고할 수 없다. 서점은 책을 판매하는 곳이며, 다른 사람이 책을 읽고 남긴 후기는 주로 인터넷 서점이나 책 소개 전문 블로그, 누리 소통망(SNS), 동영상 공유 서비스 방송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04 작문 맥락은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글을 쓰는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글을 실을 매체 등을 말한다. ㉠은 ‘규칙적인 운동이 부족한 친구들’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하여 그들의 특성에 맞는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므로, ‘예상 독자’에 해당한다. ㉡은 글을 게시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 ‘학교 누리집’을 선택하였으므로, ‘매체’에 해당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작문 맥락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
㉠과 ㉡의 요소를 바르게 썼다.	☐

05 <보기>의 필자는 일상에서 친구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화학 공정 원리 자료는 정보 자체의 신뢰성은 높을지라도, 일상적 실천이라는 글의 주제 및 독자의 수준과는 거리가 멀어 수집한 글감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일상에서 환경 보호를 실천할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자고 하였으므로, 환경 보호를 실천한 실제 사례를 담은 인터뷰 기사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한 글감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환경 보호 실천 방안을 알아보고 정리할 때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과 함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침을 활용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제 환경 기구에서 발표한 환경 보호 수칙 자료 또한 구체적인 행동 방안을 쓰기 위한 글감으로 적절하다.

③ '나'가 읽은 책은 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책이므로 이 책을 소개할 때 도입부에 환경 운동가의 인상 깊은 발언을 제시하는 것은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책에서 다루는 주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적절하다.

⑤ 책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책을 소개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자원 소비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여 독자에게 문제의식을 인식하게 하므로 글감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06 글을 쓸 때는 수집한 자료가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하여 글감을 선별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매체 자료의 형식이 다양하더라도, 그것이 글의 주제나 목적에 적절한 내용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선별해야 한다.

② 글을 쓸 때 예상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해야 하므로 통념에 근거한 누구나 다 아는 뻔한 내용 대신 독자가 흥미를 느낄 만한 내용을 글감으로 수집하고 선별한다.

④ 매체 자료의 조회수가 높다고 해서 정보의 신뢰성이 보장되거나 글의 주제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화제성보다는 예상 독자의 수준과 흥미,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고려해야 한다.

⑤ 예상 독자의 흥미나 관심사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독자의 흥미 위주로만 글감을 선별하면 글감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판별하는 데 소홀해지거나 글의 주제나 목적과의 연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

07 이 글은 실패를 딛고 일어난 김보통 작가의 일화와 태도를 통해 독자에게 삶을 대하는 태도와 용기를 전하고 있다. 이 글의 3번째 문단에서 김보통 작가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만, 세계적인 웹툰 작가가 되는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이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나만의 브라우저를 찾을 것이라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친구들도 나도 브라우저를 굶듯, 자기 삶을 돌보고 자신의 꿈에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와 같이 필자의 의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③ 이 글은 예술 고등학교 진학 포기부터 대기업에 들어가 바쁘게 일했던 경험, 퇴사 후 작은 도서관을 차리려다 실패해 경제적 위기를 겪었던 경험 그리고 웹툰 연재까지 김보통 작가가 살아온 과정이 서술되어 있어, 그의 삶의 과정을 소개하려는 필자의 의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글의 마지막 문단에서 독자를 '친구들'이라고 지칭하며 진로 문제로 방황했던 김보통 작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친구들을 예상 독자로 설정했음을 알 수 있다.

⑤ 글 중간에 그림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볼 때, 누리 소통망(SNS)이나 블로그 등 글과 그림을 함께 배치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08 이 글의 3번째 문단에 따르면 김보통 작가는 한겨레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내 그림을 보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그래서 보여 주고 싶었다.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였다.'라며 누리 소통망(SNS)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09 [A]와 같이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은 필자가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글에 대한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028~033쪽

01 ④ 02 ⑤ 03 책 위에 남은 무수한 검은 선이 적극적으로 사고하며 책을 읽은 정신적 운동이자 연습의 흔적임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04 ① 05 ⑤ 06 ④ 07 ③ 08 ② 09** 글쓰기는 생각과 삶 사이에 놓인 매개물로서 자신을 성찰하게 하며,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던 것을 선언하게 한다. **10 ④ 11** 과학이 밝혀내는 우주의 경이로움이나 인간 행동에 대한 통찰력이 수식 너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흥분과 기쁨을 나누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기 때문이다. **12 ⑤ 13 ④ 14 ② 15 ② 16 ⑤ 17 ④ 18 ④ 19 ② 20 ④ 21 ③ 22** [A]에 들어갈 요소는 출처로, 출처를 밝힘으로써 다른 사람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 ①**

01 이 글은 책상 위의 연필이라는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밑줄을 그으며 책을 읽는 필자의 독서 경험으로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때 필자는 독서를 하며 그는 밑줄이 '고랑'처럼 나와 나 자신, 현재와 과거, 우리와 타자를 이어 준다고 보고, 독서를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과 만나는 행위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다.

02 이 글의 필자는 5번째 문단에서 책에 줄을 긋는 행위를 ‘나와 나 자신을, 현재와 과거를, 우리와 타자를 잇는 먹 고랑’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자신의 내면과 타인의 삶,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독서의 의미를 전달한다. 특히 글의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이야기의 이어달리기’와 ‘배턴 터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문학 작품을 감상하며 세상을 폭넓고 다양하게 인식하게 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으나 문학 작품 속 특정 인물의 삶을 분석하여 사회 문제점을 비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② 이 글은 독서 방법을 다른 사람에게 교육하거나 체계화하는 글이 아니라, 필자 자신의 독서 경험과 그에 따른 성찰을 드러내는 글이다.
- ③ 연필의 물리적 특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타인과 연결하고자 하는 소통의 방식을 비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두보의 시를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는 연필의 특성이 아니라 필자가 생각하는 문학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 ④ 두보의 시는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계를 더 풍요롭게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예시일 뿐, 고전 문학을 통해 현대인의 삶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있지 않다.

03 필자는 책 위에 남은 무수한 검은 선을 빙상의 스케이트 자국에 비유함으로써 독서가 단순히 눈으로 읽는 행위를 넘어 문장과 소통하며 에너지를 쏟는 정신적 운동이자, 자신을 갖고 닦으며 성장해 나가는 연습의 흔적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독서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서 ‘검은 선’을 찾아 썼다.	☐
‘정신적 운동’, ‘연습의 흔적’을 활용하여 독서의 의미를 썼다.	☐

04 이 글의 필자는 책을 읽을 때 연필을 권 손에 힘을 주어 만든 ‘흠’(ㄱ)을 가리키며 그곳에 ‘어느 문장에 줄 그은 순간 느낀 시간과 감정이 고인다’라고 표현하고(ㄴ) 있다. 이는 필자가 저자의 문장과 독자의 내면이 만나 새로운 의미를 일궈내는 소통의 공간을 ‘먹 고랑’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오답 풀이 |

- ㄷ. 필자는 줄 그은 책과 잘 헤어지지 못하며 그 흔적을 ‘저자와 악수한 손자국’처럼 여긴다. 따라서 언제나 지워낼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ㄹ. 필자에게 독서는 정신적 운동이자 감각의 확장으로,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학습이나 정보 파악의 과정이 아니다.

05 필자는 [A]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삶과 만나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의 이어달리기’와 ‘배턴 터치’에 비유하고 있다. 이는 연필의 ‘길고 둥근’ 형태가 마치 다음 주

자에게 전달하는 ‘배턴’의 모습과 닮았다는 점에서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한 것이다. 즉, 필자는 연필의 형태를 통해 한 사람의 이야기가 타인의 삶으로 끊임없이 이어지고 전달되는 독서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06 필자는 밑줄을 그은 자국을 ‘저자와 악수한 뒤 남은 손자국’에 비유하고 있다. ‘악수’는 서로 손을 맞잡는 행위로, 이는 독서를 통해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필자가 책을 읽으며 주체적으로 밑줄을 그음으로써 저자의 생각과 필자의 생각이 만나는 정신적인 교감을 의미한다.

| 오답 풀이 |

- ① 책에 대한 마음은 드러나지만 ‘악수’라는 비유의 의미는 정신적 교감으로 단순히 책을 아끼는 마음 그 자체는 아니다.
- ②, ③ 독서의 과정에서 겪는 일이지만, ‘악수’가 상징하는 ‘타자와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책을 읽으며 세상을 경험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 간다는 것은 글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악수’와 ‘손자국’이라는 비유의 의미로는 적절하지 않다.

07 <보기>에 따르면 ‘허파 파리’는 표면적을 극대화하여 가스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는 신체 기관이다. 필자는 이를 비유로 활용하여, 문학을 통해 ‘하나의 봄이 아닌 여러 개의 봄’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세계를 더 풍요롭게 감각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즉, ‘허파 파리’의 표면적이 넓어지듯 문학을 통해 세계와의 접촉면이 넓어짐으로써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감각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08 이 글의 필자는 ‘문학은 우리에게 하나의 봄이 아닌 여러 개의 봄을 만들어 주며 이 세계를 더 풍요롭게 감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은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즉물적이고 직접적인 삶인 반면, ㉡는 문학을 통해 세계를 더 풍요롭고 다양하게 감각하는 삶이다.

09 (바)에서 정재승은 글쓰기를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던 것을 글로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삶도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생각과 삶 사이에 놓인 매개물로 보고 있다고 하였다. 즉 그에게 글쓰기는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고 실천을 이끌어 내는 성찰적 역할을 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생각과 삶 사이에 놓인 매개물’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제시된 문장 형태에 맞게 썼다.	☐

10 (나)에서 ‘정재승’은 단순히 과학 정보를 상세히 나열하여 객관성을 증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 과학적 지식을 엮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 ① (나)에서 '이야기 안에 과학 지식을 엮어' 그 지식으로 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쓴다고 하였다.
- ② (다)에서 독자가 과학을 덜 어렵게 느낄 수 있도록 '인유, 비유, 예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였다.
- ③ (가)에서 '다양한 사회 현상을 과학으로 읽고, 인문과 경제 현상을 통해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고 하였다.
- ⑤ (가)에서 반딧불이와 추시계처럼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현상들'을 엮어 과학적 원리로 설명함으로써 독자에게 신선한 지적 자극을 주는 것이 정재승의 글쓰기 비법이라고 하였다.

- 11 (다)에서 정재승은 '소통에 대한 기쁨'을 언급하며 과학적 지식 너머에서 발견한 우주의 경이로움, 인간의 행동에 대한 통찰력으로 인한 흥분과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다)를 활용하여 과학적 지식의 가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제시된 문장 형태에 맞게 썼다.	☐

- 12 (마)에서 정재승은 의사 결정이라는 주제를 경제학, 뇌과학, 물리학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함과 협력을 탐구하려 한다고 말하였다. 이를 통해 정재승이 하나의 현상을 다양한 지식 관점에 바라보고 해석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는 '교통 정체 문제'라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 공학과 심리학이라는 학문 간 융합을 통해 접근하고 있으므로, 정재승의 탐구 방식과 유사한 사례라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②, ③, ④ 개인 사업의 수익, 학계에서의 전문성 인정, 개인적 진로 성취라는 개인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타 학문과의 융합보다는 단일 학문 내에서 전문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지식을 종횡으로 엮어 공동체에 기여하려는 정재승의 탐구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

- 13 [A]는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학문이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한 학문의 입장이 아닌 다양한 학문적 관점이 조화를 이룸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대해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정재승의 인식을 보여 준다.

- 14 이 글에서 정재승은 글쓰기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사람들과 소통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며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가치 있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은 이러한 정재승의 글쓰기 철학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는 자기소개를 인용한 부분으로, 글을 쓰는 목적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이 글을 읽고 ㉠을 통해 정재승

이 글쓰기를 통해 공동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반응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 ① 글쓰기를 통해 변화를 지향하고 소망하는 이타적 태도가 드러날 뿐, 전문적 지식 사용의 효과에 대해 확신하거나 과시하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 ③ 정재승에게 글쓰기는 생각과 삶을 잇는 성찰의 매개물로, 과정보다 결과로 얻은 개인적 성취감을 중시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글쓰기를 통해 얻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동력으로 삼는 개인적 욕구보다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공동체적 가치관을 담고 있다.
- ⑤ 정재승의 글쓰기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으로, 독자의 사고를 자신의 관점으로 고정하거나 주입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 15 (라)에 따르면 정재승은 글을 쓰는 과정 자체를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는 기회로 삼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ㄷ)하며 지식을 확장하였고, 학창 시절부터 문학과 영화, 음악 등의 폭넓은 독서 경험을 쌓아(ㄱ) 글쓰기의 풍부한 자양분으로 삼았다.

| 오답 풀이 |

ㄴ. 이 글에 따르면 정재승이 글을 쓰는 이유는 소통의 기쁨을 갖기 위해서이고, 과학이 밝혀내는 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신의 연구 성과를 자랑하거나 학계에서의 명성을 높이는 것은 그의 글쓰기 동기가 아니다.

ㄷ. (라)의 2번째 문단에서 정재승은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을 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글이 써지지 않자 아예 책을 쓰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그 출구로 책을 쓰는 것 자체를 공부(ㄷ)가 되도록 시도했으며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다양한 교류를 시도한 것이라고 하였다.

- 16 독서와 작문은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자와 독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기존의 지식과 정보를 변형 없이 수용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 ① 책은 당대 인간의 삶과 사회 현실을 기록한 것으로, 독서를 통해 독자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를 이해하게 된다.
- ② 작문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넘어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적극적인 실천 행위이다.
- ③ 필자는 글을 쓰면서 필자와 독자가 속한 공동체 및 당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해 끊임없이 묻고 답을 찾으며 글을 완성한다.
- ④ 독서와 작문은 문자 언어로 필자와 독자가 서로 의미를 구성하는 문어 의사소통 행위이다.

17 제시된 숙종의 편지글을 보면 현대와 같은 문장 부호(마침표, 쉼표, 물음표 등)는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 ① 숙종의 편지글은 세로쓰기로 작성되어 있다.
- ② 숙종의 편지글은 띄어쓰기 없이 모든 글자가 연속적으로 쓰여 있다.
- ③ 숙종의 편지글의 우측 제목 부분에 '명안공주방(明安公主房)'이라는 한자가 쓰였고, 본문에는 한글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⑤ 숙종의 편지글에서 반복되는 글자 '섭'을 특정 기호(~)로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8 숙종의 편지글은 한 사람에게 글을 쓴 후 사람을 통해 전달하고 답장을 기다려야 하여 서로 소통하기 어려웠다. 반면 <보기>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에 많은 독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독자가 곧 필자가 되어 다양한 독자의 의견을 받아 글을 써 나가는 쌍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다수의 독자와 한 번에 소통했고, 오늘날에는 한 명의 독자와 깊이 있게 소통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 ① 숙종의 편지글의 독자는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 왕후이고 필자는 숙종으로 독자와 필자가 명확하게 구분된다. <보기>에 제시된 오늘날의 사례에서 독자가 필자에게 댓글로 문의를 하기도 하고 필자가 되어 글을 작성하기도 하므로 오늘날에는 필자와 독자의 경계를 구분 짓기 어렵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② 숙종의 편지글은 종이와 붓으로 글을 쓴 것이지만, <보기>의 사례에서 지현이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쓴 것이다.
- ③ 숙종의 편지글은 숙종이 어머니인 명성 왕후에게 서신으로 전달한 내용으로 독자와 필자가 의견을 나누기 어렵다. <보기>의 사례에서는 필자와 독자가 서로의 의견을 쌍방향적으로 전달하며 소통한다.
- ⑤ 숙종의 편지글은 숙종이 어머니인 명성 왕후에 보낸 편지로 사람을 통해 전달되므로 서로 소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보기>의 사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독자와 필자가 소통하기 때문에 독자와 필자가 즉각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19 자기 선택적 독서는 독자가 자신의 목적, 흥미, 필요에 따라 주체적으로 책을 선택하여 읽는 것을 의미한다. ②는 과제를 하기 위해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정해진 책을 읽는 것으로, 독자가 자유롭게 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기 선택적 독서라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 ①, ③, ④, ⑤ 자신의 학업, 흥미, 진로 탐색, 교양 함양을 위해 스스로 책을 선택하여 독서하는 것은 자기 선택적 독서에 해당한다.

20 작문 맥락을 분석하는 것은 글을 쓰기 전에 수행해야 하는 활동이다. 글의 목적, 주제, 독자, 매체와 같은 구체적인 상황을 미리 분석해야 그에 걸맞은 적절한 글이나 자료를 탐색하고 내용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감을 수집한 뒤 그 중에서 쓸 내용을 선별할 때에 글을 쓰는 목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문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적절한 글감을 선택할 수 있다.

21 시각 자료는 글로 된 정보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제시하여 보여 줌으로써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도와준다. <보기>에 제시된 그림과 글은 필자가 읽은 김보통의 책인 『아직, 불행하지 않습니다』에 제시된 내용이다. 이 그림과 글을 필자의 글에 제시함으로써 브라우니와 관련된 김보통 작가의 사연을 독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그림을 제시함으로써 줄거리의 단조로움에서 탈피할 수 있고 독자의 눈길을 끌 수 있다.

22 다른 사람의 글이나 자료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하는데, 이는 원저작자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며, 출처를 밝힘으로써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A]에는 필자가 인용한 자료들의 출처를 제시해야 한다. 글의 마지막에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밝혀 적는 것은 필자가 글쓰기 과정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태도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출처'를 포함하여 그 이유를 썼다.	☐
원저작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썼다.	☐

23 ㉠~㉣은 이 글에 활용된 글감이다. ㉠은 김보통 작가가 평범한 회사원에서 만화가가 되기까지의 경험을 다룬 글감으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기회를 얻은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다른 작가와 차별화되는 특징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거나 차별화 요소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 ② 이 글의 2번째 문단에 책에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김보통이 만화가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 ③ 이 글의 3번째 문단에서 인터뷰에 '그림을 보아 준다는 것이 즐거웠다',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였다.'라고 말한 것을 통해 작가로서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이 글의 3번째 문단에서 방송을 통해 그의 작품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작가로서 이루어 낸 사회적 성공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이 글의 3번째 문단에서 방송을 통해 드라마 제작 소식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김보통의 작품이 웹툰 시장을 넘어 드라마로 매체가 확장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 읽고 쓰는 힘을 기른다

1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제재 얼굴, 음성 그리고 문자

본책 038~039쪽

★ 확인 문제

01 ③ 02 ⑤ 03 ①

01 이 글의 필자는 전화와,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라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소통 방식이 ‘대면(얼굴-타자) → 전화(음성-타자) → 문자 메시지(글자-타자)’로 변화해 온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며, 타자의 존재 양상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02 이 글의 필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이 과거에 타인과 마주하며 시선을 감당하고 표정을 해독했던 심리적 노동과 부담감에서 단계적으로 벗어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사람들이 이러한 노력에서 벗어나 ‘심리적 편리함’을 누리는 상황에서, 타자성이 축소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비판적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필자는 편리함만을 근거로 소통 방식의 변화를 ‘진화’라고 긍정하기보다는,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 것인지를 성찰해 보아야 한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⑤와 같이 답변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④ 필자는 타인의 타자성이 축소됨에 따라 인간관계가 가벼워지고 소통이 악화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반발이나 존재감의 불균형과 관련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③ 이 글의 필자는 전화와 휴대 전화의 발명 등 기술적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났으나,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타자의 타자성을 축소하고 소통을 악화시킨다고 보아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3 이 글의 필자는 (나)에서 타인과 마주 앉아 관계를 맺는 일은 상대방의 시선을 감당해 내고 표정의 의미를 해독하는, ‘에너지가 소모되는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문자 메시지는 이러한 시각적·청각적 요소가 제거된 매체로 타인의 존재감을 최소화한다. 따라서 ㉠에서 말한 ‘심리적 편리함’은 타인의 시선이나 표정을 직접 견뎌야 하는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040~041쪽

01 ④ 02 ⑤ 03 필자는 독자를 ‘당신’이라 호명하며 소통 방식의 변화가 불러온, 타자성 축소라는 상황을 독자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 보게 해 독자의 성찰을 유도한다. 04 ④ 05 ⑤ 06 대면 소통의 부담을 덜어 주어 소통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로 인해 타자성 축소를 불러오는 양면적인 기술로 보고 있다. 07 ②

01 이 글은 기술 발달에 따른 소통 방식의 변화와 그것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술 문명의 폐해를 고발하기보다 타자성이 축소되어 가는 현상을 우려하며 독자가 바람직한 소통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02 이 글의 3번째 문단에서 ‘전화가 발명된 이후에 당신은 하나의 ‘음성’이 되었다’고 하였고, 4번째 문단에서 ‘휴대 전화 덕분에 당신은 마침내 ‘글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휴대 전화의 발명은 ‘얼굴-타자’에서 ‘글자-타자’로의 변화를 가져왔다.

03 이 글의 필자는 독자를 ‘당신’이라고 지칭함으로써 기술의 발달이 가져온 소통 방식의 변화와, 그로 인해 타인의 존재감이 희미해지는 타자성 축소 현상을 독자 자신의 상황으로 인식하게 하고 있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방관자의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의 일상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하여 현대 사회의 소통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유도하는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필자가 독자를 ‘당신’이라고 호명한 것의 효과를 독자의 성찰 유도와 관련지어 썼다.	☐
글의 핵심 내용인 ‘소통 방식의 변화’, ‘타자성 축소’를 포함하여 썼다.	☐

04 이 글의 3번째 문단에서 필자는 전화 발명 이후의 변화를 설명하며 ‘당신의 시선을 견뎌 내고 표정을 읽어 내야 하는 노역을 얼마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이 더 중대한 변화’라고 하였다. 이어서 ‘전화 속의 당신은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지도 않는 그저 하나의 음성일 뿐’이라며, ‘음성-타자’가 더 편안한 이유가 타인을 실제로 대면하여 그의 시선과 표정을 읽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임을 밝혔다.

05 필자는 기술의 발달로 편리함을 얻었으나, 그 과정에서 타자의 존재감인 ‘타자성’이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은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현재의 소통 방식이 반드시 긍정적인 ‘진화’라고 볼 수는 없다는 필자의 우려와 염려를 담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필자가 현재의 소통 방식의 변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이는 '타자성의 축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의 도덕적 태도인 '배려'의 유무는 글의 맥락과는 관련이 없다.
- ② 필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타자성 축소를 걱정하고 있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 ③ 필자는 문자 소통이 오히려 에너지를 아껴 주는 '편리한' 소통 방식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편리함 속에서 타자성이 축소되어 가는 현상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 ④ 필자는 기술 발달의 물리적 한계가 아니라, 기술 발달로 타자성이 축소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06 이 글의 3번째 문단에서 필자는 '전화는 만날 수 없는 고통을 덜어 주는 기계이지만,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평계가 되어 주는 기계'라며 전화의 양면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즉 필자는 전화를 통한 소통의 편리함이 오히려 타인의 존재감을 축소시키는 모순을 유발한다고 보기 때문에 전화를 양면적으로 인식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전화에 대한 필자의 양면적 인식이 드러나도록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이 글은 비대면 소통이 심리적 불편함은 줄이지만 타인의 존재감을 축소시키고 소통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반면, <보기>는 비대면 문화가 소통에서 오는 감정 소모를 줄여 심리적 편안함을 주고 교육이나 의료 같은 사회적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준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보기>가 비대면 소통이 가져오는 심리적 자유와 사회적 기회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 ① 이 글에서는 나와 당신이 다름을 느끼는 '타자성'이 축소되는 현실을 설명하고 있지만 대면 관계에서 느끼는 타인의 존재감을 소통의 본질이라고 제시하지 않았다. <보기>는 오히려 대면 관계의 부담을 줄이는 비대면의 편의성을 강조한다.
- ③ 이 글은 기술의 발달이 소통의 편리함을 가져왔지만, 타인의 타자성을 축소하기 때문에 이를 진정한 '진화'라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④ 이 글은 비대면 방식이 소통을 편리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보를 정제하기 때문에 소통의 본질을 희박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비대면 소통이 타인의 존재감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한다.
- ⑤ 비대면 소통에 대해 이 글은 타인의 존재감을 축소시키는 요소로 보며, <보기>는 심리적 자유와 재화 및 서비스의 접근성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 02 비판적 읽기

제재 줄 서기를 돈으로 살 수 있을까

본책 044~049쪽

★ 확인 문제

- 01 ③ 02 ⑤ 03 ③ 04 ⑤ 05 ④ 06 ② 07 ④ 08 ④ 09 ④

01 (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을 고용해 대리로 줄을 세우거나 압표를 파는 행동이 잘못일까?'라는 질문을 제시하며 글의 핵심 쟁점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이후 (라)~(바)에서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자유 지상주의자, 공리주의자)의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글의 쟁점은 대리 줄 서기와 압표 판매를 허용해야 할지에 대한 것이다.

02 (라)에 따르면 자유 지상주의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또한 필자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이 압표 매매 금지법에 반대하는 이유가 성인이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자유 지상주의자는 대리 줄 서기를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여길 수 있다.

03 (마)에 따르면 공리주의자는 시장 거래가 성립했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이익을 얻었다는 뜻으로 본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는 ㉠을 통해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 사람' 중 어느 한쪽에 유리한 방향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마)에서 공리주의자는 시장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한다고 설명하였다.
- ② (바)에서 시장이 재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그 재화를 할당한다고 하였다.
- ④ (바)에서 시장 거래로 인해 구매자와 판매자가 행복해지고 효용이 증가한다는 점을 들어 자유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설명하였다.
- ⑤ (마)에서 시장 거래가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한다고 설명하였다.

04 (사)에서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경제학 교과서 중 한 권을 저술한 경제학자인 맨큐의 견해를 제시하고, 맨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공리주의적 관점을 부연 설명하여 글의 이해를 돕고 있다.

모단원 평가 문제

05 (자)에서 셰익스피어 공연의 대변인은, ‘대리 줄 서기와 암표 판매는 공원에서 셰익스피어 공연을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서 좌석과 입장권을 빼앗고 있다.’라고 말하며 대리 줄 서기와 암표 판매를 반대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06 (타)에서 필자는 ‘우리의 목적이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유 시장이 줄 서기보다 믿음직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반박한다. 그 근거로 어떤 재화에 기꺼이 가격을 지불하려는 것이 꼭 해당 재화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시장 가격에는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마음만큼이나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반영되기에 재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도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그 재화를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하였다.

07 (파)에서 필자는 비싼 가격을 지불했지만 늦게 야구장에 도착하여 자리를 일찍 떠나는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 ‘비싼 관람석에 앉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경기를 향한 열정보다는 주머니 사정과 관계가 깊을 수 있다.’라고 설명한다. 필자는 이 사례를 통해 시장 가격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능력도 반영하므로,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을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08 (너)에서 필자는 어떤 재화, 즉 퍼블릭 시어터의 무료 공연 입장권은 구매자나 판매자의 효용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며, 이것이 줄 서기와 같이 모두에게 공평한 방식이 아니라 대리 줄 서기나 암표 거래처럼 시장 거래를 통해 분배될 경우 그 본질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본다.

| 오답 풀이 |

① 대리 줄 서기는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화 분배이므로 자유 시장보다 공정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이익을 얻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효용과 집단의 행복이 증가하므로 대리 줄 서기나 암표 판매가 효율적인 재화 분배 방법이라고 하였다.

③ 필자는 대리 줄 서기를 통한 무료 공연의 입장권 분배를 윤리적이라고 보지 않고, 오히려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대리 줄 서기나 암표 판매가 경제적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방법이지만, 필자는 이러한 자유 시장에 따른 재화의 분배가 재화의 본질적 가치에 어긋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09 (러)에서 ‘본래 선물이어야 하는 행사로 입장료를 받거나 암표상이 이익을 취하게 허용하는 일은 이러한 취지에 어긋난다. 이는 공공의 축제를 돈벌이, 즉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바꾸는 행위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무료 공연이 시장의 원리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1 ② 02 ③ 03 ④ 04 시장은 그 재화에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재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재화를 할당한다. 05 ⑤ 06 ④ 07 ⑤ 08 ⑤ 09 ⑤ 10 모든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이다.

01 이 글에서는 뉴욕 퍼블릭 시어터가 주관하는 무료 공연의 입장을 구하기 위해 대리 줄 서기와 암표 판매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1번째 문단에서 대리 줄 서기에 반대하는 극장 측과 당시 뉴욕 경찰 총장의 반응을 제시하였고, 2번째 문단에서부터 대리 줄 서기를 옹호하는 입장의 주장을 서술하고 있다.

02 3번째 문단에서 공리주의자의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 줄 서는 사람 사이에 거래가 성립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구매자와 판매자 중에서 한쪽만 이익을 얻으므로 사회적 효용이 감소한다는 ③의 내용은 공리주의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다.

03 [A]에서 필자는 경제학자 맨큐의 설명을 제시하여 자유 시장이 재화를 분배하는 효율적 방법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측의 주장을 부연하였다. [A]에 경제학자의 관점이 드러나 있으나 이는 자유 시장에 대한 관점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다른 재화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미국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경제학 교과서 중 한 권을 저술한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라고 소개하며, 해당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이론을 제시하여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② 경제적 효율성의 개념을 ‘사회 구성원 전체의 경제적 행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여, 독자가 자유 시장의 미덕에 대한 맨큐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③ 암표 거래라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자유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는 맨큐의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⑤ 맨큐의 발언을 통해 자유 시장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을 주어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는 공리주의자의 입장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04 4번째 문단에 따르면 ㉠과 같은 관점에서 시장 거래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효용은 증가한다. 이런 점에서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의 뒷부분에서 이러한 시장

이 재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에게 그 재화를 할당하고, 또 그 기준은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느냐로 측정한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4번째 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장이 재화를 분배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선별하는 기준을 썼다.	☐
'시장은~'으로 시작하는 문장 형태를 지켜 썼다.	☐

- 05 2번째 문단에서 시장을 옹호하는 자유 지상주의자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를 무엇이든지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4번째 문단에서 시장을 옹호하는 경제학자들은 재화에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그 재화가 돌아가면 사회적 효용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보기>의 소비자학과 교수는 시간을 자산으로 여기며 이와 관련해 돈을 투자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글의 자유 지상주의자는 시간을 사고팔 수 있는 재화로 취급하는 소비자학과 교수의 의견에 동의할 것이며, 이 글의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시장 상품으로 시간을 거래하여 효용을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소비자학과 교수의 의견에 공감할 것이다.

| 오답 풀이 |

- ① 자유 지상주의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상호 동의에 따른 우선 탑승권 거래를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로 볼 것이다.
 ② 이 글에서 대리 줄 서기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불 능력만으로 재화를 분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기>의 뇌인지과학과 교수는 우선 탑승권에 대해 '돈을 더 낸 사람이 새치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라고 비판하였으므로, 대리 줄 서기에 반대하는 측은 <보기>의 뇌인지과학과 교수의 비판에 공감할 것이다.
 ③ 공리주의자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한다.'라고 본다. 따라서 우선 탑승권의 시장 거래가 사회 전체의 행복과 효용을 높인다고 여길 것이다.
 ④ 맨큐는 자유 시장이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한다고 보므로 프리미엄 이용권의 암표 또한 시장에서 거래됨으로써 효율적으로 분배될 것이라고 볼 것이다.

- 06 자유 시장 옹호자들은 시장 논리를 지지하는 입장이므로, 무료 공연의 입장권을 얻기 위해 대리 줄 서기를 활용하거나 암표를 구매하는 행위가 사회적 효용을 높인다고 여길 것이다. 이들은 '입장권을 자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시장을 통해 재화를 분배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공연의 본질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극장 측의 입장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 ①, ③ (가)에서 셰익스피어 공연의 대변인은 '돈을 받고 대신 줄을 선 사람이나 암표상이 입장권을 확보했다면 그 뒤에 서 있던 사람, 즉 암표 가격을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라고 하였다.
 ②, ⑤ (나)에서 필자는 야구 경기장의 비싼 관람석에 앉았다가 일찍 자리를 뜨는 사람보다, 경제적 여유는 없어도 선수들의 평균 타율을 전부 꿰고 있는 팬이 야구를 더 좋아할 것(입장권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가격을 지불하려는 마음이 재화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을 가리는 지표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 07 <보기>에서 설명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따르면 최고의 플루트는 뛰어난 음악을 만들어 낸다는 악기의 존재 목적을 고려할 때, 연주를 가장 훌륭하게 해낼 수 있는 연주자에게 분배되어야 한다. (다)에서 필자는 퍼블릭 시어터가 셰익스피어 무료 공연을 여는 취지는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에 따라 공연의 입장권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대리 줄 서기와 암표 판매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 08 (나)에서 필자는 야구장 사례를 들며 '비싼 관람석에 앉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경기를 향한 열정보다는 주머니 사정과 관계가 깊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시장 가격은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능력도 반영하므로 재화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기에는 '불완전한 지표' ㉠)라는 것이다.

- 09 ㉠에 대해 필자는 자유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줄 서기가 '차별'이라면, 자유 시장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차별이라고 반박한다. 나아가 필자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지불하려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려는 마음보다 더 나은 가치 평가 기준이라고 볼 근거가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 10 (다)에서 필자는 무료 야외 공연을 대중의 축제이자 일종의 시민 축하 행사라고 보고, 관람료 지불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셰익스피어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연의 목적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은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시민이 평등하게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공공의 축제로서의 무료 공연을 의미한다.

평가 기준	확인 ☒
㉡의 의미를 (다)에 드러난 무료 야외 공연의 본래 취지와 관련지어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3 내용 조직과 표현, 고쳐쓰기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056~057쪽

01 ⑤ 02 ① 03 ⑤ 04 글쓰기의 과정과 수영을 배우는 과정을 필자의 방식으로 다시 해석함. 05 ③ 06 ② 07 ③

01 ‘고쳐쓰기’ 과정에서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글을 개선하는 것이 고쳐쓰기의 목적임을 염두에 두고 글 전체, 문단, 문장, 단어 수준으로 나누어 글을 점검한다. 작문 맥락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 글의 조직, 글의 표현 차원에서 글을 점검하여 작문 맥락에 맞게 고쳐 쓰는 것이므로 글의 주제나 작문 목적 등 작문 맥락 자체를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2 작문 맥락에는 작문의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이 포함된다. 제시된 글은 수영과 글쓰기에 대한 필자의 사색을 통해 배움은 반복을 통한 신체의 느린 변화라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03 이 글의 필자는 ‘처음’ 부분에서 언급한 ‘글쓰기와 수영의 비유’에 대해 반박하며, 글쓰기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물에 대한 두려움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이를 통해 글쓰기에 관심은 있지만 글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글쓰기를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예상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04 이 글의 개요를 바탕으로 할 때 [A]에는 이 글의 3번째 문단에 제시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3번째 문단에서는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과 수영을 배우는 과정을 연결해서 필자의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의 개요를 바탕으로 ‘가운데’에 들어갈 내용을 파악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5 (가)는 작문 계획, (나)는 작성할 글의 제목과 개요이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이 글의 목표는 채식을 실천하도록 권유하는 것이므로 청소년의 식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학생이 작성한 개요 중 ‘처음’ 부분의 ‘채식을 하는 운동 선수 소개’를 통해 예상 독자인 채식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 쓴 글을 학교 소식지나 인터넷 신문에 실을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인쇄 매체나 디지털 매체의 활용에 맞게 시각적 요소를 추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가)에서 ‘채식의 종류와 채식이 주는 이점’이 글의 주제이고 채식 실천을 권유하는 목적의 글이라고 하였으므로 채식을 할 때 좋은 점을 제시하여 주제와 목적을 강조할 수 있다.

⑤ (가)에서 예상 독자가 채식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채식에 대한 정보를 글에 제공할 수 있다.

06 (나)의 개요에서 ‘끝’ 부분의 내용을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을 시작해 볼 것을 권유함.’으로 작성하는 것은 (가)의 작문 계획 중에서 채식을 실천하도록 권유하겠다는 글의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며 마무리하기 위함이다.

07 문맥상으로 ㉠은 ‘체력 소모가 높다’가 아니라 ‘체력 소모가 많다’가 더 적절하므로 수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058~063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④ 06 모든 일이 문자 메시지로 해결되어 통화나 대면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07 ⑤ 08 ① 09 ⑤ 10 ④ 11 시장도 돈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차별을 하며,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줄을 서서 기다리려는 마음보다 재화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더 적절한 것은 아니다. 12 ② 13 ④ 14 ④ 15 ① 16 ⑤ 17 글쓰기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물에 대한 두려움에 빗대어 표현함. 18 ④ 19 ① 20 ④

01 이 글에서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람들 간의 주요 소통 방식이 대면에서 음성, 음성에서 글자로 변화하면서 타자의 타자성이 축소되고 있는 현상을 단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02 (나)에서 대면하여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면 에너지가 소비되는 노동이라고 하였다. (라)에서 사람들이 문자 메시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술적 효율성보다도 얼굴은커녕 음성조차 갖고 있지 않은 글자로서의 타자가 주는 심리적 편리함 때문이라고 하였으므로 문자 메시지의 사용으로 큰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④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3 (다)와 (마)를 통해 전화와 같은 ‘음성-타자’는 타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시선과 표정을 감내해 내는 ‘얼굴-

타자'보다 타자성을 회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와 (라)에 따르면 '얼굴-타자'는 시선을 감당하고 표정을 해독해야 하는 비언어적 소통 과정이 수반되지만, '글자-타자'는 얼굴과 음성조차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글자-타자'는 '얼굴-타자'보다 비언어적 표현이 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바)에서 필자가 제시한, 결별 선언이나 해고 통지를 문자로 받는 사례와 같이 타자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망은 타인과의 관계를 확장하기보다 오히려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관계를 확장한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④ 기술 발달로 소통 수단이 바뀌며 소통에 필요한 수고는 줄어들었으나 비대면 소통으로 많은 사람과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등 간소화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한편 (마)에서 소통 방식의 변화로 타자성이 축소되었다고 하였으므로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만든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⑤ (라)에 따르면 '글자-타자'는 표정이나 음성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통의 단서가 줄어든 상태이므로, '글자-타자'가 타인의 심리와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마)에서 '얼굴-타자'에서 '음성-타자'로, '음성-타자'에서 '글자-타자'로 변하면서 타인과 교류할 때 나와 타인의 다름에 대한 인식이 점차 축소돼 왔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은 타인과 소통 시 느껴지는 자신과 타인의 존재감이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보기>에서는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현실을 제시하며 비대면 문화의 장점과 비대면 문화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바)에서 필자는 비대면 소통의 심리적 편안함을 인정하면서도 이와 같은 소통이 서로의 존재감을 축소시켜 타자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의 필자는 의사소통 문화가 타자성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에 우려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감정 소모가 없는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있지 않다.

② <보기>의 2~3번째 문단에서 오히려 비대면 문화가 과도한 감정 노동과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기회의 동등함과 재화에의 접근성에 더 유리하다고 제시하였으므로 사회 구성원 간의 연계를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글의 필자는 (나)에서 대면 소통이 에너지를 소모하고 친밀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담스럽다고 하였으므로 대면 소통의 장점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보기>의 필자는 비대면 소통의 장점과 긍정적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글에 따르면 오히려 타자의 존재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보기>에서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06 (라)에서 현대인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화, 대면으로 소통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내면으로는 문자 메시지로 모든 소통이 해결되어 통화, 대면을 회피하고 싶은 소망을 담고 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라)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7 이 글은 뉴욕 퍼블릭 시어터의 무료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한 '대리 줄 서기'와 '암표 거래'라는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해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자유 지상주의, 공리주의자)의 주장을 부연하고자 저명한 경제학자인 '그레고리 맨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08 (라)~(마)에서 필자는 줄 서기와 시장 논리 중에서 무엇이 더 재화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합리적인지 설명하며 시장 거래만이 재화를 이상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바)에서 필자는 이러한 근거를 들며 퍼블릭 시어터의 무료 공연의 취지가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공연을 관람하게 하는 것임을 들어 대리 줄 서기가 공익적 취지를 무시하고 사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④ (바)에서 필자는 대리 줄 서기가 공공의 축제를 사적 이익 취득의 도구로 변질시킨다고 비판한다. 이는 대리 줄 서기가 시장 옹호론자의 주장처럼 사회적 효용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의 평등한 관람 기회를 박탈하고 공공 재화 분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인다거나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다는 설명은 모두 적절하지 않다.

③ (라)와 (마)에 따르면 필자는 대리 줄 서기와 같은 시장의 논리가 돈 많은 사람들에게 유리한 차별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필자는 시장의 효율성을 옹호하기보다 관람료 지불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향유해야 한다는 공공 재화의 취지를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사회적 약자에게 기회를 제공하여 효율성이 약화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바)에 따르면 대리 줄 서기는 본래 취지인 '선물'로서의 가치를 훼손한다. 필자는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가치를 사적 이익의 도구로 바꾼다는 주목하고 있을 뿐, 이것이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사회적 현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는 않으므로 필자의 시각으로 보기 어렵다.

09 (가)에서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 중 '자유 지상주의자'는 암표를 사는 것도 서로의 거래가 성립한다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 행동으로 생각하고, 대리 줄 서기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라)에서 필자는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반박하며 지불할 수 있는 능력과 재화에 대한 가치 평가가 반드시 부합하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의 맥락상 ㉠ ‘이러한 주장’은 시장 거래가 재화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효율성을 지니며 그렇기에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가 표를 얻는 것이 정당하다는 주장임을 추측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라)에서 필자는 ㉠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하며 최고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라도 그 경험의 가치를 전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이를 고려할 때 ㉡은 재화에 매긴 가치 정도가 그 재화에 매겨진 가격과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액수에 따라 높아진다고 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② 필자는 시장 가격에는 자발적으로 지불하려는 마음뿐만 아니라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반영되어, 세익스피어 연극이나 야구 경기를 가장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도 입장권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어 구매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을 반박하고 있으므로, ②는 ㉢보다는 오히려 필자의 관점과 가깝다고 볼 수 있다.
- ③ 문맥상 ㉣은 시장 가격을 통한 효율적 분배를 옹호하는 입장 이므로, 정부 주도의 재화 분배보다 경쟁에 입각한 자유 시장을 더 중요하다고 여김을 추측할 수 있다.
- ⑤ (라)의 내용을 볼 때, ㉤은 재화의 사용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격을 통해 재화를 분배하여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한다는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을 유추할 수 있다.
- 11 (라)~(마)에서 필자는 대리 줄 서기와 압표 거래 금지에 반대하는 시장 옹호자의 입장을 예상하여 그들의 예상 반론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그 예상 반론에 반박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고 있다. 필자는 시장이 돈 많은 사람들을 유리하게 차별한다는 것을 지적하며, 자발적으로 돈을 내려는 마음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에서 재화를 분배하듯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기다리려는 마음을 바탕으로 재화를 분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결국 필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마)의 내용을 참고하여 시장의 재화 분배 기준을 바탕으로 한 필자의 반박을 썼다.	☐
‘가격을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 ‘줄을 서서 기다리려는 마음’이라는 표현을 포함하여 썼다.	☐

- 12 ④는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공연 입장권을 가져야 사회적 효용이 극대화된다고 본다. 반면에 ⑤는 ‘지불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 13 <보기>에는 우선 탑승권을 구매함으로써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돈으로 사는 상황과, 이러한 우선 탑승권을 압표로 거래하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마)에 따르면 ‘기다리려는 마음’과 ‘돈을 지불하려는 마음’ 중 어느 것이 더 나은 가치 평가 기준인지 추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화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탑승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우선 탑승권이 공정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할 것이지만, 우선 탑승권이라는 재화 자체의 가치를 감소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 오답 풀이 |

- ① 시장 옹호자는 놀이기구 탑승을 위해 기다리는 시간을 재화로 보고 이를 금전과 거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⑤ 공리주의자와 맨큐는 부족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재화를 가장 높은 가격에 사려는 구매자에게 판매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보기>에 제시된 우선 탑승권의 압표 거래도 재화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행위로 볼 것이다.
- ③ (나)에서 공리주의자는 시장을 통해 분배를 함으로써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하였다. 공리주의자는 우선 탑승권을 판매하여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이익을 얻고 행복해졌으므로 사회적 효용이 증가했다고 볼 것이다.
- 14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읽기를 하면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사실적 읽기는 글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여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며 읽는 방법으로 추론적 읽기의 바탕이 된다. 추론적 읽기는 글에 생략되거나 숨겨져 있는 내용을 추측하며 읽는 방법이다.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필자의 생각(관점)이 올바른지 따지면서 글의 공정성, 적절성, 신뢰성을 판단하며 읽는 방법이다. ④는 글에 제시된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 판단하며 읽는 것이므로 비판적 읽기 방법에 해당한다.
- 15 작문 목적, 글의 주제, 예상 독자, 매체 등 작문 맥락을 고려하고 이에 따라 내용 조직 방법, 표현 전략을 정하여 글을 쓴다. 글을 쓰는 중에는 글쓰기의 전 과정에서 이와 같은 맥락을 살피며 글을 점검한다. 이때, ①과 같이 필자의 수준에 맞게 글의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독자의 수준과 배경지식 및 글의 목적 등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적절하다.
- 16 이 글은 수영과 글쓰기에 대한 사색을 바탕으로 얻은 깨달음을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다. 이 글을 계획할 때, 필자는 글쓰기와 배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므로 글쓰기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 있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 ① 이 글의 1번째 문단은 ‘처음’, 2~3번째 문단은 ‘가운데’, 4번째 문단은 ‘끝’에 해당하도록 조직되었다.

② 이 글은 글쓰기에 대한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솔직히 표현하여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상 독자로 글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설정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③, ④ 필자는 글쓰기를 수영에 비유하여 꾸준히 이어 나가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능력이 길러지고 배울 수 있음을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 17 필자는 글쓰기를 수영에 비유하는 표현 전략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 전략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글쓰기 과정을 구체적이고 친숙한 이미지로 바꾸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필자는 수영을 통해 글쓰기의 두려움과 막막함을 구체화하여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필자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제시된 필자의 의도가 드러나는 표현 전략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18 제시된 글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도록 바뀐다면 예상 독자의 수준과 배경지식을 고려하여 글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 어린이의 수준에 맞춰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수정해야 하므로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지 않는, 글쓰기 이론 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글의 종류나 형식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9 이 글의 목적은 채식 실천을 청소년에게 권유하는 것으로, 예상 독자인 청소년에게 채식의 이점과 실천 방법을 쉽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가운데'에서 ㉠ '4. 채식 분류법'은 주제나 목적과 관련성이 부족하므로 개요에 포함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편, '끝' 부분에 제시된 ㉡ '채식의 의의'는 '채식의 종류와 채식이 주는 이점'이라는 주제와 연관성이 있으나, 독자에게 채식 실천을 권유하는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 20 글은 한번 작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문 맥락을 바탕으로 글의 내용·조직·표현 차원에서 글을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고쳐 써야 한다. 글을 점검하여 고쳐 쓰는 과정은 자신의 생각을 독자에게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내용과 형식을 다듬는 단계이므로, 글의 주제와 목적이 분명한지 확인하고(①) 문단 및 문장 간의 유기적 연결(②)과 구성의 짜임새(③)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살펴 의미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⑤). 그러나 글의 수준은 어려운 어휘를 사용하는 것보다 예상 독자의 수준과 맥락에 맞아야 하므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3. 삶을 성찰하다

1 인문·예술 분야의 글

제재 1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읽기

본책 068~073쪽

* 확인 문제

01 ⑤ 02 ③ 03 ② 04 ① 05 ③ 06 ⑤ 07 ④ 08 ②
09 ② 10 ④ 11 ⑤

- 01 이 글은 사랑이 배움 없이도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라는 현대인의 통념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사랑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질문함으로써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처음'과 '가운데 1' 부분에 부모와 자녀, 연인의 사례가 등장하지만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시로 쓰였으며, 사랑의 다양한 사례를 나열하여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사례를 바탕으로 사랑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사랑으로 인한 고뇌와 집착 등의 갈등 상황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하기보다는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③ 이 글에는 현대인의 '통념'과 프롬의 '철학적 견해'가 대조될 뿐, 학술적으로 정립된 두 가지 이론을 대등하게 소개하거나 이를 절충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지 않다.

④ 현대인의 사랑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는 있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랑의 가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그 변천 과정을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 02 이 글의 필자는 (마)에서 현대인이 사랑의 능력을 육성할 것인가를 문제로 보지 않고 사랑할 만한 대상을 발견하는 데 집중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 스스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주력한다는 것은 현대인의 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03 필자는 (나)에서 사랑이 상대의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는 성숙한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구현하는 '집착'의 형태를 띠게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은 사랑이 상대에게 일방적인 욕망을 강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04 필자는 (다)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던 사랑에 대한 생각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독자가 자신의 인식을 스스로 점검하

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사랑이 실제로는 배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독자의 성찰을 촉구하고, 이후 이어지는 글의 내용에 관심을 집중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 05 이 글에 나타난 프롬의 관점은 사랑을 즐겁고 흥분된 감정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마해야 할 능력이자 기술의 문제로 보며,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태도를 강조한다. 따라서 사랑의 문제를 ‘어떤 능력인가’가 아닌 ‘어떤 대상인가’의 문제로 잘못 파악하여 현재 연인이 즐거움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를 밝게 해 줄 사람을 찾아보라고 권유하는 조언은 프롬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 ① (아)에서는 프롬의 관점에서 사랑은 이론과 실습이 필요한 기술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랑을 배우고 실천해야 할 영역으로 보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사)에서 현대인이 ‘사랑에 처음 빠지는 순간 경험하는 격정적인 상태와 사랑이 지속되는 상태를 혼동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설렘이 사라지는 상태와 사랑을 혼동하지 말고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조언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사)에서 ‘더 깊이 알게 될수록’ 친밀감이 ‘갈수록 약화된다’고 분석한 점과, (아)에서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자)에서 언급한 ‘기쁨, 관심’ 등을 줌으로써 서로를 충만하게 만드는 사랑을 실천하라는 조언은 적절하다.
- ⑤ (자)에서 ‘성숙한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며, ‘상대방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능동적으로 상대의 삶에 참여하라는 조언은 적절하다.

- 06 (바)에서 ‘20세기 후반부터는 연인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야 한다는 ‘낭만적인 사랑’의 관념이 지배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사랑에 빠질 상대를 만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 ① 부모의 중재로 결혼이 이루어진 것은 과거 19세기나 20세기 전반의 상황으로, ㉠의 결과가 아니다.
- ② 사랑을 결혼 후에 가꾸어 가는 것으로 여긴 것은 과거의 태도이며, ㉠의 결과는 오히려 이와 반대로 사랑이 결혼의 전제가 되었다.
- ③ 이 글에 ㉠의 결과로 사랑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실습하는 풍토가 형성되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④ (바)에서 ㉠의 결과로 오히려 사람들이 ‘사랑을 가꾸어 가는 것’보다 ‘사랑에 빠질 상대를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07 (자)에서 ‘많이 가진 자가 부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은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사람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 08 (하)에서 ‘성숙한 사랑’이란 단순히 특정한 대상에 국한되는 태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이자 특정한 성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랑을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성격과 태도로 받아들이는 ㉡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 ① (카)에 따르면 성숙한 사랑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존하여 삶의 안정을 얻으려는 태도는 자신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기보다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③ (키)에서 성숙한 사랑을 위해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나르시시즘’을 제시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상대에게 보상을 기대하거나 대우를 요구하는 태도는 자기중심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④ (타)에서 성숙한 사랑의 요소인 ‘존경’은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통찰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서로의 차이를 없애고 하나가 되는 것은 상대의 개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거)에서 사랑은 저절로 생긴다는 통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감정에만 의존하여 사랑을 이어가겠다는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 09 이 글에서는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을 강조하며, 타인과 세계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강조한다. <보기>의 ‘부모’도 자녀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인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은 사랑을 ‘받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으므로, 이 글을 바탕으로 이해한 내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 10 이 글에서 ㉠은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남에게 의존하거나 남을 지배하고 착취하지 않아도 나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람이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며 연인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의 예시로 적절하다.

- 11 (타)에서 ㉢ ‘책임’은 상대의 요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삶의 과정에 함께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 ‘존경’은 상대가 가진 독특한 개성을 통찰하고 그가 자신만의 방식대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태도를 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상대의 어려움을 단순히 위로하는 데 그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상대의 자율적 성장을 배제한 채 대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또한 상대를 소유물로 여기는 태도일 뿐 ‘존경’으로 볼 수 없다.

제2 사진의 타이밍, 인생의 타이밍

◆ 확인 문제

본책 076~083쪽

01 ⑤ 02 ⑤ 03 ④ 04 ④ 05 ① 06 ② 07 ② 08 ④
09 ⑤ 10 ④ 11 ④ 12 ① 13 ① 14 ⑤

01 이 글은 서두에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통념을 제시한 후, ‘세상의 모든 일에 좋은 때가 있듯 사진 촬영에도 좋은 때가 있습니다.’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글의 화제와 연결하고 있다.

02 (마)에서 필자는 ‘이상적인 보도 사진’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하는 저널리즘의 영역과 강렬하고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야 하는 사진 미학의 영역을 모두 충족한 사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상적인 보도 사진’은 저널리즘의 공정성, 정확성과 사진 미학의 아름다움을 모두 표현한 사진이 적절하다.

03 ㉠ ‘매직 아워’는 일출과 일몰 전후의 짧은 시간으로,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효과를 만들어 주는 빛의 시간대이다. 필자는 거리를 스튜디오 삼아 자연의 태양광을 조명으로 이용하는 사진 기자에게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매직 아워는 전문 사진가뿐만 아니라 취미 사진가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04 (마)에서 필자는 보도 사진이 저널리즘과 사진 미학이라는 두 영역의 균형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진이 미학적으로 강렬하고 아름다울 때 비로소 그 속에 담긴 뉴스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에 국내 신문사의 선호도나 채용 기준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필자가 외신 기자의 실력을 부러워한 마음은 외신으로 이직하게 된 계기 중 하나이다. 필자가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려 하는 이유는 미학적 완성을 통한 보도 내용의 전달력을 강화하여 대중의 관심을 이끌기 위함이다.

③ (라)에서 필자가 외신으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았다고는 하였으나, 미적 수준이 해외 취재를 위한 자격 조건이라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입체감과 계조의 구현은 시각적 완성도를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일 뿐, 그 자체가 필자가 시각적 완성도가 높은 사진을 찍는 궁극적인 이유라고 볼 수 없다.

05 이 글은 필자가 인도양 지진 해일 취재 현장에서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베테랑 사진 기자들의 작업 방식을 관찰하며 얻은 깨달음을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단순히 사건을 나

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직 아워’라는 빛의 미학을 발견하며 자신의 기존 취재 방식을 반성하고 앞으로 자신이 지향하고자 하는 바를 제시하고 있다.

06 이 글에서 베테랑 사진 기자들은 태양광이 대상의 입체감을 살려준다는 매직 아워의 원리를 이해하고(㉠), 사진을 포착하기 위해 미리 현장에 나가 준비하여(㉡) 촬영에 임하였다. 반면, 그러한 베테랑 사진 기자들의 촬영 방식을 깨닫기 이전의 필자는 정해진 근무 시간에만 취재했던 국내에서의 작업 일정 방식을 고수하며(㉢) 빛의 효과에 대한 고민 없이 단순히 뉴스를 쫓아 눈앞의 상황을 포착하는 데만 치중하였다(㉣).

07 이 글의 필자는 그동안 한국에서 정해진 근무 시간에 따라 촬영해 왔던 방식이 ‘좋은 빛’을 놓치고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베테랑 사진 기자들은 태양이 낮은 고도에서 피사체에 역동적인 조명과 그림자를 만들어 내는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의 시간대를 알고 그 시간에 맞춰 촬영했다. 따라서 필자가 빛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매직 아워의 중요성을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기존에 필자가 일하던 방식으로, 해가 중천에 뜬 시간은 사진이 평범하고 재미없게 찍히는 시간대이므로 깨달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④ 필자의 고민은 뉴스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 줄 방법을 찾는 것으로 이를 위해 빛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있다. 인위적인 특수 장비나 인공조명을 동원하는 것은 필자의 고민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필자가 배운 역량은 태양광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이 주는 최적의 타이밍을 포착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08 ‘그날’은 필자가 베테랑 사진 기자들의 작업 방식을 관찰하며 매직 아워와 빛의 중요성을 깨달은 날이다. 필자는 이날 이후 매직 아워와 태양이 낮은 고도에서 피사체를 비추는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으며, 빛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뉴스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 주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따라서 ‘그날’ 이후 필자가 찍었을 사진은 빛을 이용하여 찍고자 하는 장면을 인상적으로 찍은 사진이 가장 적절하다.

09 (하)에서 브레송이 제시한 ‘결정적 순간’은 화면 속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순간에 셔터를 눌러 그 순간의 정수를 포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였다.

10 (타)에서 매직 아워의 빛이 불과 몇 분 차이로 변화무쌍하게 바뀐다는 점을 근거로 무엇을 찍을지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면 허둥지둥하다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제시하고 있다.

11 (가)에서 지저분한 공사장과 회색 도시의 풍경을 흑백 사진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다채로운 색채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달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서)에서 필자는 진로와 미래에 대해 초조해하는 아들에게 '결정적 순간'은 매일 돌아오는 매직 아워처럼 준비된 사람에게 언제든 다시 찾아오는 기회라고 조언하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한 번의 선택을 놓쳤거나 실패했다고 초조해하기보다, 다시 찾아올 기회를 기다리며 계속 나아가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필자는 오히려 '결정적 순간'을 놓쳤으면 다시 셔터를 누르면 된다'고 말하며, 한 번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③ (서)에서 필자가 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역량 강화보다는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하는 삶의 자세에 대한 위로와 격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④ 필자는 매직 아워가 날마다 돌아오듯 사람의 인생에서 기회는 반복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의 기회를 놓친 것에 얽매어 탄식하기보다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⑤ 필자는 결정적 순간을 단순한 타이밍 포착이나 찰나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전제로 기회는 언제든 다시 찾아온다고 보고 있다.

13 이 글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결정적 순간'은 단순히 우연히 찾아오는 짧은 찰나가 아니라, 피사체와 세계의 리듬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ㄱ), 기하학적으로 완성된 구도 속에서 피사체에 집중하면서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는(ㄴ) 과정 끝에 얻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는 인위적으로 장면을 연출하거나(ㄷ) 사진을 찍기 위한 프레임을 준비하지 않는 태도나 인위적으로 피사체를 유도하는(ㄹ) 자세는 지양해야 한다.

14 이 글에서 ㉠ '별똥별'은 사진작가가 스스로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찰나를 비유하는 것이라면, ㉡ '매직 아워'는 세계의 리듬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준비한 사진작가에게 다시 돌아오는 반복적인 기회를 비유한 것이다. 즉, 필자는 결정적 순간이 운 좋게 떨어지는 별똥별을 기다리는 요행이 아니라, 매일 찾아오는 매직 아워를 포착할 수 있는 준비와 계획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일시적이고 우연한 대상을 비유하므로, 사진작가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 해당한다.

② ㉡은 자연 현상이지만, 필자는 이를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③ 이 글을 참고할 때 ㉢을 포착하는 것은 '셔터 속도'가 아니라 '세계의 리듬에 대한 이해'이다.

④ ㉠은 찰나의 우연한 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영구히 정지시키는 사진작가의 숙련도와는 관련이 없다.

본책 084~087쪽

모단원 평가 문제

01 ③ 02 ⑤ 03 ② 04 사랑은 상대방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05 ③ 06 많이 가졌더라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다. 07 ⑤ 08 ③ 09 ② 10 빛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뉴스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 주는 방법을 고민하게 됨. 11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카메라에 담을 대상에 대해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12 ③

01 이 글은 작품의 관점을 바탕으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 없이 배우려고 노력하며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02 (마)에서 성숙한 사랑은 '주는 것'이며, 사람들은 주는 데서 큰 기쁨을 맛본다고 하였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도 주는 자로 만들며 모두가 생명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보기>의 '부모'는 자신들이 사랑을 나눈 것처럼 자신의 아이도 가진 것을 나눠 다른 사람들과 생명력을 나누게 되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하길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부모'는 아이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있다. 아이가 자신을 '매력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는 것은 (가)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현대인의 모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모'의 행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라)에서 작품은 사랑을 '즐겁고 흥분된 감정'이 아니라 '끊임 없이 연마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보기>의 '부모'는 아이가 나눔을 통해 사랑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하며 자라나길 바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랑을 배우지 않아도 되는 감정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마)에서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라고 하였다. <보기>의 기부는 물질적 풍요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한 정신적 성숙을 지향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마)에 따르면 사랑을 주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생명력을 표현하는 능동적 활동이며, <보기>에서도 ‘몇 배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언급하므로 단순히 자신이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은 성숙한 사랑의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 03 (라)에서 현대인은 사랑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프롬은 사랑은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랑을 이론적으로 습득하고 부단히 연마해야 하는 하나의 기술로 인식한 것은 프롬의 관점이다.

| 오답 풀이 |

- ① (다)에서 현대인은 ‘사랑에 처음 빠지는 순간 경험하는 격정적인 상태’를 사랑으로 착각한다고 하였다.
- ③ (가)에서 현대인은 남들에게 최대한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부자가 되거나 고위직에 올라가는 것, 아름다운 외모를 갖는 것 등의 온갖 노력을 다한다고 하였다.
- ④ (나)에서 현대인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능력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보지 않고, 자신이 사랑할 만한 상대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본다고 하였다.
- ⑤ (나)에서 현대인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지극히 쉬운 일로 생각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도리어 우리를 매료시키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어렵고, 그런 사람을 발견하기만 하면 사랑은 저절로 따라온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 04 (마)에서 필자는 성숙한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동적 감정’이 아닌 ‘능동적 활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성숙한 사랑의 특성을 포함하여 썼다.	☐
(마)에 드러난 필자의 견해를 참고하여 썼다.	☐

- 05 (마), (바)에서 ‘성숙한 사랑’은 자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타인과 결합하는 능동적인 태도라고 하였다. 즉 단순히 상대방에게 맞추거나 감정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력을 타인에게 줌으로써 상대와 나 모두의 생명력을 충만하게 만드는 활동이다. 또한 이는 특정 개인을 넘어 인류와 세계 전체로 확장되는 보편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사랑을 이유로 자신의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는 ‘성숙한 사랑’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 ① (바)의 ‘그 사람의 인간적인 핵심과 관계하는 것’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매력이나 조건이 아닌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하는 태도가 ‘성숙한 사랑’임을 알 수 있다.
- ② (마)를 통해 자신의 지식을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고 상대방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사랑’임을 알 수 있다.

④ (마)의 ‘많이 베푸는 자가 부자다’를 통해 물질이 아닌 정신적인 에너지를 나눔으로써 공동의 생명력을 강화하는 것이 ‘성숙한 사랑’임을 알 수 있다.

⑤ (바)에서 사랑은 ‘한 사람이나 한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대상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류와 자연으로 사랑을 넓히는 것이 ‘성숙한 사랑’임을 알 수 있다.

- 06 (마)에 따르면 많이 가졌더라도 조금이라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자는 가난한 자이고,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베푸는 자라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마)에 제시된 필자의 관점을 참고하여 썼다.	☐
제시된 문장 형태에 맞게 썼다.	☐

- 07 이 글은 필자가 해외 취재 현장에서 베테랑 사진 기자들을 만난 경험을 통해 매직 아워와 빛의 중요성을 깨닫고,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들에게 삶의 교훈을 전달하고 있다.

- 08 (라)의 2번째 문단에서 브레송은 말년의 인터뷰를 통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과정은 본인에게도 수수께끼와 같다고 고백하며, 평생 그 누구에게도 결정적 순간에 관해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고 제시하고 있다.

- 09 이 글의 필자는 [A]를 통해 인생에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인생의 ‘결정적 순간’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매일 뜨고 지듯 반복해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한 번의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초조해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다시 찾아올 다음 기회를 위해 준비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자의 관점을 가장 잘 이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단순히 운에 의해 좌우되니 흐름에 맡기겠다는 태도는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글 전체의 맥락과는 거리가 멀다.

③ 필자는 인생의 때를 놓쳤다고 해서 초조해하지 말라고 아들에게 조언하고 있으므로, 실수를 경계하며 매 순간 긴장하는 태도는 필자의 의도와 거리가 멀다.

④ [A]에서는 기회를 놓치더라도 ‘다시 한번 셔터를 누르면 된다’고 말하며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기회를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보는 태도는 필자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⑤ 필자는 [A]에서 인생에서 기회가 많이 찾아온다고 말하며 기회를 얻는 수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기회가 정해져 있다고 믿으며 운명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태도는 필자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 10 (나)에서 필자는 선배 기자들을 만난 후 매직 아워와 태양이 낮은 고도인 시간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단순히 뉴스를 쫓아 눈에 보이는 대로 서터를 누르기보다는 뉴스를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보여 줄 방법을 고민하며 빛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에는 빛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뉴스를 강렬하게 표현하려는 인식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썼다.	☐
'뉴스 전달', '빛을 효과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 11 (다)에서 필자는 매직 아워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변화하는 빛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무엇을 담을지 미리 생각하는 계획이 필요하며, 적어도 30분 전에는 현장에 도착해 기다리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에 제시된 '계획'과 '준비'를 모두 포함하여 썼다.	☐
제시된 문장 형태에 맞게 한 문장으로 썼다.	☐

- 12 이 글의 필자는 짧은 시간 동안만 나타나는 매직 아워의 빛이 피사체에 비춰질 때 역동적 장면을 사진으로 포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전의 계획과 준비가 중요함을 전달하고 있다. <보기>의 모네는 같은 장소에서 시간과 날씨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흐름을 관찰하며 그 변화의 과정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가)에 따르면 필자가 매직 아워와 낮은 태양 고도를 활용해 입체감을 주었다고 했지만, 모네는 빛에 의해 만물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표현하려 했으므로 형태를 고정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가), (나)에 따르면 필자가 활용한 매직 아워는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의 시간대를 활용하는 자연광이다. 따라서 필자가 인공 조명을 사용하여 뉴스를 강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나), (다)에 따르면 필자는 빛의 효과에 의해 달라지는 색과 입체성을 강조하였고, 모네도 빛이 변하면 풍경 속 만물의 색이 변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 대상이 지닌 고유한 본래의 색보다는 빛에 의해 변화하는 색을 중요하게 여겼으므로, 피사체가 지닌 본래의 색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미리 구도를 설정하고 피사체의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는 것은 브레송의 관점에 해당한다. 모네는 하루 종일 빛을 관찰하며 대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기록하였으므로 필자와 모네의 공통적인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다.

✧ 정서 표현과 자기 성찰의 글

제재 연습하는 마음

본책 090~095쪽

★ 확인 문제

01 ⑤ 02 ③ 03 ② 04 ④ 05 ④ 06 ⑤ 07 ① 08 ④
09 ③ 10 ① 11 ②

- 01 (가)의 '연습하러 저 옷방으로 언제 들어갈 것인가, 아니 오늘 들어가기는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마음 안쪽에서 마주 보고 버틴다고 한 것에서, 필자가 평소 연습을 하는 장소인 옷방으로 쉬이 들어가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또 필자는 (나)에서 '매일 같이 방으로 들어갈 용기를 내기 위해' 자신과 씨름을 한다며 연습 시작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연습에 들어가기 전 탄창을 부리다가 '이제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 싶을 때'가 되어서야 방으로 들어간다고 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이 글에는 판소리 연습에 대한 필자의 정서나 가치관이 드러나지만, 가치관의 변화나 변화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 ②, ③ '처음'이 아닌 '가운데 1'에 해당하는 (라)에 연습의 효과와 연습 효과를 얻기 위해 하는 일 등이 제시되어 있지만, 연습에 관한 전문가들의 견해나 연습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이 글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를 통해 연습을 이루는 필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연습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다.

- 02 (라)에서 연습의 효과는 연습 시간 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발견할 때 얻어진다고 하였으며, 정해진 시간과 분량을 엄격히 지키는 것을 연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 03 판소리 소리꾼인 필자는 자신에게 연습이란 '목의 근육과 판소리 기술을 훈련하는 것일 뿐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키우는 일'이라며, 이러한 판소리 연습이 지금 필자의 모습과 삶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또 (라)에서는 이러한 연습 시간 동안에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술과 신체 컨디션(ㄱ), 특정한 부분에 재미를 느끼는 자신의 흥미(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은 자신의 욕망(ㄷ) 등을 발견하는 순간이 종종 발생한다며 연습의 구체적인 효과를 서술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ㄷ. (라)에서 필자는 연습의 효과를 얻으려면 적어도 한 시간 이상 몸과 정신을 지루하게 연습 속으로 던져야 한다며, 연습을 쓸쓸함과 지루함을 동반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연습을 통해 쓸쓸함과 권태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르. (다)를 통해 목의 근육과 판소리 기술을 훈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에서 필자는 30년간 연습을 반복했다고 하였고, 꾸준한 연습으로 자신의 삶과 지금의 모습을 이루었다고 하였으므로 연습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기 위해 연습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4 (나)에서 필자는 매일의 연습을 시작하기 위해 연습 장소인 옷방에 들어갈 용기를 내려 애쓴다고 말한다. 또 연습에 들어가 기 직전에는 연습과 관련이 없는 다른 일거리를 찾아 능청을 떠한다고 이야기한다. ㉠은 그 예를 서술한 것으로, 필자는 연습을 외면하기 위해 이와 같이 행동하며 탄정을 피우고, 연습을 시작하는 것을 미루려는 것이다.

05 (사)에서 필자는 연습이 잘 되지 않는 날에는 이유 없이 마음이 산란하여 현재의 연습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런 날에는 배와 목 근육을 움직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연습 분량만 채우고 금방 연습을 끝낸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사)에서 마음이 산란하고 연습이 안 되는 날은 분량만 채우고 후딱 연습을 마친다고 하였을 뿐, 연습에 매진하여 산란한 마음을 극복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②, ⑤ (마)에서 기술 향상이 판소리에 대한 태도와 철학, 창작과 실험을 하는 바탕이 된다고 하였고, (차)에서 연습으로 필자가 무대 위에서 기죽지 않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무대 위 공연을 위해 꾸준히 연습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바)에서 연습을 통해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였다.

06 ㉠은 반복과 발견 속에서 얻어지는 기술 향상과 신체 훈련으로 연습이 다져 주는 기술적 토대이고, ㉡은 이 능력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태도나 철학, 창작과 실험으로서 ㉠을 기반으로 확장해 나가는 활동이다.

| 오답 풀이 |

① (마)에서 필자는 ㉠이 반복과 발견 속에서 얻어지며, ㉡은 ㉠ 위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였다. 또 좋은 기술이 생기는 것은 긴 여정의 한 출발 지점이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과 ㉡은 모두 단기간이 아니라 오랜 연습을 통해 얻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② ㉡은 판소리에 대한 태도나 철학, 창작과 실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가리킨다고도 볼 수 있으나, ㉠은 연습을 통해 얻는 기술 향상과 신체 훈련으로 외부의 인정과는 관련이 없다. 또 이 글에서 필자는 연습을 외부로부터 받는 인정과 관련지어 이야기하고 있지도 않다.

③ ㉠과 ㉡은 모두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는 성취라고 볼 수 있다.

④ 신체 훈련과 정신 수양의 시간은 연습을 가리키며, ㉠은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기술 향상과 신체 훈련이다. 또 ㉡은 명성이 아니라 ㉠을 기반으로 형성할 수 있는 태도나 철학 등을 의미한다.

07 필자는 (자)에서 화가 나거나 마음이 어지럽거나 무력할 때 연습으로 도망을 친다고 하였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 가장 어려운 대목을 골라 고함 대신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하다 말고 목 놓아 울기도 하지만 자신을 추스르고 정리하는 시간을 주는 고마운 연습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습을 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 마음을 정리한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③ 필자가 연습을 사용하는 상황은 화가 나거나 마음이 어지러운 때로, 재미나 창작 욕구 등을 충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④ 연습을 핑계 삼아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연습을 통해 자신을 추스르는 것이다.

⑤ 필자는 개인적인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연습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의 확장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08 ㉠은 연습이 잘되는 날에는 신체의 컨디션도 좋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실제 신체 상태가 연습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잘 되는 날의 심리적 만족감을 표현한 것이다.

09 (타)에서 필자는 지인의 신작 공연을 관람하던 중 조용하고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에서 한 관객이 졸다가 휴대 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으나, 지인이 당황하지 않고 공연을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돌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지인의 모습에서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없이 반복하였을 연습을 상상하면서 오랜 연습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10 필자는 ‘끝’ 부분에서 미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연습을 멈추지 않는 태도를 지니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 달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잘 맞이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내며 변화를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1 ㉠은 지인의 공연이 한순간이 아니라 오랜 반복 연습의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필자의 생각을 드러낸다. 필자는 (카)에서 그가 연습을 반복하고, 연습이 잘 되지 않는 날에는 ‘음절과 혀와 입술의 움직임만이라도’ 연습하였으리라 짐작하면서 그의 고된 연습 과정을 상상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필자는 지인의 신작 공연에서 한 관객에 의해 일어난 돌발 상황과 이에 대처하는 지인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인이 공연 기획 과정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③, ④ 필자는 지인이 공연을 위해 연습한 노력과, 무대 위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뿐 그의 예술적 소양이나 정체성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⑤ 필자는 지인이 연습을 반복하는 과정과 그 과정의 고단함에 대해 상상하고 있을 뿐 지인이 자신감과 용기를 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다.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096~097쪽

01 ③ 02 ④ 03 ② 04 ③ 05 무대 위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 연습을 하며, 연습은 이러한 상황에서 튼튼한 방패가 되어 준다.

06 ④

01 이 글에는 필자가 지인의 공연을 보러 가서 겪은 일화가 서술되어 있을 뿐 연습에 대한 관점이 서로 대비되는 성격의 일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은 (가)에서, ②는 (나)에서, ④는 글 전체에서, ⑤는 (라)에서 파악할 수 있다.

02 (다)에서 필자는 모든 무대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지만, 무대 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대비하기 위해 연습을 한다고 말한다. 이는 회의적인 태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연습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03 (가)에서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기술 향상과 신체 훈련을 기반으로, 판소리에 대한 태도나 철학, 창작과 실험을 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을 통해 연습이 태도와 철학의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ㄱ) 필자의 가치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연습의 효과는 연습 시간 동안 나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발견할 때 얻어진다고(ㄴ) 하였다.

| 오답 풀이 |

ㄴ. (라)에서 후에 신체적 한계에 이르더라도 이를 넘어서 다른 힘이 찾아온다고 하였으므로 한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ㄷ. (가)에서 연습으로 신체와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측면까지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04 (다)에서 필자는 무대 위에서 마음속의 진땀이 날 때, 연습의 준비량에 따라 아무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하고, 무너지기 직전까지 다녀오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연습량이 많을수록 마음속의 진땀이 날 때 잘 대처할 수 있음을 이야기한 것이다. 마음속의 진땀은 외부의 자극으로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연습량이 충분하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마음속의 진땀은 '주로 바깥의 자극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마음속의 진땀은 '보통 1초 안에 벌어지는 무대 위 마음속 사건'이라고 하였다.

④ (다)에서 준비량과 종류에 따라 마음속의 진땀에 아무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하고, 아슬아슬하게 무너지기 직전까지 다녀온다고 하였다.

⑤ 필자는 무대 위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음속에 진땀이 나는 순간을 대비하여 연습한다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마음속의 진땀'은 무대 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느끼는 당황스러움, 당혹감과 같은 심리임을 유추할 수 있다.

05 (다)를 통해 무대 위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마음속에 진땀이 나는 순간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 무너져서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기 위해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러한 연습의 역할을 '튼튼한 방패'가 되어 준다고 표현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연습이 필요한 상황과 연습의 역할을 썼다.	☐
'튼튼한 방패'라는 비유적 표현을 포함하여 썼다.	☐

06 [A]에서 필자는 지인의 신작 공연을 관람하던 중 조용하고 긴장감이 도는 분위기에서 한 관객이 졸다가 휴대 전화를 떨어뜨리는 상황이 일어나자, 지인이 무대 위에서 얼마나 당황하였을지 그 마음에 공감하면서도 의연하게 대처하는 지인의 모습을 보고 반가움을 느껴 송구한 마음이 들었다고 하였다.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098~103쪽

01 ① 02 ③ 03 20세기 후반 결혼 제도가 변화하면서 '낭만적인 사랑'의 관념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04 ② 05 ⑤ 06 ① 07 ③ 08 ④ 09 사진은 피사체와 호흡하는 것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이다. 10 ② 11 ③ 12 ③ 13 ① 14 ④ 15 ② 16 ⑤

01 프롬은 (다)에서 현대인이 사랑에 처음 빠지는 순간 경험하는 걱정적인 상태와 사랑이 지속되는 상태를 혼동한다고 설명하고 <보기>의 A 또한 연인과의 관계에서 처음의 설렘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면 그 관계를 끊고 새로운 상대를 찾는다고 하였다.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익혀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하였다. A는 사랑을 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에만 노력하여 상대를 바꾸고 있으므로 먼저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 상대를 사랑하는 일을 실천해야 한다고 조언할 수 있다.

02 (다)에 따르면 프롬은 사랑에 대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사랑의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성숙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배워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 오답 풀이 |

① (가)~(다)에서 프롬은 현대인이 사랑을 받기 위해 자신을 가꾸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지만 하면 사랑을 하는 것은 쉽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으나 사랑을 주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을 비교하지는 않았다.

② (다)의 2번째 문단에서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 배우고 실습해야 한다고 하였다.

④ (다)에 따르면 프롬은 사랑에 지식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이것이 사랑이 직관과 감성에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논리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은 아니다.

⑤ (다)에서 프롬은 현대인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에 경험하는 격정적 상태와 사랑이 지속되는 상태를 혼동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황홀감과 설렘이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서로에게 실망하고 지루해한다고 하였다.

03 (나)에 따르면 19세기까지 결혼이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 사랑은 결혼 후 가꾸는 것으로 여겨졌으나, 20세기 후반부터 연인이 서로 사랑에 빠져서 결혼해야 한다는 낭만적인 사랑의 관념이 지배하게 되었다. 또 이러한 결혼 제도의 변화로 인해 현대인은 사랑을 가꾸는 것보다 사랑에 빠질 상대를 찾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

평가 기준	확인 ☒
20세기 후반 결혼 제도의 변화를 포함하여 썼다.	☐
'낭만적인 사랑의 관념이 지배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04 스티븐버그는 성숙한 사랑의 요소로 대상과 교감하는 친밀감과, 사랑을 지속하는 책임감을 포함한 헌신을 제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스티븐버그가 대상과의 교감과 대상에 대한 책임을 긴밀한 관계로 보지 않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5 (마)에서 성숙한 사랑은 한 사람, 하나의 대상에 대한 태도가 아닌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이나 특정한 성격이라고 하였다. 또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인류와 삶을 대표하는 자로서 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06 이 글의 필자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예술 담론에 대한 사진 작가인 브레송의 이론을 서술하면서 '결정적 순간'에 대한 일반적인 작가들의 통념을 서술하였을 뿐 사진 예술에 대한 통념을 나열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가)에서 브레송의 작품인 「생 라자르 역 뒤에서」를 예로 들어 사진 작품에 제시된 각 요소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③ 필자는 사진을 통해 성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에서 인생의 타이밍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다시 찾아오므로 포기하거나 초조해하지 말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④ (나)의 2번째 문단에서 필자는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정적 순간은, 내가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내가 이해하는 세상 속에 결정적 순간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이 이해한 '결정적 순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⑤ (나)에서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라는 사진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다)에서 브레송의 말년 인터뷰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진에 대한 필자의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다.

07 (다)에 기하학적으로 완성된 사진의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피사체에 집중하며 기다리다가 셔터를 누르면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다고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기하학적 구도와 관련하여 결정적 순간의 포착이 이루어지는 원리에 대해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라)에서 브레송은 사진을 잘못 찍었을 때, 즉 결정적 순간을 놓쳤을 때는 그림을 잘못 그렸을 때 지우개로 스케치를 지우고 다시 그리듯 사진을 다시 찍으면 된다고 하였다.

② (다)에서 브레송이 결정적 순간을 사진으로 어떻게 포착하는지 모르겠으며 수수께끼같다고 고백했다고 하였다.

④ (나)를 통해 수많은 사진가가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을 한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의 기회처럼 여기고, 셔터를 누를 타이밍을 잘 가능하여 최고의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에서 필자는 결정적 순간을 놓쳤어도 다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듯이 인생의 타이밍 역시 그러하다는 점을 들어 조언을 하고 있다.

08 (나)에 따르면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장의 사진이 도출되는 때에 카메라 셔터를 눌러 기록한 순간이며, 자신이 아는 만큼 세상이 보이고 자신이 이해하는 세상 속에 있다고 하였다. 또 (라)에서 필자는 우리 주변에는 숱한 결정적 순간이 존재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 즉 세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포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 따르면 결정적 순간은 카메라 셔터를 연속하여 누를 때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진이 도출되는 때에 카메라 셔터를 눌러 기록한 순간이다.

② (라)에서 순간의 타이밍을 놓쳤다고 할지라도 다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이 글에 따르면 결정적 순간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착할 수 있는 순간이다. 또 (나)에서 반세기가 넘게 수많은 사진가가 부단히 셔터를 눌렀음에도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데 실패하고, 타이밍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놓친 순간을 아까워한다고 한 부분을 통해, 사진을 찍기 위해 셔터를 누르는 기술과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과는 큰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브레송의 작품을 설명하며 순간적인 타이밍을 포착하여 일상적 장면을 아름다운 예술로 바꿀 수 있다고 하였다. 최고의 장면을 예술적으로 포착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 장면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 09 필자는 (나)에서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진을 대하는 브레송의 태도를 피사체와 호흡하는 행위이면서 세상의 리듬을 이해하고 행위라고 설명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사진이 피사체와 호흡하는 것이라는 점을 밝혀 썼다.	☐
(나)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진은~’으로 시작하는 문장 형태로 썼다.	☐

- 10 (가)에서 필자는 브레송의 「생 라자르 역 뒤에서」에 대해, 사진 속에서 웅덩이 위를 점프하여 지나가는 남성의 포즈가 화면 뒤쪽에 보이는 서커스단의 포스터 속 댄서의 모습과 대비를 이룬다고 하였을 뿐, 표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 11 ‘부단히(不斷-)’는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이.’라는 의미이다. ‘단순하고 손쉽게.’는 ‘간단히(簡單-)’의 의미이다.

- 12 (가)의 필자는 매직 아워 속 빛과 색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그 날의 매직 아워가 언제인지 알아보고, 최소한 30분 전에는 그 장소에 기다려야 한다며 준비하고 계획을 짜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였다. (나)의 필자는 연습을 반복하며 자신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발견함으로써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기술, 신체 컨디션, 흥미뿐만 아니라 강점과 약점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 이렇게 발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습 방법을 찾아 실천함으로써 성과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가)와 (나)를 읽고 독자는 자신이 얻고자 하는 성과와 미래의 모습은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하는 태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 13 (가)의 필자는 피사체에 역동적인 조명과 그림자를 선사하는 매직 아워를 활용하여 다채로운 사진을 찍게 되었다. <보기>의 모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빛이 풍경 속 만물의 색과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닫고 이를 자신의 작품에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가)의 필자와 <보기>의 모네는 모두 빛의 변화가 대상에 미치는 효과를 작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 14 (나)의 필자는 화가 나거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연습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습을 이용하여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였다.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필자는 이런 날 일부러 가장 어려운 대목이나 힘이 많이 필요한 대목을 골라 연습하고, 연습 중에 목 놓아 울기도 하며 마음을 추스르고 정리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③ (나)의 4번째 문단에서 필자는 연습을 통해 ‘매일 전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매일의 연습이 늘 잘되고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였으며, 또 연습이 잘 되지 않는 날에는 배와 목 근육을 움직이는 것만을 목표 삼아 분량만 채우고 연습을 빨리 끝낸다고 이야기하였다.

② (나)의 3번째 문단에서 연습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그것들이 발견되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습 방법을 찾았다고 하였다.

⑤ (나)의 5번째 문단에서 연습에 탄력이 붙는 날에는 옷방의 옷들을 다양한 관점으로 인식하고 실제 공연처럼 최선을 다해 이야기하며 기술의 완성도에 예민하게 더 힘을 쓴다고 하였다.

- 15 (가)에서 필자는 베테랑 사진 기자들이 일하는 방식을 보며 매직 아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매직 아워의 좋은 빛을 포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태양이 낮은 고도에서 피사체에 역동적인 조명과 그림자를 선사하는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의 시간대를 활용함으로써 필자가 원하는 사진을 찍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9시에 일을 시작해서 오후 4시면 마감을 끝내고 6시면 집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방식으로 일한 것은 필자가 매직 아워의 중요성을 인지하기 전이다. 또 (가)에서 필자가 일정을 잘 지키게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③ 사진 속 빛에 눈을 뜨면서 매직 아워가 언제인지 알아보고 적어도 30분 전에 촬영할 장소에 가서 기다리는 등 준비와 계획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현장을 즉흥적으로 찾았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④ 필자는 단순히 뉴스를 쫓아 눈에 보이는 대로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보다 자신이 보여 주고자 하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므로, 촬영 속도를 우선시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⑤ 매직 아워는 태양이 낮은 고도에 위치하여 피사체에 조명과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시간대이므로, 필자가 사진에 매직 아워를 활용하게 된 후의 변화로 태양이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하는 시간대에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16 ㉞는 필자가 연습에 집중하지 못하여 시간을 허비하는 모습이 아니라, 화가 나거나 마음이 어지러운 날 연습을 활용하여 마음을 추스르는 모습이다.

4. 정보를 활용하다

01 과학·기술 분야의 글

제재 1 먼 우주로 떠나기 위한 가장 저렴한 방법

본책 108~113쪽

* 확인 문제

01 ④ 02 ⑤ 03 ④ 04 ④ 05 ③ 06 ③ 07 ④ 08 ⑤
09 ③ 10 ① 11 ①

01 이 글에서는 우주 탐사선이 연료를 아끼며 지구를 벗어나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자나 교수와 같은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이 원리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우주로 나간 탐사선이 지구를 맴돌다가 지구 중력권을 떠나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② (다)와 (라)에서 자전거 경기장과 자전거의 사례를 들며, 우주 탐사선이 지구를 맴돌다 떠나면 적은 연료로 지구에서 멀어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③ (나)에서 우주 탐사선이 지구를 맴돌다 떠나는 모습이 카우보이가 밧줄을 몇 바퀴 돌리다 던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⑤ (가)에서 지구를 떠난 탐사선이 목적지를 향해 일직선으로 갈 것이라는 통념과 실재가 다를 것을 밝히고 있다.

02 (나)에 따르면 우주 탐사선은 지구를 벗어날 때 지구 겉을 맴돌다가 속도를 올려 지구를 떠난다. (라)에서 '지구를 맴돌며 조금씩 속도를 높이면 시간은 더 걸리지만 훨씬 적은 연료로 지구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우주 탐사선이 지구를 맴돌면서 지구를 벗어나는 까닭은 지구를 벗어나는 데 사용하는 연료를 줄이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03 이 글에서는 탐사선이 지구 주변을 맴돌며 속도를 높이고, 중력의 도움을 이용해 최종적으로 속도를 얻어 중력권을 벗어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탐사선은 중력권의 바깥 부분에서 속도가 가장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다)에서 트랙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이 된다고 하였고, 천체의 중력이 주변의 작은 물체를 맴돌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자전거와 탐사선은 모두 중심에서 멀어지기 위해 직선 이동 경로가 아니라 중심 주위를 맴도는 경로를 선택한다.

③ (라)에서 자전거가 트랙을 따라 돌면서 속도를 높인다고 하였고, (나)에서 탐사선도 지구를 맴돌며 속도를 높인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⑤ (라)에서 경사를 수직으로 올라가면 힘이 많이 든다고 하였고, 중력을 거슬러 지구를 수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04 이 글은 과학적 원리를 객관적으로 다룬 설명문이다.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는 글에 담긴 과학적 지식과 정보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지, 글에 담긴 개념, 이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글에 사용된 전개 방식이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지 살펴야 한다. 또한 과학 분야의 글에는 과학 현상에 대한 필자의 주관적 추론이 드러나기도 하므로, 이를 객관적 사실과 구분하며 읽어야 한다. 아울러 이 글은 객관적인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삶에 대한 필자의 가치관을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5 (바)에서 우주 공간에서는 디디고 나아갈 지면이 없어 모든 방향 전환에 연료가 필요하고, 가스를 내뿜는 방향과 세기를 조금만 잘못 계산해도 예정된 궤도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까다롭다고 하였다.

06 (바)에 따르면 우주 탐사선은 행성에 끌려갔다가 다시 그 중력권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로가 틀어지며 이를 통해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우주 탐사선이 플라이바이를 하여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행성의 중력 때문이다. 행성은 궤도를 따라 움직이든 멈춰 서 있는 중력권을 형성하므로, 행성이 멈춰 있는 경우에도 우주 탐사선은 플라이바이를 통해 진행 방향을 바꿀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07 (자)에 따르면 플라이바이를 '중력 도움'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플라이바이가 천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우주 탐사선의 속도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08 (차)~(카)에 따르면 로제타 탐사선은 2005년 지구, 2007년 화성, 같은 해 다시 지구에서 플라이바이를 했으며 이후 지구와의 마지막 플라이바이를 거쳐 2009년 11월 지구를 완전히 떠났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혜성 67P에 2014년 11월 11일에 착륙하였다. 따라서 화성에서 마지막으로 플라이바이를 한 후 혜성 67P에 접근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9 (차)~(카)에 따르면 로제타 탐사선은 지구, 화성, 소행성 스테인스를 플라이바이 환승역으로 이용했다. 태양은 행성들이 그 주위를 공전하는 중심 천체일 뿐 환승역으로 이용되지 않았

고, 혜성 67P는 로제타 탐사선이 플라이바이를 한 천체가 아니라 로제타 탐사선의 최종 목적지이다.

10 (타)에서 '우주의 그 어느 곳이라도 인류가 직접 그곳을 방문하기 전에 항상 로봇 탐사선이 먼저 방문한다.'라고 하였다. 이를 고려할 때 로봇 탐사선이 인류의 선배가 되는 셈이라고 표현한 것은 로봇 탐사선이 인류가 우주 탐사를 할 곳을 미리 살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11 (파)에서 필자는 플라이바이 항법을 통해 우주 곳곳에 나가 있는 우주 탐사선의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탐사선들이 인류의 탐험 정신과 태양계 행성들이 함께 만들어 낸 인류 지평의 증거물이자, 우주 순수비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제2 2 워드투백, 언어를 숫자로 바꾸다

본책 116~121쪽

◆ 확인 문제

01 ① 02 ② 03 ③ 04 ③ 05 ④ 06 ⑤ 07 ① 08 ①
09 ⑤

01 (가)에서 필자는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대답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유사한 단어를 이해하고 문장 유사도를 판별할까요?' 등의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글의 화제를 제시하며 독자의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02 (마)에 따르면 워드투백은 기술적으로 신경망 구조를 채택하기는 했으나 지금의 딥 러닝보다는 매우 얇은 구조에 불과했다고 하였다. 따라서 워드투백이 불완전한 신경망 구조 대신 딥 러닝 기술을 채택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다)에 제시된 표를 참고할 때, '동근 정도'에서 태양의 가중치는 0.99, 캐러멜의 가중치는 0.02, 호박의 가중치는 0.62이다. 따라서 태양(0.99)과 호박(0.62)의 차이보다 태양(0.99)과 캐러멜(0.02)의 차이가 더 크므로, 동근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태양은 캐러멜보다 호박과 더 유사하다.

| 오답 풀이 |

① (라)의 벡터 공간 이미지에서 '단맛'의 축을 보면 태양은 캐러멜보다 호박과 가까이에 있다. (다)의 표에서도 단맛은 태양 0.01, 호박 0.23, 캐러멜 0.92이므로, 단맛을 기준으로 하면 태양은 캐러멜보다 호박과 더 유사하다.

② (라)의 벡터 공간 이미지에서 '크기'의 축을 보면 캐러멜은 태양보다 호박과 가까이에 있다. (다)의 표에서도 크기는 캐러멜 0.06, 호박 0.29, 태양 0.99이므로, 크기를 기준으로 하면 캐러멜은 태양보다 호박과 더 유사하다.

④ (다)의 표에서 '크기'의 가중치는 태양 0.99, 호박 0.29, 캐러멜 0.06이다. 따라서 크기에 가장 큰 가중치가 주어진 것은 캐러멜이 아니라 태양이다.

⑤ (다)의 표에서 '동근 정도'의 가중치는 태양 0.99, 호박 0.62, 캐러멜 0.02이다. 따라서 동근 정도에 가장 큰 가중치가 주어진 것은 호박이 아니라 태양이다.

04 (바)에서는 워드투백이 여러 문장에서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학습하여 단어 간 관계를 모델링한다고 설명한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학습하는지는 알 수 없다.

05 (바)~(사)에 따르면 워드투백은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가까운 숫자로 표현할 수 있고, 벡터로 표현한 단어 간의 연산을 통해 단어 간의 관계를 정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06 워드투백에서 ㉠(단어 간 유사도)은 벡터 공간 위 두 점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커진다. 벡터 공간 위 두 점 사이의 유클리드 거리, 즉 직선거리가 가까울수록 더 유사한 단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워드투백에서 단어 간 유사도는 단어의 의미와 관련된 것이며, 단어의 음절 수와는 관련이 없다.

② (자)에서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면 유클리드 거리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클리드 거리로 계산한 단어 간 유사도는 벡터 공간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두 단어의 벡터값 차이가 클수록 유클리드 거리가 멀어지므로 유사도 수치는 작아진다.

④ 단어 간 유사도는 이미 벡터 공간 위에 표현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파악하는 것이므로 단어 간 유사도가 벡터 공간 위 한 점의 벡터값을 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07 (카)에 따르면 코사인 거리는 1에서 코사인 유사도를 뺀 값으로 정의된다. ①은 코사인 유사도에서 1을 뺀 값이라고 하여 순서가 반대로 제시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타)~(파)를 참고할 때, 챗봇은 고객이 입력한 질문 문장을 벡터 공간 위의 점으로 치환한 뒤 에프에이큐(EFAQ) 중 그 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질문을 찾는다. 따라서 ③에는 '가까운', ⑥에는 '유사도'가 들어가야 한다.

09 (하)에서 필자는 챗봇이 현재 완벽한 기술은 아니지만 개인과 기업에게 유용한 서비스가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검색 엔진이 하는 일과 챗봇이 비슷하다고 했을 뿐, 챗봇이 검색 엔진을 대체한다고 하지는 않았다.

01 ③ 02 ④ 03 ㉠: 트랙의 가운데 방향으로 구심력이 작용함. ㉠: 지구를 맴돌며 조금씩 속도를 높여 벗어나. 04 ⑤ 05 ④ 06 ② 07 ② 08 (가)에서 워드투백의 뜻을 명확히 규정하는 '정의'가, (나)~(다)에서 구체적인 단어를 들어 워드투백의 수치화 원리를 설명하는 '예시'가, (마)~(사)에서 유클리드 거리와 코사인 거리의 차이점을 밝히는 '대조'가 사용되었다. 09 ④ 10 ⑤ 11 ④

01 이 글은 우주 탐사선이 지구를 벗어나는 원리와 플라이바이 방법을 설명하는 과학 분야의 글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를 밝히고 이를 보완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 ① (마)에서 플라이바이의 개념을 정의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나)에서 자전거 경기장 트랙이라는 친숙한 사례를 들어 탐사선이 지구 중력권을 벗어나는 과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 ④ (바)에서 '만약 행성들이 한곳에 가만히 멈춰 있다면 어떨까?'라고 하며 실제 상황과 대조되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며 플라이바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⑤ (나)에서 '자전거가 안쪽을 향해 기울어진 트랙의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설명할 내용에 대한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02 (나)에 따르면 우주 탐사선이 지구 중력권을 벗어날 때 지구를 맴도는 이유는 이 방법을 통해 훨씬 적은 연료로 지구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더 걸리지만'이라고 하였으므로, 시간을 절약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3 (가)와 (나)를 참고할 때 자전거에 작용하는 힘(㉠)은 트랙 가운데로 향하는 구심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탐사선이 중력을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지구를 맴돌며 조금씩 속도를 높여 벗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에 들어갈 말로 '구심력'과 '트랙 중심(가운데) 방향'을 포함하여 썼다.	☐
㉡에 들어갈 말로 '지구를 맴돈다'는 내용과 '속도를 높인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썼다.	☐

04 (바)~(사)에 따르면 ㉠과 같은 상황에서 우주 탐사선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 궤를 지나며 행성의 중력권에 들어가면 행성이 공전하는 만큼의 속도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반면 ㉡에서는 행성이 멈춰 있기 때문에 우주 탐사선이 행성의 중

력에 이끌린다고 하더라도 추가 속도를 얻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

- ① (바)~(사)에 따르면 ㉠에서 우주 탐사선은 행성의 중력권을 벗어난 뒤 원래 속도로 돌아오며, ㉡에서는 행성이 움직이는 만큼의 속도를 추가로 얻게 된다.
- ② ㉠과 ㉡ 모두 우주 탐사선은 행성의 중력 웅덩이, 즉 중력권 안으로 들어간다.
- ③ (바)에 따르면 ㉠에서 우주 탐사선은 중력 웅덩이 안으로 굴러 들어갈 때 속도를 얻고, 밖으로 나올 때 느려져서 결국 원래 속도로 돌아온다. 진입 전보다 느려지는 것이 아니다.
- ④ (라)~(마)에 따르면 우주 탐사선은 행성의 중력에 끌려갔다 다시 그 중력권을 아슬아슬하게 벗어나는 과정에서 경로가 틀어지는데, 이 방법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5 이 글은 우주 탐사선이 지구를 떠나는 방법과 플라이바이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시각 자료와 같은 보조 자료를 추가하면 독자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지윤의 평가는 적절하다. (가)~(사)에서 플라이바이의 원리를 설명한 뒤 (아)에서 우주 탐사선의 의의를 밝히고 있으므로, 과학적 원리를 가진 지식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현하의 평가는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 민주: 필자는 '중력 웅덩이', '환승역'과 같이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과학적 원리를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훼손하지 않으므로 정보의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예성: 이 글은 필자의 주장을 드러내는 글이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다. 따라서 위험성이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아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06 워드투백은 단어가 갖는 의미에서 각각의 특징을 추출해 수치화하여 벡터로 표현하고, 벡터 간의 거리나 각도를 통해 유사도를 판단한다. 특히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각도가 작을수록 유사도가 높고 각도가 클수록 유사도가 낮다.

07 <보기>에서 캐러멜은 단맛 0.92, 크기 0.06, 둥근 정도 0.02로 가중치가 표현되어 있다. 가장 가중치가 부여된 것은 단맛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다)에서 '호박은 캐러멜보다는 태양과 더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태양은 '크기'(0.99)와 '둥근 정도'(0.99)에 가장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으므로, '크기'와 '둥근 정도'는 태양의 의미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④ 호박은 '단맛'에는 0.23, '둥근 정도'에는 0.62의 가중치를 부

여받았으므로 호박은 ‘단맛’보다 ‘둥근 정도’라는 특징과 더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㉔ ‘단맛’과 관련하여 캐러멜은 0.92, 태양은 0.01, 호박은 0.23의 가중치를 부여받았다. 캐러멜의 가중치가 태양보다 호박과 더 가까우므로 태양보다 호박과 더 유사한 관계에 있다.

- 08 (가)에서 필자는 글의 중심 화제인 ‘워드투백’의 뜻을 정의하고 있다. (나)~(다)에서는 캐러멜, 태양, 호박이라는 구체적인 단어의 예시를 든 뒤, 이 단어들의 의미적 특성을 분석해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벡터 공간 위에 표현하고 있다. 즉 예시를 사용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사)에서는 유클리드 거리와 코사인 거리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코사인 거리를 활용하는 것의 이점을 부각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에 사용된 내용 전개 방식을 두 가지 이상 썼다.	☐
각 내용 전개 방식이 글의 어느 부분에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완결된 문장의 형식으로 썼다.	☐

- 09 (라)와 (바)에 따르면 ㉑(유클리드 거리)은 두 벡터 사이의 직선거리를, ㉒(코사인 거리)은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 오답 풀이 |

㉑ (사)에 따르면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는 것은 ㉒이다. ㉑은 코사인 법칙을 활용하지 않는다.

㉒ ㉑과 ㉒ 모두 그 값이 작을수록 단어 간 유사도가 높다고 판단한다.

㉓ ㉑은 벡터 간 직선거리를 이용한 측정 방식이고, ㉒은 벡터 간 각도를 이용한 측정 방식이다. 두 방법 모두 단어 간 의미 유사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㉔ (마)에 따르면 ㉑은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질 경우 벡터 사이의 거리가 달라져 멀고 가까움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 이에 (바)~(사)에서 필자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㉒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10 ㉔은 사용자가 어떤 영화를 비슷한 맥락에서 소비했는지의 패턴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와 유사한 취향의 영화(또는 유사한 사용자 집단이 선호한 영화)를 추천하는 기술이다. 이는 워드투백이 여러 문장에서 단어가 함께 쓰이는 양상을 학습하여 단어의 의미를 수치로 표현하고, 그 표현이 가까운 단어를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원리와 가장 가깝다.

- 11 이 글은 과학·기술 분야의 개념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글을 쓸 때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필자의 주관적 경험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보 전달하는 글 쓰기

본책 128~129쪽

모단원 평가 문제

01 ㉔ 02 ㉑ 03 ㉒ 04 ㉑ 05 ㉓ 06 ㉒

- 01 (가)에서 ‘독도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써야겠다.’라고 하였으므로 글의 주제가 ‘독도의 생태계 변화’임을 알 수 있다(㉔). 그리고 (가)에서 ‘우리 반에서 운영하는 누리 소통망에 글을 올리면’이라고 하였으므로 ‘학급 누리 소통망’을 매체로 활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㉒).

| 오답 풀이 |

㉑. (가)에서 ‘친구들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 수 있도록’이라고 하였으므로 글쓰기 목적은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알리기’임을 알 수 있다.

㉒. (가)에서 ‘사진전을 보지 않은 우리 반 친구들’이라고 하였으므로 예상 독자는 ‘학급 친구들’임을 알 수 있다.

- 02 [자료 4]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역사적 기록을 담은 교과서 자료로, 공신력은 있으나 ‘독도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보 전달’이라는 글쓰기의 목적 및 주제와 맞지 않다.

- 03 (가)로 보아 (다)의 필자는 독도의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쓰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의 개요를 보면 ‘가운데-1’에서 독도의 다양한 생태계를 소개하고, ‘가운데-2’에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다루는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㉒은 독도 생태계의 아름다움과 그에 찾아온 변화를 모두 아우르므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 04 (다)의 ‘가운데-2’에서는 ‘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에 이어 ‘나. 수온 상승으로 변화하고 있는 독도 생태계의 모습을 짚고 있다. 이는 문제 상황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구조’가 아니라,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내용을 조직한 ‘원인-결과 구조’에 해당한다.

- 05 ㉔의 ‘바다가 사막처럼 변하기 때문에’는 갯녹음 현상의 결과를 독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비유적 표현이며, ‘바다의 사막화’라는 용어의 유래를 설명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도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적 표현은 활용할 수 있다.

- 06 (라)에서 ‘한국 해양 과학 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동해의 봄철 평균 수온이 꽤 뜨거워졌다고 한다.’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수치 없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다. 동해의 봄철 평균 해면 수온 변화 추이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추가하면 이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어 정보의 신뢰성과 독자의 이해를 함께 높일 수 있다.

01 ② 02 ① 03 ② 04 ⑤ 05 순수비가 삼국 시대 왕들이 영토 확장의 증거로 남긴 비석이듯, 플라이바이 항법으로 태양계 곳곳에 도달한 탐사선도 인류 지평의 확장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06 ④ 07 ③ 08 ④ 09 ② 10 ⑤ 11 ⑤ 12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각도가 클수록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1에서 코사인 유사도를 빼서 각도가 클수록(거리가 멀어질수록) 값이 커지게 하는 것이다. 13 ② 14 ① 15 ② 16 (나)를 바탕으로 쓸 글에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는 α 과 β 이다. α 은 자료의 생산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고등학생이므로 정보의 신뢰성이 부족하다. β 은 독도의 영토 주권에 관한 내용으로, 글의 주제인 '독도의 생태계 변화'와 관련이 없어 작문 맥락에 맞지 않다. 17 ④

01 이 글은 (다)에서 플라이바이 항법의 개념을 '천체 결을 지나가면서 그 중력을 빌려 탐사선의 방향을 꺾고 속도를 얻는 방법'으로 정의한 뒤, (라)~(마)에서 중력 웅덩이와 행성의 공전을 통해 추가 속도를 얻는 원리를 설명하고, (바)~(사)에서 로제타 탐사선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라)~(마)에서 행성이 멈춰 있는 상황과 공전하는 상황을 대조하고 있지만, 이는 플라이바이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 항법의 한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 ③, ④ 이 글은 플라이바이 항법의 원리와 사례를 설명하고 있을 뿐, 플라이바이 항법의 발전 과정과 탐사선의 설계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이 글은 탐사선의 구조를 분석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02 (가)를 통해 탐사선이 여러 행성을 지나가며 그 행성의 중력을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바)에 제시된 로제타 사례에서도 지구·화성·소행성 등 여러 천체를 반복적으로 활용한 과정이 제시된다. 한 행성의 중력을 한 번만 이용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03 첫 번째 지구 플라이바이(⑤) 이후 탐사선은 곧바로 소행성대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타원 궤도를 그리며 화성 궤도까지 진입하여 화성 플라이바이(③)를 먼저 수행하였다. 소행성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것은 두 번째 지구 플라이바이 이후이다.

04 이 글에 따르면 우주 탐사선이 플라이바이를 통해 추가 속도를 얻을 수 있는 결정적인 까닭은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행성이 멈춰 있다면 중력에 끌려 들어갈 때 얻은 속도를 빠져나올 때 그대로 잃어 원래 속도로 돌아온다. 즉 중력이 탐사선을 끌어당겼다 놓아

주는 것 자체로는 추가 속도가 생기지 않으며, 행성이 공전하면서 중력 웅덩이가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추가 속도를 얻는 것이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5 이 글의 마지막 단락에서 필자는 플라이바이 항법으로 태양계 곳곳에 도달한 탐사선이 인류의 탐험 정신과 지평 확장을 보여 주는 증거물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탐사선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과거 삼국 시대 왕들이 영토 확장의 증거로 남긴 순수비에 빗대어 '우주 순수비'로 표현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순수비의 의미가 영토 확장의 증거임을 밝혀 썼다.	☐
탐사선이 인류 지평 확장의 증거물임을 밝혀 썼다.	☐

06 이 글은 과학적 원리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다룬 설명문이다. 필자의 입장과 반대 입장을 비교하며 논증의 균형을 평가하는 읽기 방식은 논증하는 글에 해당한다.

07 이 글은 위드투백이라는 특정 기술과 그 원리를 설명하는 글이다. 시간 순서에 따라 위드투백이 발달해 온 과정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 ① (나)와 (다)에서는 '질문-대답'의 형식을 반복하여 유클리드 거리와 코사인 거리를 계산하는 원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있다.
- ② (나)와 (다)에서는 벡터 공간의 모습을 이미지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이 글은 '캐러멜, 호박, 태양'과 같은 친숙한 소재를 활용하여 유클리드 거리와 코사인 거리를 계산하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⑤ (나)에서 유클리드 거리는 벡터 공간의 크기에 따라 값이 달라진다는 한계를 먼저 제시한 뒤, (다)에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코사인 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08 벡터 공간의 크기에 따라 값이 달라지는 것은 코사인 거리가 아니라 유클리드 거리이다. 코사인 거리는 두 점이 이루는 각도를 바탕으로 유사도를 측정하는데, 각도는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져도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 오답 풀이 |

- ① 위드투백은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 간의 관계도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② 위드투백은 유사한 문장에서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학습하여 의미를 수치화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유클리드 거리는 점과 점 사이의 직선거리로 단어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적절하다.
- ⑤ 코사인 거리는 두 점이 이루는 각도를 바탕으로 단어 간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므로 적절하다.

09 (나)에서 ‘훨씬 더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9.99까지로 최댓값을 높이면’이라고 하였으므로, 벡터 공간의 최댓값을 높이면 단어의 표현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 ① 줄자로 거리를 재는 것에 비유된 것은 유클리드 거리이다. 코사인 거리는 두 점이 이루는 각도를 바탕으로 유사도를 측정한다.
- ③ 코사인 유사도는 값이 클수록 두 단어의 의미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 ④ 워드투벡은 의미가 유사한 단어를 가까운 숫자로 표현하므로, 거리가 가까울수록 의미가 비슷하다.
- ⑤ 벡터 공간의 크기를 키우면 유클리드 거리의 측정 값이 달라질 뿐, 더 정확해진다는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10 [A]는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면 유클리드 거리도 달라집니다.’라는 문장 뒤에 위치하며, 바로 다음에 ‘벡터 공간의 크기에 따라 거리가 달라지니까요.’라고 부연하고 있다. 또한 (다)에서는 이 한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코사인 거리를 소개하며, ‘거리가 멀다, 가깝다의 기준을 어떤 공간에서든 일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로 보아 [A]에는 유클리드 거리로는 멀고 가까움의 기준을 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함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코사인 거리는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져도 일정한 값을 유지한다.
- ② 각도는 벡터 공간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측정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 ③ 유클리드 거리의 한계는 유사도 측정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지, 단어의 수치화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다.
- ④ 벡터 공간의 크기를 고정해야 한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 글은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져도 측정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11 녹차 라테(2.0, 2.0, 6.0)와 포도 주스(0.1, 1.0, 8.0)는 둘 다 아메리카노에 비해 단맛의 강도가 높고 카페인 함량과 쓴맛의 강도가 낮아 의미적 특성의 비율이 유사하다. 반면 아메리카노(6.0, 5.0, 1.0)는 카페인 함량이 높고 단맛이 낮아 녹차 라테와 방향이 크게 다르다. 따라서 코사인 거리를 사용할 경우, 녹차 라테와 포도 주스가 이루는 각도가 작게 측정된다.

| 오답 풀이 |

- ① 녹차 라테와 아메리카노의 직선거리는 녹차 라테와 포도 주스의 직선거리보다 멀다. 따라서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할 경우 녹차 라테는 아메리카노보다 포도 주스와 더 유사한 단어로 판단된다.
- ② 유클리드 거리를 측정하면 포도 주스와 아메리카노는 전체 좌표 차이가 커 직선거리가 머므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코사인 거리는 두 점이 이루는 각도를 바탕으로 측정하며, 각도는 벡터 공간의 크기가 달라져도 일정한 값을 가진다. 따라서 최댓값을 높여도 유사도 판단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

④ 코사인 거리는 특정 차원의 수치가 아니라 전체 벡터의 방향으로 유사도를 판단한다. 포도 주스와 아메리카노는 의미적 특성의 비율이 크게 달라 각도가 크게 측정된다.

12 (다)에서 코사인 법칙에 따르면 각도가 클수록 값(코사인 유사도)이 작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1에서 코사인 유사도를 빼 코사인 거리로 변환하여 각도가 클수록 값이 커지도록 함으로써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직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한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코사인 법칙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였다.	☐
코사인 거리를 구할 때 코사인 유사도를 그대로 쓰지 않는 이유를 적절하게 썼다.	☐

13 인공 지능 작품이 대상을 수상했다는 것은 대회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일 뿐, 인공 지능이 상황에 맞게 작품을 새로 만들어 낸다는 학생 1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 수상 여부와 인공 지능의 창작 능력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 사실만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보기 어렵다.

14 ㉠은 수온 상승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보여 주는 내용임으로 ‘처음’이 아닌 ‘가운데-2’와 관련된다.

15 ㉠에서는 독도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를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로 구분한 뒤, 각 생태계에 속하는 생물들을 나열하고 있다. ㉡에서는 독도 생태계의 변화를 원인(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결과(수온 상승으로 변화하고 있는 독도 생태계의 모습)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16 정보를 선별할 때는 작문 맥락, 정보의 효용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ㄴ은 고등학생이 생산한 자료로 전문성이 부족하여 신뢰성의 측면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ㄹ은 출처의 공신력은 있으나, 독도의 영토 주권이라는 내용이 글의 목적과 주제에 부합하지 않아 작문 맥락의 측면에서 활용하기 어렵다.

평가 기준	확인 ☒
ㄴ과 ㄹ을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로 선택하였다.	☐
ㄴ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신뢰성, ㄹ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주제 적합성을 근거로 썼다.	☐

17 정보를 전달하는 글에서 출처를 밝히는 것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구체적인 수치나 과학적 사실을 제시할 때 출처를 함께 밝히면 독자가 정보를 신뢰할 수 있으므로, 출처를 빼라는 조언은 적절하지 않다.

5. 사회를 바라보다

☆ 01 사회·문화 분야의 글

제재 1 무엇이 내 삶의 정치일까

◆ 확인 문제

본책 140~145쪽

01 ③ 02 ⑤ 03 ⑤ 04 ② 05 ④ 06 ④ 07 ③ 08 ①
09 ④ 10 ⑤ 11 ③

01 (다)에서 정치를 통해 결정된 일은 찬반 의견에 관계없이 따라야 하지만, 개인적 결심은 중간에 어긴다고 해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큰 사고가 대중 매체의 첫머리를 장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치 기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정치 기사는 드라마나 영화, 연예인 소식 등에 비해 흥미가 떨어지지만, 정치가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뉴스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진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고대 그리스의 정치 공동체인 폴리스(polis)에서의 일 중 하나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나 외교라고 하였다.

⑤ (라)에서 '정치'라는 말은 '폴리스'가 아니라 폴리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활동을 뜻하는 '폴리티카(Politiká)'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

02 이 글에 따르면 ㉠은 공적인 규범으로서 개인의 선택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에서 필자는 정치를 통해 결정된 일은 먼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03 (마)에서 '정치적(political)'이 '폴리스적인', 즉 정치 공동체와 관계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폴리스와 더불어 사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보았다. 그는 폴리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초인이거나 인간 이하의 존재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자면 폴리스 안의 다른 사람과 상호 작용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정치 공동체 안에서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인간을 ㉡ '정치적 동물'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이 글은 정치의 범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인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의 개념과 장단점 등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바)~(사)에서는 '국가 현상설'을, (아)~(자)에서는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을 설명하고 있다.

05 ㉠ '국가 현상설'은 정치가 국가적인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 대하여 국가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정치라고 볼 수 있는지(a), 국가적인 일을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만 정치라면 국가 형성 이전의 공동체 활동은 정치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b), 일반 사회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조정 활동이 발생하는데 이를 정치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지(c)와 같은 비판적 의문을 품을 수 있다.

| 오답 풀이 |

d. ㉠이 지지하는 견해이므로 ㉠에 대해 품을 수 있는 비판적 의문과는 거리가 멀다.

06 (아)에서는 ㉢ '집단 현상설'이 정치를 '상호 작용과 조정'으로 보되, 그것이 나타나는 범위를 '권력관계(지배-피지배)'가 존재하는 모든 사회 집단'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력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상호 작용을 정치로 본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07 ㉣의 '보는'은 '대상을 어떠한다고 평가하다'는 의미로 쓰였다. ㉢의 '보고' 역시 사태를 국가적인 위기로 판단한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문맥상 가장 가깝다.

| 오답 풀이 |

① '보는'은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안다는 의미로 쓰였다.

② '봐서'는 기회, 때, 시기 따위를 살피는 의미로 쓰였다.

④ '보는'은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는 의미로 쓰였다.

⑤ '보시느라'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는 의미로 쓰였다.

08 (카)~(파)에서는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일, 급식 식단을 짜는 일, 쓰레기 분리수거일을 정하는 일 등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정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09 이 글에서 필자는 정치를 한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정치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가깝다. (파)에서 '넓은 의미의 정치'는 국가뿐 아니라 공동체 내, 혹은 공동체 간의 권력 및 자원을 분배하는 방식을 다룬다고 하였으므로 필자는 공동체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 역시 정치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0 (차)에 따르면 ㉠ '우리 현실의 폴리스'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공동체이다.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공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정치라고 하며, 그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갈등이 심화되거나 결정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은 적절하나, 의사 결정 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1 (가)~(타)에 따르면 ㉔는 공적 영역에 해당하는 논의가 아니므로 정치라고 보기 어렵지만 메뉴를 정하기까지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㉕는 정치에 해당하는 사례로, 이 역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2 2 문화를 담은 건축물

★ 확인 문제

본책 148~153쪽

01 ⑤ 02 ② 03 ① 04 ① 05 ⑤ 06 ④ 07 ⑤ 08 ①
09 ② 10 ③

- 01 (다)에서 건축물에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고 반영되는 것, 즉 문화적 디엔에이(DNA)가 반영되는 것은 그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지리적, 기후적 특색이 반영된 일반적 건축물에도 해당된다고 하였다.
- 02 (가)에서 필자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경험을 제시한 뒤, 그에 대해 ‘왜일까?’라고 질문하고, 건축물이 그 나라와 장소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어 ‘그렇다면 건축물이 왜 그 나라, 그 장소의 정체성을 만드는 것일까?’라고 다시 묻고, 건축물은 많은 사람의 땀과 노력이 들어간 결정체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이처럼 (가)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방식을 반복함으로써 건축물의 상징성과 의미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 03 건축물을 통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건축물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건축에는 그 지역의 지리적·기후적 특성이 반영되며, 건축물은 그 지역 사람들의 문화적 디엔에이(DNA)를 보여 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살펴보면 그 배경에 있는 문화뿐 아니라 정치·경제·기술·인류학적인 맥락까지 이해할 수 있다.
- 04 이 글은 한자와 알파벳의 문자 구성 방식과, 동서양 건축의 특징을 보여 주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두 대상의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글의 내용과 관련한 시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05 (라)에서는 알파벳이 26개의 글자가 있고, 이들의 순서를 배열하여 단어를 만든다고 설명한다. (마)에서는 알파벳의 특성에서 볼 수 있듯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인 최소 단위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알파벳은 의미 단위의 결합이 아닌 최소 단위를 바탕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 06 이 글은 동양과 서양이 지리적으로 분리되어 발전하면서 서로 다른 특징을 지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를 한자와 알파벳의 구조적 특성을 예로 들어 구체화한 뒤, 이를 건축의 차이로 확장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와 알파벳을 활용한 목적은 동서양 문화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07 ㉔은 서양의 건축물, ㉕은 동양의 건축물이다. 서양의 건축은 한 방향의 축을 따라 배치되는 경향이 있고, 동양의 건축은 주변 환경에 맞추어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증식하듯 평면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㉔이 ㉕과 달리 한 방향을 추구하는 건축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8 (사)에 따르면 개미 사회와 벌 사회의 공통점은 사회성의 결집체로써 집을 짓고 산다는 것(ㄱ)과 여왕을 중심으로 일하는 계층이 있다는 것(ㄴ)이다.

| 오답 풀이 |

ㄷ. (사)에서 개미와 벌은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강한 사회성을 띠고 있는 대표적인 곤충이라고 하였다.

ㄹ. (사)에서 개미와 벌은 모두 여왕을 중심으로 일하는 계층이 있고 조직적인 사회성을 띤다고 하였다.

- 09 (자)에서 벌집이 육각형의 모듈러 구조를 띠며 동일한 형태의 방이 반복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벌집은 불규칙한 회로의 형태가 아닌, 규칙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0 (아)에서 ‘어느 개미집이나 그 외부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 내부에 구성된 연결망이 중요하다.’라고 하였고, (가)에서 ‘동양의 건축은 땅과 연결된 개미집처럼 관계성을 중요시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㉔에는 땅과 연결된 개미집처럼 관계성을 중요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모단원 평가 문제

본책 154~159쪽

- 01 ① 02 정치적 결정은 어길 경우 제재가 가해지며,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03 ④ 04 ④ 05 ⑤ 06 ③ 07 정치로 볼 것이다. ㉔는 공적 영역의 일이며, ㉕를 통해 결정된 일이 구성원 사이에 구속력을 갖기 때문이다. 08 ⑤ 09 ② 10 ⑤ 11 사방으로 확장되는 한자와 같이 동양 건축물은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증식하듯 평면으로 구성되며, 좌우가 비대칭적이다. 12 ① 13 개미 사회와 벌 사회는 모두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강한 사회성을 띤다. 그리고 여왕을 중심으로 일하는 계층이 있고 조직적 사회성을 띠며, 사회성의 결집체로써 집을 짓고 산다. 14 ③ 15 ④ 16 ④

01 (나)에서 폴리타카란 폴리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나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일이나 활동이란 폴리스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말한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 ② (나)에서 '다른 나라와의 전쟁' 역시 폴리타카, 즉 정치적 활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 ③ (가)에서 정치 기사는 드라마나 영화 등에 비해 재미도 없고 지루하지만, 뉴스로서 맨 먼저 다루어진다고 하였다.
- ④ (가)에서 쓰레기 종량제는 개인의 찬반과 무관하게 따를 수밖에 없으며 위반 시 제재가 따른다고 하였다.
- ⑤ (나)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폴리스(정치 공동체)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를 '초인'이라고 한 것은 인간의 정치적 본성을 강조한 표현일 뿐, 인간이 초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02 (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를 예시로 들어 정치적 결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중간에 어긴다고 해서 제재가 가해지지 않는 개인적 결심과는 달리 정치적 결정은 어길 경우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정치를 통해 결정된 일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평가 기준	확인 ☒
정치적 결정을 어기면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썼다.	☐
정치적 결정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썼다.	☐

03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적 동물'은 인간이 정치 공동체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본성상 폴리스와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04 이 글은 정치의 범위를 바라보는 두 관점을 설명하고, 실생활을 예시로 들어 이해를 돕고 있다. 이 글에서 정치 활동과 대중문화 사이의 인과 관계를 논리적으로 밝힌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 ① (나)에서 '우리 현실의 폴리스는 무엇이 있을까?', '친구들끼리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건 정치일까, 아닐까?'와 같이 질문을 던져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② 친구들끼리 점심 메뉴를 결정하는 사안, 학교 급식을 짜는 사안 등 구체적인 실생활의 예시를 활용하여 정치의 의미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정치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의 특징과 장점, 한계를 모두 제시하여 설명의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⑤ 정치의 범위를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이 국가 현상설과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을 대조하여 정치 현상을 균형 있게 설명하고 있다.

05 기업에서 노사 협의를 통해 근무 환경 개선안을 합의하는 것은 영역 ㉠이 아닌 ㉡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가)에서 '회사의 노사 협의'를 집단 현상설에 따른 정치의 사례로 들고 있고, (나)에서도 좁은 의미의 정치는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혹은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기업의 노사 협의는 좁은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정치(㉡)에 포함된다.

06 국가와 다른 사회 집단의 차별성을 소홀히 한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 '국가 현상설'이 아니라 ㉡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이다.

07 (나)에 따르면 필자는 한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정치라고 본다. ㉠(학교 급식 식단을 짜는 일)은 공적 영역의 일이며, 구성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필자는 ㉠을 정치라고 볼 것이다.

평가 기준	확인 ☒
이 글의 필자가 ㉠을 정치라고 볼 것이라고 썼다.	☐
이 글의 필자가 ㉠을 정치라고 보는 이유를 두 가지 이상 적절하게 썼다.	☐

08 '역사적 인물에 대한 관점을 담은 글'은 인물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밝히는 글로, 그 근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나 확인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 인물의 행동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재구성한 것은 사실에 기반한 근거라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활용하여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09 (나)에서 지금은 휴대 전화, 전투기, 우주 왕복선 같은 첨단 제품이 많아 건축물을 최첨단의 결정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10 알파벳은 가로축의 한 방향으로 글자의 순서를 바꾸어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ㄴ). 반면 한자는 글자의 상대적 위치와 길이를 조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만든다(ㄷ). 이러한 알파벳과 한자는 각각 한 방향을 띠는 서양의 문화와 다양한 방향을 추구하는 동양 문화의 특징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ㄷ).

| 오답 풀이 |

ㄴ. 알파벳은 글자 수가 26개로 고정되어 있다.

11 (라)에서 한자는 글자가 사방으로 확장된다고 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한자의 특징에 주목하여 (바)에서 동양의 건축이 주변 환경에 맞추어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증식하듯 평면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동양의 건축이 좌우 대칭을 이루는 서양 건축과 달리 좌우가 비대칭적이라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한자의 글자 확장 방향과 관련지어 동양 건축물이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증식하듯 평면으로 구성된다는 내용을 썼다.	☐
동양 건축물이 좌우 비대칭적이라는 내용을 썼다.	☐

12 이 글은 개미집과 벌집, 동양의 건축과 서양의 건축을 대조하여 각 대상의 구조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13 이 글의 1번째 문단에서 개미와 벌은 모두 집단으로 서식하면서 강한 사회성을 띤다고 하였다. 또한 여왕을 중심으로 일하는 계층이 있고 조직적인 사회성을 띠며, 그 사회성의 결집체로써 집을 짓고 산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개미 사회와 벌 사회의 공통점을 두 가지 이상 썼다.	☐
개미 사회와 벌 사회의 공통점을 두 문장 내외로 썼다.	☐

14 ㉔ ‘베르사유 궁전’은 서양(프랑스)의 건축물이다. 이 글에 따르면 유럽은 아이디어의 세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원칙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을 지닌다. 이로 보아 ㉔는 땅에 기초를 두지 않고 공중에 집을 짓는 ㉓ ‘벌집’과 유사하게 기하학적인 형태로 지어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이 글에 따르면 ㉔는 외부 형태가 중요하지 않고 내부에 구성된 연결망이 중요하다.
- ② 공간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 구조를 택한 것은 ㉔이 아니라 ㉓이다.
- ③ ㉔는 우리나라(동양)의 건축물로, 주변 지형에 맞추어 지어졌고 건물 간 유기적 관계성이 두드러진다. 이는 외부 형태보다 내부의 관계를 중시하는 ㉔와 유사한 특징이므로, ㉓와 유사한 형태로 지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㉔는 좌우 대칭을 이루는 서양 건축물이므로 자연 발생적 형태를 띤다고 보기 어렵다. 주변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자연 발생적 형태는 ㉔와 같은 동양 건축의 특징이다.

15 (나)의 필자는 베네치아의 역사와 관련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도시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베네치아의 기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기후와 관련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지리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16 (가)와 (나)는 모두 문화 분야의 글로 기행문에 해당한다. 이러한 글을 쓸 때는 특정 문화 현상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 2 논증하는 글 쓰기

본책 162~163쪽

모단원 평가 문제

01 ㉓ 02 ㉔ 03 ㉓ 04 ㉓ 05 현금이 없다면 특정 계층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

01 (가)에서 준수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가 금융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였고, 인아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는 금융 사고나 범죄를 일으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사람은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는 금융 사고나 범죄 예방에 유리한가?’라는 쟁점에 대해 유사한 시각이 아니라 반대의 시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 논증하는 글을 쓸 때 적절한 근거를 선정하는 기준은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이다. ㉔는 한국은행이라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이므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㉔는 연령대별 현금 결제 비중을 보여 주는 자료로,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다. 따라서 ‘주제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은 적절하지 않다.
- ③ ㉔는 한국은행이 시행한 객관적인 통계 조사 결과이므로, 조사 기관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④ ㉔는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제시한 텔레비전 뉴스 자료이다. 일반 이용자의 반응이 나타날 뿐, 내용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㉔는 모바일 서비스 장애로 인한 불편과 피해를 겪은 사례를 보여 주는 자료로, 인아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다.

03 (나)의 서론 부분에서 인아는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이 사례를 통해 현금이 없는 사회의 불편함을 호소력 있게 표현하여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므로 이는 감성적 설득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㉔ 또한 본론 부분에서 한국은행의 신뢰성 있는 통계 자료를 활용해 주장을 논리적으로 내세우는 이성적 설득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㉓

| 오답 풀이 |

- ㉔: (나)에서 관용구를 활용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으며, 독자의 자긍심을 자극하는 표현도 사용되지 않았다.
- ㉔: (나)에서 필자가 자신이 전문가임을 밝히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04 (다)에서 ‘간편 결제 서비스’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독자의 이해를 돕는 이성적 전략으로, 독자의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 ① ‘정말 그럴까?’, ‘사회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을까?’와 같이 의문문을 활용하여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②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해서는 안 될 일이다.’와 같이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을 인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매체의 인터뷰 결과를 활용하여 ‘특정 계층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예상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④ 주장(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유(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한다. 등), 근거(공신력 있는 기관의 조사 결과와 매체의 인터뷰 결과 등)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05 (다)에서 준수는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다)의 3번째 문단에서 준수는 ‘현금이 없어도 특정 계층이 불편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하며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서 매체의 인터뷰 결과를 근거로 이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에 나타나는 예상 반론은 ‘현금이 없어도 특정 계층이 불편을 겪을 것이다.’로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다)에 제시된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을 적절하게 썼다.	☐
완결된 문장으로 썼다.	☐

대단원 평가 문제

본책 164~169쪽

01 ① 02 ② 03 ⑤ 04 ⑤ 05 ㉠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그 결정이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가지므로 정치에 해당한다. 반면 ㉡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그 결정이 구성원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으므로 정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06 ⑤ 07 개미집은 방끼리의 관계를 중심으로 내부 연결망이 중요한 건축인 반면, 벌집은 육각형의 모듈러 구조가 반복되는 건축이다. 08 ② 09 ① 10 충·효와 같은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가 지배적이었다. 11 ⑤ 12 ⑤ 13 ④ 14 ③ 15 논제와 관련한 개념을 설명하며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 ① 17 ⑤

- 01 이 글은 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사회 분야의 글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글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문화 현상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필자의 주장이나 관점

이 논리적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또한 글에 제시된 역사적 사건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한다. 글에 담긴 기술의 원리나 현상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읽어야 하는 것은 과학·기술 분야의 글에 해당되는 설명이다.

- 02 (라)에 따르면 폴리스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정치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②는 인과 관계를 반대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 ① (나)에서 ‘정치’라는 말은 그리스어 ‘폴리티카’에서 유래하였다고 하였다.
 ③ (자)에서 필자는 정치에 대해 한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④ (가)에서 새로운 영화나 새로운 앨범에 비해 정치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기 때문에 뉴스로서 맨 먼저 다루어진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폴리티카, 폴리스에서의 일이나 활동이란 폴리스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하였다.

- 03 필자는 (가)에서 정치의 영향력이 크고 강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자)에서 정치는 한 집단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소개한 것은 정치 공동체와 더불어 사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본성임을 밝혀 정치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다.

- 04 ㉠은 국가 현상설, ㉡은 집단 현상설(사회 현상설)이다. (바)에서 ㉡은 정치 공동체를 국가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의 다양한 집단 전체로 확장하여, 그 집단 안에서 구성원들이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관계·가치관의 충돌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정치로 본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 ① ㉠은 정치를 권력 기관이나 통치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활동으로 보나, ㉡은 정치 공동체를 사회의 다양한 집단 전체로 확장한다.
 ② ㉠은 정치가 소수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며, ㉡은 정치가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③ 정치권력을 국가의 권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이 아니라 ㉡의 입장이다.
 ④ 정치를 국가 혹은 국가 기관의 활동으로 한정하는 것은 ㉠이다. ㉡은 정치 공동체를 국가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 05 (자)에 따르면 필자는 정치를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로, 구성원들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할 때 ㉠은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가결된 사

안으로,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또한 그 결정이 단지 내 모든 입주민에게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정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⑤는 몇 가족이 함께 여행지를 정하는 일로,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또한 그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구속력을 갖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정치에 대한 필자의 관점을 근거로 ④와 ⑤의 상황이 정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썼다.	☐
'영역', '구속력'이라는 말을 포함하여 썼다.	☐

06 이 글은 동서양 각 지역의 문화가 반영된 건축물을 주제로 한 문화 분야의 글로, 한자와 알파벳, 개미집과 벌집의 특징을 동서양 건축의 특징과 관련지어 비교·분석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건축물 사례를 들어 문화가 건축에 반영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동서양 건축 문화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 왔는지 시간 순서대로 설명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7 (라)와 (마)에서는 개미집과 벌집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라)에 따르면 개미집은 외부 형태보다 내부에 구성된 연결망인 방기리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하였고, (마)에 따르면 벌집은 육각형의 모듈러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 모양의 방이 반복되면서 전체 벌집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개미집과 벌집의 차이점을 적절하게 썼다.	☐
'개미집은 ~ 반면, 벌집은 ~ 이다.'의 형식으로 썼다.	☐

08 (가)에서 한자는 상대적 위치와 길이의 조합에 따라 글자가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자의 상대적 위치와 길이의 조합이 자유롭다는 특징은 한자에만 해당하는 설명임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가)에 따르면 영어와 달리 한자는 사방으로 글자가 확장된다고 하였다.
- ③ (나)에 따르면 서양 건축은 알파벳처럼 한 방향의 축을 따라 배치된다고 하였다.
- ④ (가)에 따르면 알파벳은 26개의 글자가 있고, 이들의 순서를 바꾸어서 단어를 만든다고 하였다.
- ⑤ (가)에서는 한자가 사방으로 확장되는 특징이 있다고 하였고, 이어서 (나)에서는 동양의 건축물이 주변 환경에 맞추어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증식하듯 평면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자의 특징과 동양 건축물의 특징을 연결지을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09 <보기>에 따르면 한옥은 방 하나의 기본 단위에서 시작하여 밖으로 덧붙여 나가며 'ㄱ'자, 'ㄷ'자, 'ㅁ'자 형태로 변모하는 '외파 증식'의 방식이다. 이는 (나)에서 동양 건축이 주변 환경에 맞추어 자연 발생적인 형태로 증식하듯 평면으로 구성된다고 한 내용과 연결된다. 한옥이 방 하나에서 다양한 형태로 변모하는 것은 다양한 방향을 추구하는 동양 건축 문화의 특징과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한 방향을 띠는 서양의 건축 문화와 관련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사)에서는 개미집과 벌집의 구조에 빗대어 동양의 건축 문화와 서양의 건축 문화를 비교하고 있다. (사)에서 동양은 층·효와 같은 관계를 중시하는 유교가 지배적이었으므로 동양의 건축물은 땅과 연결된 개미집과 같이 관계성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반면 서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 오는 원칙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공중에 집을 짓는 벌처럼 기하학적인 건축이 발달했다고 하였다.

평가 기준	확인 ☒
동양의 문화적 특징을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11 사회·문화 분야의 글을 쓸 때에는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필자의 관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써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나열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12 (가)와 (나)는 각각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로 전환하면 안 된다.'라는 명확한 주장을 내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다. 이와 같은 논증하는 글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서로 다른 입장의 장단점을 균형 있게 제시하여 독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이러한 글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13 (가)의 주장인 '현금이 필요 없는 사회는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한다.'의 이유는 '현금을 사용했을 때의 불편함이 사라지고, 현금을 잃어버릴 위험을 없앨 수 있다.'이다. '금융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은 (나)의 필자가 겪은 경험으로, 독자의 공감을 유도하고 문제 상황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개인적 경험이 시민 대다수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15 (가)의 [A]에서는 논제와 관련한 ‘간편 결제 서비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개념을 설명하여 글에 논리성과 타당성을 더하는 것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이성적 설득 전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A]에 이성적 설득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이유를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16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나)에서는 통계 자료, 개인적 경험, 해외 사례 등을 근거로 활용하고 있을 뿐,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 ② (나)의 1번째 문단에서 교통 카드 없이 버스를 탄 필자의 경험을 제시하여 독자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의 1번째 문단에서 “우리 버스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현장에서 접한 문구를 직접 인용하여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나)의 2번째 문단에서 20대의 현금 결제 이용 비중 9.8%와 70대 이상 40%라는 연령대별 수치의 차이를 제시하여, 현금이 사라졌을 때 고령층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⑤ (나)의 1번째 문단에서 교통 카드 없이 버스를 탄 상황, 동네 가게에서 현금을 받지 않는 상황 등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제시하여 독자가 문제의식을 느끼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17 (가)와 (나)의 필자 모두 자신의 주장에 대한 예상 반론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온전히 반박만을 하고 있다. 예상 반론의 일부를 수용하는 내용은 (가)와 (나)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 ① (가)의 필자는 글의 마지막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라는 속담을 활용하여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고, 예상 반론에 대한 반박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가)의 필자는 인터뷰에서 노년층, 외국인 등이 카드 사용을 편리하게 여긴다는 점을 들어 예상 반론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③ (나)의 필자는 스웨덴의 상업 은행 입출금 서비스 의무화 법률 추진과 영국의 ATM 수 유지 및 확대 정책을 추가 근거로 제시하여 반박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나)의 필자는 금융 취약 계층의 범위가 넓고 취약 계층이 겪는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들어 홍보 및 교육 제공이라는 해결책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통합적으로 읽고 쓰다

1 다양한 매체 자료 읽고 쓰기

본책 174~177쪽

오단원 평가 문제

- 01 ⑤ 02 ③ 03 ⑤ 04 ② 05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4년 전보다 높아졌음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06 ③ 07 ④ 08 ⑤ 09 ⑤ 10 ⑤ 11 ② 12 ⑤ 13 ⑤

- 01 인쇄 매체는 주로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여러 정보를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또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이 생산자로 참여하기 어렵다. 누구나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정보에 대한 반응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매체는 컴퓨터, 인터넷과 같은 ‘뉴 미디어’이다.

- 02 (가)는 과일 판매 순위와 매출 증감률을, (나)는 1인 가구의 만족도 비율과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두 글은 구체적인 통계적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여 내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나)는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주제로 삼고 있으나, (가)는 과일 매출 분석을 통해 드러난 1인 가구 증가 현상이 주제이다.
- ② (가)와 (나)에서 학술 이론을 제시하여 본문의 내용을 뒷받침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④ (나)는 1인 가구가 겪는 외로움, 고독감 등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실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1인 가구의 증가가 특정 품목의 소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 03 (가)의 기사는 필자의 견해가 아니라 수박의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애플수박과 같이 크기가 작은 수박의 매출은 11.5% 늘었다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 04 (나)에서 필자는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지표를 제시하는 한편, 심리적 어려움과 월평균 소득의 부족, 사회적 관계의 약화 등 1인 가구가 겪는 불편과 어려움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필자는 1인 가구의 삶을 일방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보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균형 있게 살피면서 이들이 겪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1인 가구의 삶의 실태를 다루고 있을 뿐, 그 증가 원인을 개인 주의 확산으로 설명하거나 분석하지는 않았다.
- ③ 1인 가구가 겪는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를 사회적 갈등과 연결 지어 해석하지는 않았다.
- ④ 1인 가구의 삶의 실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율성 보장을 위한 대책의 시급성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 ⑤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와 같은 긍정적 내용과 함께 심리적 어려움과 소득 부족 등의 문제도 다루고 있으므로 1인 가구를 이상적인 형태로 평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05 (나)의 그래프에서 삶에 만족하지 않는 1인 가구는 26.8%에서 13.8%로 감소했고, 만족하는 1인 가구는 73.2%에서 86.2%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래프는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4년 전보다 높아졌다는 기사의 내용을 시각화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수치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면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나)의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고자 한 기사의 내용을 적절하게 썼다.	☐
(나)에 그래프를 제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적절하게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06 이 자료는 텔레비전 공익 광고로, 방송 매체를 통해 전달된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는 것은 방송 매체가 아닌 뉴 미디어의 특징에 해당한다.

07 이 자료는 일상적 상황을 활용하여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서문의 평가는 적절하다. 또한 영상, 자막, 내레이션 등 시청각적 요소를 활용해 다문화 공동체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체의 특성을 제작 의도와 연결해 평가한 민수의 판단도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지민: 이 자료의 내레이션은 ‘요즘 우리 팀’, ‘요즘 우리 동네’ 등 일상적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을 뿐으로, 인물들이 일상에서 겪은 차별을 강조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자료는 자막과 내레이션을 통해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있다.

08 (가)는 뉴 미디어 매체에 속하는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전달되는 게시물이다. 뉴 미디어는 문자, 영상, 음향, 하이퍼링크 등의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복합양식적 특징을 지닌다(ㄷ).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므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비교적 덜 받으며 다른 이용자와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다(ㄹ).

| 오답 풀이 |

ㄱ. 뉴 미디어는 정보의 생산자와 수용자가 쌍방향으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정보가 생산자에게서 수용자에게로 일방향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전통적인 매체(인쇄 매체, 방송 매체 등)의 특징이다.

ㄴ. 전통적인 매체인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에서는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자본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정보의 생산자로 참여하기 어렵지만 뉴 미디어에서는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09 (가)의 ㉠은 특정 이용자를 태그하는 기능이다. 새미는 도운을 태그하여 도운에게 챌린지 참여를 권유하고 있으며, 생산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10 (나)의 마지막 문단에서 전문가는 챌린지가 본래 성격을 잃지 않고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 설정과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챌린지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은 (나)에서 찾을 수 없다.

11 (나)의 내용으로 보아, 챌린지는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으나 일각에서는 이를 보여 주기 식 행위로 취급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어, 보는 이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챌린지에 참여할 때에는 챌린지의 목적과 의도를 비판적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챌린지가 선한 영향력에서 시작되었다고 해서 그 취지만 보고 목적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나)의 필자의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12 매체를 활용하여 표현할 때는 주제, 목적, 예상 독자 등 소통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예상 독자의 흥미를 끌기 위해 소통 목적보다 시각적 효과를 우선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3 <보기>에 제시된 소통 목적은 ‘정보 전달, 사회적 상호 작용’이다. 독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설득을 목적으로 할 때 적절한 계획이므로, <보기>의 소통 목적과 맞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예상 독자가 ‘학급 및 또래 친구들’이므로, 독자의 몰입을 높이기 위해 매체 자료에 배경 음악을 삽입하겠다는 구상은 적절하다.

② 제작할 매체 자료가 웹툰이므로, 웹툰의 시각적 특성을 살려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겠다는 구상은 적절하다.

③ ‘끼니 잘 챙겨 먹기’, ‘청소 깨끗이 하기’, ‘좋아하는 일 하기’와 같은 건강한 습관을 다룬다고 하였으므로, 각 습관을 장면별로 나누어 제시하겠다는 구상은 적절하다.

④ 주제가 ‘나를 돌보는 방법’이므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구상은 적절하다.

☆ 2 주제 통합적 읽기와 학습을 위한 글 쓰기

제재 가 재생과 공존

제재 나 함께 돌보고 가꾸어야 할 도시 공간

제재 다 고령자를 위한 읽기

★ 확인 문제

본책 182~189쪽

01 ⑤ 02 ⑤ 03 ① 04 ② 05 ③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③ 11 ② 12 ⑤ 13 ⑤

01 온실 효과는 대기 중의 수증기, 이산화 탄소, 메탄 등이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파장이 긴 원적외선을 지구 표면 가까이 가두는 현상이다. (나)에 따르면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산업 혁명 이전부터 존재했고, 지구의 온도를 생명 활동에 적합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따라서 온실 효과가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연료의 대량 소비로 인해 처음 나타났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다)에서 '재생 에너지는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서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 유기체 등에 포함된 에너지를 변환해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석유는 기존의 화석 에너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재생 에너지원의 예가 아니다.

03 이 글의 필자는 재생 에너지를 통해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은 모두 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여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방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은 온실 효과로, 필자가 말하는 지구와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는 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04 이 글은 도시·건축 디자인을 '가꿈'과 '돌봄'의 관점에서 설명하며, 독자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명령적인 어조로 독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사진 자료(버스 승강장 자동 접이식 의자)를 함께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버스 승강장, 대중교통, 공중화장실 등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의 사례를 들어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사용자를 배제한 형식적인 공간이 지닌 문제를 제시한 뒤, 가꿈과 돌봄을 실천하는 방향을 해결책으로 제안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과 같은 표현으로 필자와 독자를 함께 지칭하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05 (나)에서 필자는 '가꿈'과 '돌봄'이라는 두 단어가 모두 정성을

기울여 대상이나 공간을 보호하며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보살피는 일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06 이 글의 '끝' 부분에서는 주변 공간을 보살피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심을 두지 않고 지나치던 공간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소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을 다시 인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더 나아가 '더 좋은 도시 건축 환경이 탄생'하며, 사소한 곳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간'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법규에만 맞추어 계획하거나 형식적으로 공간을 관리하는 방식은, 사용자를 배려하는 '가꿈'과 '돌봄'의 실천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의 효과로 보기 어렵다.

07 (나)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타이포그래피를 단순히 글자를 크게 하는 문제로 보는 통념을 지적하며, 나이가 들수록 시력뿐 아니라 인지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다)에서는 글자 크기를 지나치게 키울 경우 감정적으로도 공격적인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글자 크기에는 적절한 선이 있음을 제시하여, 이러한 통념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를 통해 필자는 기존의 통념을 반박하고, 고령자를 고려한 타이포그래피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① 이 글은 국내 의약품 타이포그래피의 현실을 설명하고 고령자의 시력·인지 변화와 읽기 방식의 특성을 분석하는 설명적 서술이 중심을 이룬다. 질문 형식을 활용해 독자의 주의를 직접 환기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이 글에서는 특정 용어를 정의하고 그 정의를 통해 논의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지 않다.

④ (가)에서 '보통 성인의 1회 1병(100 ml)'과 같은 숫자가 제시되지만, 이는 의약품 타이포그래피의 문제점을 보여 주기 위한 사례일 뿐이며 수치를 통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은 '글자를 크게 하면 된다'는 기존 인식을 비판하고 한계를 설명하는 단일한 논증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상반된 관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08 (다)에서는 지면이나 화면에는 제한이 있으므로 글자 크기와 정보량, 공간의 면적은 함수 관계를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글자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글자가 감정적으로도 공격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했으므로 고령자를 위한 타이포그래피에서 글자 크기를 최대한 키우면 고령자가 느끼는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①, ② (나)에서는 움직이는 것과 새로운 것에 반응하는 어린이들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인지의 방식이 고정된 것과 익숙함에 반응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모단원 평가 문제

- ③ (다)에서는 글자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감정적으로도 공격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④ (다)에서는 지면이나 화면에는 제한이 있고, 글자의 크기나 글자의 양, 공간의 면적은 함수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적절한 선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09 (가)에서는 복용량, 복용 방법과 같은 중요한 내용이 일반 사용자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시트르산 수화물’과 같은 내용과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이는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구분되지 않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10 (나)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방식보다 익숙한 방식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인지적 특성으로 인해 외부에서 보기에 성격이 완고해진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 11 (라)에서 고령자는 시선이 오래 머물러 한 번에 파악하는 정보의 ‘분량(㉔)’이 많은 대신, 시선 ‘이동(㉕)’의 횟수는 적은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읽는 과정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는 역행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안구 도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글자를 지나치게 키워 ‘행갈이가 자주 일어나면(㉖)’ 읽기 흐름이 끊기게 되고, 이는 인지와 기억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 12 화이트 스페이스는 텍스트 주위의 흰 공간을 의미한다. (마)에서는 화이트 스페이스가 많으면 읽기는 편해도, 전체적인 텍스트의 짜임새가 느슨해 보여 디자인이 세련되어 보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 13 이 글과 <보기>의 두 제재는 모두 인간과 사회, 환경을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삶이라는 공통 주제로 통합적으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제재 수집 이전의 대화는 환경 문제, 공동체 가치,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세 글을 아우르는 문제의식이나 학습 경험을 드러내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효율적인 발전 방향’은 환경 보호, 공동체적 가치, 사용자 및 약자 배려라는 세 제재의 핵심과 연결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 오답 풀이 |**
- ①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질문은 세 제재가 공통으로 다루는 문제의식을 포괄하므로 적절하다.
- ② 지구 온난화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과학적 학습 경험은 재생 에너지를 다룬 제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 ③ 공동체와 인권에 대한 사회 교과 학습 내용은 도시 건축 디자인과 고령자 배려의 관점과 연관된다.
- ④ 모든 존재가 서로 돕는다는 인식은 환경 보호, 공동체 가치, 사회적 약자 배려를 아우르는 관점으로 적절하다.

01 ⑤ 02 ④ 03 화석 에너지가 배출한 이산화 탄소가 지구에 온실 효과를 가져와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 04 ⑤ 05 ③ 06 ③ 07 ② 08 중요한 정보만이라도 요약해 주목하게 하여 위계를 차별화한다. 09 ④ 10 ③ 11 ④ 12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01 이 글은 산업 혁명 이후 화석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인한 기후 변화 문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재생 에너지, 특히 태양 에너지의 필요성과 태양 전지의 작동 원리 및 활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한 재생 에너지의 필요성과 그 원리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한 글이라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 ① (다)에서 태양 전지의 작동 원리와 재료, 활용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태양 전지의 발전 과정을 설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② 기후 위기와 같은 산업 발전이 초래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으나, 이에 관해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고 있지 않다.
- ③ 이 글에서 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시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이 글에서 글쓴이의 개인적 체험은 찾아볼 수 없다.

02 (나)에서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약 30%가 우주로 반사되고, 나머지 약 70%는 사용할 수 있는 잠재량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현재 인류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의 약 70%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지는 않았다.

03 이 글의 필자는 화석 에너지 사용 증가로 이산화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 기후 변화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후 변화를 인류와 지구의 공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필자가 생각하는 화석 에너지의 문제점을 인류와 지구의 공존의 측면에서 적절히 썼다.	☐
화석 에너지의 사용이 지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원인(이산화 탄소의 발생)과 결과(지구의 온실 효과 및 기후 변화)가 드러나게 썼다.	☐

04 필자는 (다)에서 수원 시청 앞 버스 승강장에 자동 접이식 의자를 설치한 것을 사용자를 배려한 ‘가꿈’의 예시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거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므로,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 05 (나)의 맥락상 ‘꾸미기’는 보살핌의 의미가 퇴색된 결과로 사람에게 대한 배려가 뒷전임을 드러내는 행위이다. 반면 ‘가꿈’은 사용자를 배려하여 계획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꾸미기’와 달리 사용자에게 대한 배려가 담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가꿈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 ② (다)의 사례를 통해 버스 승강장과 같이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가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가꿈’은 정성을 기울여 대상이나 공간을 보호하며 관심을 두고 지속해서 보살피는 일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와 다르게 도시와 건축을 단순히 관리만 하는 것을 ‘꾸미기’라고 하였다.
- ⑤ 가꿈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단순히 유지·관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대상이나 공간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개선하려는 실천을 의미한다.

- 06 ㉠의 ‘맞춰’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의 ‘맞추어’도 심사 기준에 부합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의 의미와 가장 가깝다.

| 오답 풀이 |

- ① ‘일정한 규격의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주문을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② ‘열이나 차례 따위에 맞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④ ‘다른 어떤 대상에 닿게 하다.’의 의미로 쓰였다.
- ⑤ ‘서로 어긋남이 없이 조화를 이루다.’의 의미로 쓰였다.

- 07 이 글에서는 고령자의 시력과 인지 방식, 안구 도약 특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지 심리학 및 시선 추적 연구를 수행한 전문가의 연구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젊은 독자의 읽기 방식 차이를 설명하면서, 전문가인 키스 레이너(Keith Rayner)의 실험 결과를 통해 글자 크기 확대의 한계와 이에 기반한 타이포그래피 설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필자의 경험이 아니라 연구 결과와 분석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③ 해외 사례를 통해 문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④ 유사한 연구 결과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기보다는 특정 연구를 중심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 ⑤ 여론이나 일반 독자의 반응을 직접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 08 (마)에서는 의약품 설명서와 같이 정보가 많은 텍스트일수록 지면 공간을 확보하고, 중요한 정보는 요약하여 주목하게 만드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는 [A]에 나타난 가독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든 정보를 동일하게 제시하는 대신 중요한 정보를 요약하고 강조하여 정보의 위계를 분명히 구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식은 가독성 측면에서의 사용자의 불편함을 줄여 준다.

평가 기준	확인 ☒
고령자를 위한 타이포그래피의 개선 방향으로 중요한 정보에 주목하게 하여 위계를 차별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썼다.	☐
한 문장으로 썼다.	☐

- 09 텍스트의 짜임새가 느껴져 보여 디자인이 세련되지 못하다는 것은 화이트 스페이스를 늘렸을 때의 한계이므로 ㉠에 대한 필자의 반론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필자는 ‘글자 크기는 클수록 좋다’는 인식에 대해 고령자의 안구 도약 특성과 인지 과정을 바탕으로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 10 ‘안구 도약 운동’은 텍스트를 읽을 때 글자 단위가 아닌 덩어리 단위로 시선이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필자는 젊은 독자와 70세 이상 독자의 안구 도약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글자 크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11 ㉠은 개요를 작성하며 내용을 조직하는 단계이다.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은 ‘서론-본론-결론’의 구조로, 원리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처음-가운데-끝’의 구조로 내용을 조직한다. 이처럼 작성하고자 하는 글의 유형에 따라 글의 구조가 다르므로 글의 유형에 맞는 적절한 개요를 작성하여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 12 ‘학습을 위한 글 쓰기’는 학습 목적과 교과 특성에 따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재구성하는 글쓰기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나아가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고 진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표현 방법의 측면에서 자신의 관점과 의견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진로 탐색의 측면에서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고 진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썼다.	☐
각각 한 문장으로 썼다.	☐

대단원 평가 문제

01 ② 02 ③ 03 인쇄 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 속도는 떨어지지만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04 ⑤ 05 ④ 06 ③ 07 ㉠, 카드 뉴스는 시각 자료가 주가 되어야 하는데 줄글을 슬라이드에 꼼꼼하게 채워 넣으면 가독성을 저해하고 정보 전달력을 낮추기 때문이다. 08 ③ 09 ⑤ 10 ④ 11 ① 12 ② 13 ⑤ 14 ⑤ 15 ㉡ 글자가 지나치게 커지면 행 길이가 잦아져 내용 파악에 방해가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⑥ 흰 공간이 부족해지면 눈에 피로를 주어 가독성이 저하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16 ⑤

01 이 기사는 서울특별시 1인 가구 3,0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혼자 생활하는 것의 장단점 및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실태를 전달하고 있다.

02 이 기사의 전문(서울특별시에 사는 ~ 계획을 밝혔다.)에서는 기사의 핵심을 요약하여 전달하고 있다. 전문에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두 집단의 입장을 나란히 서술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기사의 표제(서울특별시 1인 가구 5분의 1 “난 끝까지 혼자 살린다”)에서, “난 끝까지 혼자 살린다”와 같이 1인 가구의 생각을 인용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서울특별시 1인 가구의 5분의 1이 앞으로 평생 혼자 살아가겠다고 답한 기사의 핵심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② 이 기사의 부제(3,079명 대상 ~ 만족)에서 ‘3,079명’, ‘86.2%’와 같은 구체적 수치를 밝혀 표제의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

④ 본문에서 ‘2022년 서울특별시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를 보여 주는 그래프를 제시하여 2021년 1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가 4년 전에 비해 높아졌음을 한눈에 보여 주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본문에서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의 장점과 어려움, 중장년 1인 가구의 주거 실태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1인 가구의 실태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려 하고 있다.

03 인쇄 매체는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로, 시각 자료와 함께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한다. 인쇄 매체는 일반적으로 정보 제공의 속도는 떨어지나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평가 기준	확인 ☑
인쇄 매체의 특징을 ‘정보 제공의 속도’ 측면에서 적절하게 썼다.	☐
인쇄 매체의 특징을 ‘내용의 깊이’ 측면에서 적절하게 썼다.	☐

04 (가)는 방송 매체, (나)는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전달되는 뉴 미디어 매체 자료이다. (나)의 누리 소통망(SNS)은 문자 언어, 음성 언어, 영상, 음향, 하이퍼링크 등의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정보를 구성하는 복합양식성을 띤다. 따라서 (나)가 (가)와 달리 여러 양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방송 매체를 통해, (나)는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②, ④ (가)는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인 ‘방송 매체’로 전달되는 자료이다. 방송 매체는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나)와 달리 자본과 전문적 기술이 없는 주체가 생산자로 참여하기 어렵다. 또한 전통적인 대량 전달 매체는 정보가 수용자에게서 생산자에게로 일방향적으로 전달된다는 특징을 지닌다.

③ (나)의 누리 소통망(SNS)은 정보가 일방향적으로 흐르는 방송 매체와 달리 댓글, 채팅과 같은 기능을 통해 정보의 수용자가 생산자에게 실시간으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05 (가)에서 인물들의 대사가 일상적인 표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맞으나, 이를 통해 다문화 구성원이 겪는 소통의 어려움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가)는 일상적인 언어 표현으로 일상생활 속 다양한 상황을 연출하며, 다양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06 (나)에서는 환경부 누리집 주소를 하이퍼링크로 제시하여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ㄱ). 또한 게시물에 텀블러 이미지를 크게 제시하여 게시물의 주된 화제가 텀블러와 관련된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하고 있다(ㄴ). 나아가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환경부’, ‘#지구를지키는여행법’ 등의 해시태그를 제시하여 사용자가 게시글의 핵심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ㄷ).

| 오답 풀이 |

ㄷ. 이 게시물에서 텀블러의 이미지가 크게 제시되어 있으므로 시각적 요소보다 상대적으로 줄글의 비중을 높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나)에 제시된 줄글에 신뢰성과 타당성을 판단할 만한 뚜렷한 정보도 나타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07 <보기 1>에 나타난 매체 자료 제작 계획을 고려할 때, 제작할 매체가 학교 누리 소통망(SNS)에 게시될 카드 뉴스이므로 ㉠과 같은 표현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카드 뉴스는 사진이나 그림과 같은 시각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므로, 글의 분량은 최소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모든 슬라이드에 줄글을 꼼꼼하게 채워 넣으면 가독성도 떨어질 뿐더러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지 못해 독자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

평가 기준	확인 ☒
적절하지 않은 표현 방법으로 ㉠을 정확하게 찾아 썼다.	☐
㉠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카드 뉴스의 특성과 관련지어 적절하게 썼다.	☐

- 08 (나)에서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의 주인공은 건강한 습관을 만들고 자신을 대충 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돌보는 방법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나)의 매체는 '웹툰'으로, 웹툰은 이미지와 함께 줄글, 말풍선을 활용해 내용을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다.
 ② (나)에서 '건강한 습관 만들기', '대충대하지 않기'와 같은 일상 습관을 제시해 '자신을 돌보는 방법'이라는 주제에 대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전달하고 있다.
 ④, ⑤ (나)는 부드러운 그림체와 부드러운 서체를 활용해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예상 독자는 자료의 내용을 더욱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 09 매체 자료를 제작하는 단계에서 주제를 선명하게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사안의 다양한 측면보다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정보를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는 관점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에는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관점에서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 10 주제 통합적 읽기의 목적은 상충하는 관점들을 절충하여 보편 타당한 결론으로 귀결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이를 재구성하며 자신의 관점과 의도를 주도적으로 생성하는 것이다.

- 11 (가)에서는 '화석 연료에서 방출되는 ~ 약 0.7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21세기 말에는 ~ 약 1.4~5.8도 높아질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와 같이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여 화석 연료가 야기하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나)와 (다)에서는 객관적 통계 수치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 주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

- ② (나)에서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관찰하여 문제의 근본 원인을 밝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가)에서는 지구의 해수면 상승 과정을 예상하는 부분이 있으나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관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다) 역시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으로 파악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③ (나)에서 '아기를 보살피듯'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공간을

가꾸는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가)와 (다)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나)와 (다)는 과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가)에서 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과학 기술을 통해 환경 문제를 줄이는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⑤ (가), (나), (다) 모두 실제로 있었던 과거의 사례를 제시한 뒤 그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 12 (가)~(다)는 모두 '공존'이라는 화제에 관해 다양한 형식으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는 객관적 내용을 담은 설명문의 형식, (나)는 객관적인 정보보다는 필자의 주관적인 관점과 의견이 두드러지는 중수필의 형식, (다)는 가독성을 고려한 타이포그래피로 고풍자와의 공존을 주장하는 논설문의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가)~(다)가 모두 설명문의 형식으로 화제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13 (가)에서 21세기 말에는 지구 평균 표면 온도의 상승으로 바닷물의 열팽창이 일어나 해수면이 약 0.5m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2100년 이후 혹은 그보다 더 빠른 시기에 남극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즉 (가)에서는 바닷물의 열팽창과 남극 빙하의 용해를 해수면 상승의 서로 다른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두 현상 사이의 인과 관계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 ① 화석 연료에서 방출되는 막대한 이산화 탄소는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해 바닷물이 열팽창하여 해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화석 연료에서 방출된 이산화 탄소가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시켰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② 제시된 그래프에서 1916년 약 1,380Mtoe였던 전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이 2016년 약 13,800Mtoe로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016년 기준으로 전 세계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00년 전에 비하면 약 10배 늘어났다. 이렇게 늘어난 에너지 소비량의 대부분은 석탄과 석유가 차지하고 있으며'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온실 효과는 대기 중의 수증기, 이산화 탄소, 메탄 등이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파장이 긴 원적외선을 지구 표면 가까이에 가두는 것이다.'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14 <보기>의 사례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컴퓨터 의자를 방지하여 휠체어가 통행할 여유 공간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는 휠체어 이용자의 편의를 충분히 배려하지 않고 공간을 관심을 기울여 보살피지 않은 것에 해

당한다. 따라서 이는 공간에 대한 소홀함을 보여 주는 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③, ④ <보기>에서 권고 규격이 아닌 최소 규격만 맞추어 설치된 경사로를 휠체어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므로 경사로를 설치한 것은 사용자의 편의성과 안전을 충분히 배려한 계획 또는 결과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화려한 조명을 활용한 조형물 설치의 공간의 시각적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공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돌보는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 (나)의 필자가 말하는 '정성을 다해 공간을 보살핀 사례'로 보기 어렵다.

- 15 (다)에서 고풍자는 오래 시선을 고정하고 역행이 잦아서, 글자가 지나치게 커지면 행갈이가 자주 일어나 안구 도약의 흐름이 끊기고 인지·기억에 방해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중요도와 관계없이 모든 정보의 글자 크기를 동일하게 크게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다)에서는 텍스트 주위의 화이트 스페이스가 눈을 편안하게 하여 읽기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여백을 줄여 지면을 조밀하게 구성하는 것은 안구의 휴식을 방해하여 가독성을 저하시키므로 적절하지 않다.

평가 기준	확인 ☒
글자 크기와 관련하여 ㉔의 문제점을 한 가지 이상 적절하게 썼다.	☐
흰 공간(화이트 스페이스)과 관련하여 ㉔의 문제점을 한 가지 이상 적절하게 썼다.	☐
각 문제점을 주어진 형식에 맞춰 썼다.	☐

- 16 '학습을 위한 글 쓰기'는 학습의 목적이나 교과와 특성에 따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의미를 재구성하는 글 쓰기 방법이다. <보기>에서 현우는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기준에 알고 있던 대류의 조건과 비교하여 재해석하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글을 쓰고 있다. 즉 현우는 교과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비교와 재구성을 통해 의미를 능동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는 학습 과정이나 사용한 전략을 되돌아보며 평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보기>의 글쓰기는 타인에게 설명하거나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학습 내용을 스스로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③ <보기>에서는 대류 조건과 성층권의 특성을 비교하여 재해석하고 있을 뿐, 여러 근거를 제시해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보기>의 정리는 핵심 요약이 목적이 아니라 개념 간 관계를 중심으로 의미를 재구성하는 데에 초점이 있다.

수능 독서 만나기

본책 206~207쪽

독서 01

01 ⑤ 02 ① 03 ② 04 ③

+ 지문 분석하기

주제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칸트의 견해와 그에 대한 비판
특징	•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칸트의 견해를 기준으로, 이를 비판·보완하는 스트로슨과 롱게네스의 의견을 제시함. • '자기의식'(칸트)과 '경험·신체'(스트로슨·롱게네스)를 대비하여, 인격의 동일성에 대한 기준을 비교·대조함.

- 01 롱게네스는 시공간적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는 것들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신체가 있고 살아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롱게네스에 따르면 살아 있다는 것은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의 선택에서 필수적이다.

| 오답 풀이 |

① 칸트는 자기의식은 인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일 뿐, 그 조건 자체는 '영혼의 실재'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② 칸트는 생각의 구성은 시간의 흐름을 따르며 이러한 구성이 성립하려면 통시적으로 동일한 인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다.

③ 스트로슨은 자기의식이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라는 칸트의 견해는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④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보고, 시공간적 세계 안에서 우리의 신체를 매개로 대상이 경험된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보았다.

- 02 칸트는 첫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과 두 번째 전제에서의 '의식'이 실재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또한 칸트는 첫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 의식한다는 뜻이지만, 두 번째 전제에 등장하는 '의식'은 무언가가 꼭 실재함을 뜻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A]에 드러난 칸트의 견해를 통해, '두 전제'를 연결하는 개념인 '의식'이 실재성과 관련하여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른 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견해는 4번째 문단에 나타난 칸트의 의견으로, 5번째 문단에서 스트로슨에 의해 반박되고 있다. 따라서 [A]에서 '복수의 주관이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된다.'라는 가정에 대한 반박을 찾을 수 없다.

③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은 2번째 문단에 나

탄난 칸트의 견해이며, 칸트는 이와 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A]에서 '영혼이 곧 인격이다.'라는 견해를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영혼이 실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 납득할 수 없는 견해인 근거를 [A]에서 찾을 수 없다.

④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하는 대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여러 주관을 하나의 인격으로 인식한다는 가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A]에서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직접 증명'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여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⑤ '영혼이 자기의식을 한다.'라는 전제가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와 같은 의미이기는 하지만, [A]에서 이 두 전제가 다름없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03 스트로슨은 자아에 대한 인식은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들로부터 추상화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시공간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적 인식은 자아에 대한 인식에 의존한다고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스트로슨이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이 경험적 인식의 방식과 구별된다는 칸트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한 것을 통해, 칸트는 자아를 인식하는 방식과 시공간적 세계의 대상들을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방식은 다르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③ 롱게네스가 자아에 대한 인식은 경험으로부터 추상화된 것이 아니라고 본다는 점에서, 롱게네스는 경험으로부터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나', 즉 자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롱게네스가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 존재라는 칸트의 견해를 인정한다고 한 점에서, 칸트와 롱게네스 모두 도덕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율성을 지닌다는 것을 수용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칸트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을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하는 가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점에서, 그가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전제로 수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트로슨이 시공간적 세계에서의 경험이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한 점을 통해 그가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롱게네스가 통시적으로 동일한 자아가 없는 경험적 인식이 성립할 수 없고 인격 동일성의 기준을 통시적으로 인식되는 자기 신체에 둔다고 주장한 점에서, 롱게네스 역시 '시간의 흐름 속 동일한 인격으로서의 나'라는 개념을 전제로 삼고, 그 기준을 신체에 두는 방식으로 인격 동일성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칸트 이전까지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견해는 '생각하는 나'인 영혼이 단일한 인식의 주체로서 시간의 흐름 속에 지속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생각하는 나'

의 지속만으로는 인격의 동일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갑의 입장은 옳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자아와 인격은 시공간적 세계를 실제로 경험하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갑 역시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인격일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만으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견해는 갑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스트로슨은 인격을 의식과 신체의 복합체로 보았다. 이와 달리 을은 프로그램으로 재현된 의식은 신체가 없지만 본래의 자신과 동일한 인격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신체를 지니지 않은 존재에게 인격이 귀속될 수 없다는 견해는 을의 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칸트는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을 직접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시간의 흐름 속에서 마주치는 복수의 주관을 동일한 인격으로 인식한다는 가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칸트의 관점에서 인격의 통시적 동일성이 아무런 가정 없이 단지 사고기능의 동일성만으로 판단된다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⑤ 롱게네스의 견해에 의하면, 자아와 인격은 시공간적 세계를 경험하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개념이다. 따라서 롱게네스의 관점에서 인간과 상이한 존재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고기능을 인격 동일성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 을의 입장은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책 208~209쪽

독서 02

01 ① 02 ② 03 ② 04 ③

+ 자료 분석하기

주제	자기표현과 관련하여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법적 책임의 여부
특징	-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본 리프킨의 입장과 관련하여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표현 문제를 제기함. -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 훼손이나 모욕의 법적 책임 유무에 대한 논란을 다룸.

01 표면 연기는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표현이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 주는 자기표현이므로 형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②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표현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③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ID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 나는 것이 가상 공간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고 했으므로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여 현실에서 위촉된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할 수 있고,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낸다고 했다. 따라서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익명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⑤ 자기 정체성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데, 현실과 마찬가지로 가상 공간에서도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므로 자기 정체성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02 ㉠은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ID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은 인터넷 ID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ID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으로 보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은 자기 정체성을 일원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지 않을 것이다.

③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현실 세계의 자기 정체성이 상호 작용한다고 보는 것은 ㉠이 아니라 ㉡의 입장이다.

④ ㉠은 인터넷 ID가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일 뿐이라고 했으므로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⑤ ㉠은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사용자 개인의 정체성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인터넷 ID를 그 사용자인 개인을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로만 보기 때문에 인터넷 ID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03 ㉢에 따르면 인터넷 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A는 b가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특정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A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는 실명을 거론한 경우든, 거론하지 않은 경우든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따라서 <보기>의 B는 a의 실명을 밝혔으므로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C가 작성한 댓글을 통해 a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C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는 주위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므로 b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있게 한 A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에 따르면 A는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는 인터넷 ID를 언급하며 B를 모욕했으므로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에 따르면 지목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A의 실명을 언급한 B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에 따르면 B는 A의 실명을 언급하며 A를 모욕했으므로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⑤ C는 인터넷 ID인 a를 언급했지만 이것만으로는 a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 ㉢은 C에게 명예 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은 인터넷 ID가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인터넷 ID인 a만 언급했어도 C에게 가해자로서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볼 것이다.

04 ‘표출(表出)되다’는 ‘겉으로 나타나다.’라는 의미이므로 ㉢ ‘나타나다’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완성(完成)되다’는 ‘완전히 다 이루어지다.’라는 의미이므로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라는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② ‘요청(要請)하다’는 ‘필요한 어떤 일이나 행동을 청하다.’라는 의미이므로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낸다는 ㉢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④ ‘기만(欺瞞)하다’는 ‘남을 속여 넘기다.’라는 의미이므로 남이 모르게 한다는 ㉢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⑤ ‘확충(擴充)되다’는 ‘늘어나고 넓어져서 충실하게 되다.’라는 의미이므로 사이버 폭력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본책 210~211쪽

독서 03

01 ㉠ 02 ㉢ 03 ㉡ 04 ㉡

➤ 지문 분석하기

주제	경마식 보도의 특성과 보완 방법
특징	경마식 보도에 따른 선거 방송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함.

01 경마식 보도는 정치에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 정치 참여를 독려하는 장점이 있다.

| 오답 풀이 |

- ① 경마식 보도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증가한다. 즉 선거 기간의 전반기가 아닌 후반기에 더 많다.
- ② 경마식 보도는 새롭고 재미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매일 새로운 뉴스를 제공해야 하는 방송사의 방편이 될 수 있어 시청자와 방송사 모두를 만족시킨다. 따라서 상반된 이해관계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득표율 예측'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을 후보를 예측하는 것으로 이는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이다. 따라서 당선자 예측과 관련된 정보의 전파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경마식 보도는 흥미를 돋우는 데 치중하여 선거의 주요 의제를 도외시키고 경쟁 결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닌다. 따라서 선거의 핵심 의제에 관한 후보자의 입장을 다룬 보도를 중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2 헌법 재판소에서 논의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선거 방송 토론회의 초청 대상자를 한정하는 규정이 선거 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을 침해하는지의 두 가지이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지를 논의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 ① 헌법 재판소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 조사 결과일지라도 선거일에 임박한 보도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의 보도 금지 규정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여론 조사의 결과를 보도하더라도 선거의 공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 ② 선거 방송 토론회의 초청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둘째, 언론 기관의 여론 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 후보자 등이 있다. 따라서 정당의 추천을 받지 못해도 언론 기관의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다.
- ④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 조사의 결과 보도는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되므로 마감 시작 이후에 보도가 가능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은 「공직선거법」에 속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토론회 초청 후보자에 제한을 둔다. 이 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따르면 이는 선거 운동의 기회가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03 선거 방송 토론회의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의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에 대해 ㉡(다수 의견)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며, ㉢(소수 의견)는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침해가 있다고 본다. 정치 신인에 대한 차별적인 침해가 일어났으므로 ㉡의 입장이 약화되고 ㉢의 입장이 강화된다.

| 오답 풀이 |

- ① ㉢는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 수가 너무 많으면 제한된 시간 안에 심층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권자들도 후보자들을 비교하기 어려우므로 토론회에 참여하는 후보자 수를 제한하는 것에 찬성한다. 그러므로 시간의 제한과 참여 후보자의 수가 심층 토론을 하지 못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면 ㉢의 입장은 약화될 수 있다.
- ③ ㉢는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자의적인 침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적정 토론자의 수를 제한하는 기준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 입장은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
- ④ ㉢는 선거 방송 토론회 규정이 토론회에 참여한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를 차별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어떤 후보자가 별도 토론회에서 뛰어난 정치 역량을 보여 주었음에도, 별도 토론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차별적 인식을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의 입장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유권자들이 뛰어난 역량의 소수 정당 후보자를 주요 후보자와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선거 방송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라고 할 때, ㉢는 그 기회를 일부 후보자에게서 박탈하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4 2차 조사 결과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은 오차 범위(8.8%p) 이내이다.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라고 보도하는 것은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있으나 이를 밝히지 않고 두 후보의 우열을 드러내는 것이므로, ㉠와 ㉡ 모두를 위배한다.

| 오답 풀이 |

- ① 1차 조사 결과는 A, B, C 후보 각각의 지지율 차이가 모두 오차 범위 밖이고, 조사일은 선거일 15일 전이다. 따라서 이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결과 보도가 금지된 ㉡에 위배되지 않고, 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에 이를 밝히지 않고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금하는 ㉣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 ③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보도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 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에 위배된다. 그리고 3차 조사 때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 차가 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A 후보가 1위라고 후보 간 우열을 나타내어 보도하는 것은 ㉡에 위배된다.
- ④ 1차 조사는 모든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인 상태로 A 후보가 1위, B 후보가 2위, C 후보가 3위이다. 그러므로 이 조사 결과는 선지에서처럼 우열을 드러내어 밝히더라도 ㉣을 위배하지 않는다. 그러나 2차 조사 결과는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두 후보의 우열을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에 위배된다.

㉔ 2차 조사 결과 A 후보와 B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로 조사 결과를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㉔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3차 조사 결과를 선거일 4일 전에 같은 표현으로 보도하는 것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의 여론 조사 결과의 보도를 금지하는 ㉔에 위배된다.

본책 212~213쪽

독서 04

01 ㉔ 02 ㉔ 03 ㉔ 04 ㉔

지문 분석하기

주제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와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화
특징	-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 신뢰도 간의 모순을 지적한 트리핀 딜레마를 알기 쉽게 소개함. - 브레턴우즈 체제의 성립과 위기, 그리고 이후의 붕괴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함.

01 트리핀은 미국의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 고정 환율 체제인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그 이후 세계 경제 위축은 전망하지 않았다. 트리핀이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언급한 것은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았을 때를 전망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㉔ 4번째 문단에서는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고 밝히며,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들고 있다. 즉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한 것이다.

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하는 의무를 수행했다.

㉔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였는데,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금과 달러화임을 알 수 있다.

㉔ 1번째 문단에서 미국의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된다고 하였다. 또한 3번째 문단에서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면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됨에 따라 금 태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하였다. 그러자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는데, 이는 달러화의 신뢰도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즉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미국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달러화의 과잉 공급이라고 할 수 있다.

02 평가 절상은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것이다.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일정 금액의 마르크화에 대응하는 달러화의 금액은 기존보다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증가할 것이다.

| 오답 풀이 |

㉔ 1970년대 초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의 누적으로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금 준비량이 급감했는데, 이때는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금 1온스는 35달러로 그 가치가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달러화의 고정 평가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를 해야 했으나,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하였다. 결국 닉슨 쇼크의 단행으로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되면서, 이후에는 달러화의 고정 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을 것으로 볼 수 있다.

㉔ 3번째 문단에 따르면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 누적으로 인한 달러화 과잉 공급으로,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야 하는 문제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하였다. 이에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들은 마르크화와 엔화를 투기적으로 사들인 것이다. 따라서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평가 절상을 예상하여 이를 통해 얻을 이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㉔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였고,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인해 달러화가 추가되었다. 즉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도 금은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하였으므로, 금의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 국제 유동성 공급량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트리핀 딜레마와 관련하여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상황을 완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㉔ 트리핀은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경우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될 것이며, 반대로 달러화가 과잉 공급(국제 유동성 공급량을 무한정 늘림)될 경우 달러화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이라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했다. 즉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03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할 때, ㉔에서는 미국을 제외한 'A국-B국'의 교차 환율 1개가 존재한다. ㉔에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고 하였으므로, 환율의 가짓수는 '미국-A국', '미국-B국', 'A국-B국'의 3개이다. 따라서 ㉔에서 교차 환율 가짓수는 ㉔에서 생기는 환율 가짓수보다 적다.

| 오답 풀이 |

① ㉠에서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며, 이에 따라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와 같다.

② ㉡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의 상황은 변함이 없으므로, ㉡이 붕괴된 이후의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의 교차 환율의 가짓수와 같을 것이다.

③ ㉢에서 환율의 가짓수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생긴다고 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 즉 미국과 A국, B국이 있을 경우 환율의 가짓수는 '미국 - A국', '미국 - B국', 'A국 - B국'으로 3개이다. 그런데 여기서 C라는 국가 수가 하나 증가하면 이에 대한 환율은 '미국 - A국', '미국 - B국', 'A국 - B국'을 포함하여, '미국 - C국', 'A국 - C국', 'B국 - C국'이 추가돼 환율의 총 가짓수는 6개가 된다. 따라서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와 같으므로, 달러화를 사용하는 미국도 포함된다. 그런데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교차 환율은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의 환율이므로, 달러화를 사용하는 미국은 제외된다. 따라서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질 것이다.

04 <보기>에서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고 하였다. C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은 B국 통화의 환율 하락 폭에 비해 작으므로, 합의 이후 B국 통화의 가치는 C국 통화의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게 평가될 것이며,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B국에 대한 C국의 수출은 증대되고 수입은 줄어들어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을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1번째 문단을 통해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이유는 해당 통화의 과잉 공급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기>의 A국은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의 감소가 일어났다고 하였으므로,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즉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다.

② <보기>에서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은, 결국 B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한 것이며 A국 통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 것이다.

③ <보기>에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이 50% 하락했고, A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30% 하락했다고 하였

다. B국 통화가 C국 통화보다 A국 통화에 대한 환율이 더 크게 하락했다는 것은, 반대로 그 화폐의 가치가 더 크게 상승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국 통화에 대한 환율의 하락 폭이 더 큰 B국 통화의 가치는 C국 통화의 가치보다 더 상승한 것이므로,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상승하였을 것이다.

⑤ <보기>를 통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이러한 금리 인상은 통화 공급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통화 공급이 감소된다는 것은 통화의 가치가 상승된다는 것이며, 이는 환율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킬 경우, B국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므로 B국은 A국에 더 많은 물건을 수출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A국의 경상 수지 적자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따라서 A국의 경상 수지를 악화하기 위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본책 214~215쪽

독서 05

01 ⑤ 02 ③ 03 ①

+ 자료 분석하기

주제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른 열팽창 현상과 액추에이터 설계
특징	• 열팽창, 선형 열팽창 계수, 곡률, 곡률 반지름, 휨 민감도, 액추에이터 등 과학·공학의 개념을 정의함. • 변화량, 변화율, 역수 등 수학적 개념을 이용해 물리 현상을 수치화하여 제시함.

01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의 시간인 반응 완료 시간은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짧다. 따라서 서로 다른 물질을 두께가 같은 두 층으로 접합해 만든 띠의 온도를 올릴 때, 띠의 두께가 얇을수록 힘이 빨리 완료된다.

| 오답 풀이 |

① 물체의 온도 변화에 따라 그 길이와 부피가 변화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한다.

②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다. 열을 가한 뒤 길이의 변화량을 열을 가하기 전의 길이로 나눈 값은 길이 변화율이다.

③ 대부분의 물질은 선형 열팽창 계수가 양수이다.

④ 액추에이터는 열에너지 등을 기계적 동작으로 변환하는 장치이다.

02 선형 열팽창 계수는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율을 온도 변화량으로 나눈 값이고, 두 물질에 같은 온도 변화를 주었을 때 선형 열팽창 계수가 큰 물질의 길이가 더 많이 변한다. 따라서 두 물질을 접합하여 두 층으로 이루어진 띠를 만들고 온도를 올렸을 때 띠는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은 물질 쪽으로 휘다고 추론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 ① 온도에 따른 길이 변화율은 길이의 변화량(나중 값-처음 값)을 처음 길이로 나눈 것이다. 선형 열팽창 계수가 음수인 물질이 있다면 온도가 변화하였을 때 처음 값보다 나중 값이 작을 것이므로 길이가 줄어든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② 인바는 알루미늄에 비해 선형 열팽창 계수가 작으므로, 같은 온도 변화에서의 길이 변화가 작다. 따라서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부품에는 알루미늄보다 인바가 적합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④ 길이 변화율은 변화량(나중 값-처음 값)을 처음 길이로 나누어 얻는 값이므로 열팽창으로 길이가 늘어난 두 물체의 길이 변화량이 같다면, 팽창 전의 길이가 더 긴 물체의 길이 변화율이 더 작다고 추론할 수 있다.
- ⑤ 띠가 휨수록 고정되지 않은 끝의 이동 거리는 커지며 이 값은 띠의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띠의 길이가 길면 그만큼 더 많은 구간이 구부러져 최대 이동 거리가 커지므로, 같은 곡률로 휘었다면 길이가 긴 띠의 끝의 이동 거리가 더 길다고 추론할 수 있다.

03 집게 A는 T_1 에서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지만 T_2 에서는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집게 B는 T_1 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고 T_2 에서도 물체를 잡을 수 있었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보다 T_1 에서 T_2 로 올렸을 때의 곡률이 더 크다.

| 오답 풀이 |

- ② T_1 에서 집게 A는 물체를 잡을 수 없었으므로, 같은 온도에서 더 많이 휨 집게 B보다 곡률이 작다. 따라서 a는 b보다 곡률이 작고 곡률은 곡률 반지름의 역수이므로 a의 곡률 반지름은 b의 곡률 반지름보다 크다.
- ③ 반응 완료 시간은 온도를 올리기 시작한 시점부터 띠의 끝이 최대 이동 거리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간이고, a와 b의 두께와 길이는 같다. 따라서 온도를 T_0 에서 T_1 로 올렸을 때 집게 A와 B 각각의 동작이 멈추는 데 걸린 시간이 같다면 a와 b의 반응 완료 시간은 같다.
- ④ 집게 A는 T_2 에서 물체를 잡을 수 있었으므로, T_2 에서 a의 이동 거리가 물체를 잡는 데 필요한 이동 거리에 도달했다. 그런데 집게 B는 T_1 에서도 이미 물체를 잡을 수 있었으므로, T_2 에서는 a보다 휨 정도가 클 것이다. 따라서 T_2 에서 b의 최대 이동 거리가 a의 최대 이동 거리보다 더 크다.
- ⑤ 힘 민감도가 크다는 것은 같은 온도 변화량에서 띠가 더 심하게 휨을 의미한다. 따라서 B와 달리 T_2 가 되어야 집게 A가 물체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a가 b보다 힘 민감도가 작기 때문이다.

독서 06

01 ③ 02 ① 03 ⑤ 04 ③

+ 지문 분석하기

주제	기계 학습의 원리와 확산 모델
특징	• 인공 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의 기본적 원리에 대해 설명함. •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순확산 과정과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며 원본 이미지를 복원하는 과정인 역확산 과정을 설명함. •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에 따른 확산 모델의 이미지 출력 과정을 단계적으로 제시함.

01 이 글에서는 노이즈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도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사용되는 노이즈의 종류가 모델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 ① 확산 모델을 구성하는 노이즈 예측기는 지도 학습을 통해 학습하므로, 확산 모델이 지도 학습을 사용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지도 학습 방법이 확산 모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다.
- ② 확산 모델은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이라는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두 과정 중 어느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지 살피면서 읽는 것은 적절하다.
- ④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수치들이 잠재 표현이며, 노이즈 예측기는 이 잠재 표현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또한 발생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서 잠재 표현을 바탕으로 더해진 노이즈를 예측하므로, 노이즈 예측기가 노이즈를 예측하고 제거하는 원리를 이해하며 읽는 것은 적절하다.
- ⑤ 확산 모델은 노이즈 생성기, 이미지 연산기, 노이즈 예측기로 구성되기 때문에 이 구성 요소들이 순확산 및 역확산 과정의 노이즈 처리 과정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며 글을 읽는 것은 적절하다.

02 순확산 과정의 첫 단계로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가 만들어진다. 역확산 과정에서는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이즈 생성기가 작동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 ② 노이즈 예측기가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하는 것은 순확산 과정에서 일어남을 2번째 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미지 연산기는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에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지만, 노이즈 예측기는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할 뿐이므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 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므로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⑤ 역확산 과정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는 단계를 반복할수록 출력되는 확산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에 가까워지므로 점차 유사해진다고 볼 수 있다.

03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다. 따라서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는다고 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다른 특성의 노이즈가 생성되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② 노이즈를 예측할 때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잠재 표현을 활용하기 때문에 잠재 표현이 달라지면 예측되는 노이즈도 달라질 것이다.

③ 확산 모델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노이즈 예측기는 잠재 표현을 구하고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을 학습하므로,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노이즈의 특성은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해서 구하는 잠재 표현은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을 얻게 될 것이다.

04 이미지 연산기는 확산 이미지에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더하는 과정을 거쳐 노이즈 이미지를 만든다. 즉,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 입력되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보기>의 (가)에 원본 이미지인 ㉠이 입력되면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하여 확산 이미지를 출력할 것이다.

②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를 이미지 연산기에서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에 더하면 원본 이미지를 알 수 없는 ㉡과 같은 노이즈 이미지가 출력된다.

④ 역확산 과정에서 <보기>의 (가)에 ㉡과 같은 노이즈 이미지가 입력된다면 이미지 연산기는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를 제거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할 것이다.

⑤ 역확산 과정에서 <보기>의 (나)에 ㉡과 같은 이미지가 출력된다면, 이미지 연산기에는 노이즈 예측기가 예측한 노이즈가 입력되고 노이즈 이미지나 중간 단계의 확산 이미지에서 이 노이즈가 제거될 것이다.

독서 07

01 ① 02 ⑤ 03 ④

+ 지문 분석하기

(가)

주제	박제가와 이덕무가 내세운 북학론의 형성 배경과 견해 차이
특징	18세기 중국에 대한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함.

(나)

주제	18세기 후반 정점에 달한 청의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불안 요인
특징	• 18세기 후반에 나타난 중국의 경제적 번영과 위기를 대비하여 제시함. • 중국의 경제적 번영과 위기를 가져온 원인과 그로 인한 결과를 알기 쉽게 설명함.

01 (가)의 1번째 문단에서는 18세기 북학파들이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점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달라 북학론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견해의 형성 배경을 제시하였고, 2번째 문단에서는 청의 현실을 조선의 발전 방향이라고 보았던 박제가의 견해를, 3번째 문단에서는 청과 조선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자는 이덕문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가)는 18세기 중국에 대한 북학파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하면서 그러한 견해의 형성 배경 및 견해 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가)는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18세기 북학론 중,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를 차이점을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관점이 지닌 역사적 의의와 한계를 서로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나)는 명대 이래 경제 발전이 정점에 달했던 18세기 후반 중국의 사회상을 제시한 후, 당시 청의 번영이 19세기에 접어들 무렵 내외의 위기에 직면해 급속한 하락을 겪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사회상을 시대별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④ (나)는 18세기 후반 중국의 경제 발전 양상과 이후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사회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18세기 중국의 사상적 변화를 제시하거나 그러한 변화가 지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는 18세기 후반 중국을 다녀온 박제가와 이덕무의 견해가, (나)에는 18세기 후반 중국의 현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중국의 현실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2 이덕무는 평등견을 통해 청에 대한 찬반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청과 조선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고, 청과 조선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청과 조선은 구분되며,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평등견은 청에 대한 배타적 태도를 지양하고,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유지하자는 인식 태도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덕무는 평등견의 시각에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는 물론,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는 청의 제도와 조선의 풍토 모두 가치 있다고 여겼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등견을 조선의 풍토를 기준으로 삼아 청의 제도를 개선하자는 인식 태도로 볼 수는 없다.

② 이덕무는 평등견이라는 인식 태도를 바탕으로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였으며, 청과 조선은 구분되지만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이러한 평등견의 입장에서 이덕무는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그대로 인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평등견은 조선의 고유한 삶의 방식을 청의 방식대로 바꾸어 그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는 인식 태도로 볼 수 없다.

③ (가)의 3번째 문단을 통해 이덕무가 청과 조선 양쪽의 가치를 모두 평등하게 인정하였다는 것과, 청을 배우는 것과 조선 사람이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청과 구분되는 조선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덕무가 말한 평등견은 청과 조선의 가치를 평등하게 인정하는 것은 맞지만, 풍토로 인한 양쪽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 역시 인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이덕무가 말한 평등견은 청과 조선의 현실적 차이뿐만 아니라 양쪽 모두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가)의 3번째 문단에는 이러한 그의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 중국인의 외양이 만주족처럼 변화된 것을 보고 비통함을 토로하며 중화의 중심이라 여겼던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평등견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변화된 청의 현실 역시 그대로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인의 외양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는 것은 평등견의 인식 태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03 (나)에서는 은의 유입을 통해 은을 매개로 한 과세가 상품 경제의 발전을 자극하여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보기>에는 중국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한 은의 효용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은의 효용성을 간과한 당시 조선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담겨 있다. 따라서 <보기>에 제시된 은에 대한 평가는 은의 효용적 측면을 높이 사는 평가라 볼 수 있다.

수능 작문 만나기

본책 224~225쪽

작문 01

01③ 02② 03①

01 [초고]에서는 물 섭취 실태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자료 3>은 '□□ 병원 보고서'로 '출처'는 명확하지만, '연도'가 '2004년'으로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내용'도 한 국민의 물 섭취 현황에 대한 것으로, 올바른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작문 목적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가)와 (나)에 대해 모두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글쓰기 자료로 선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초고]에서는 '바람직한 물 섭취를 위해 유의할 점'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자료 1>의 '전문가가 권하는 물 섭취 방법'이라는 '내용'은 올바른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작문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이 자료를 (가)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글쓰기 자료로 선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② [초고]에서는 인터뷰를 통해 만난 학생들 대부분이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물을 단시간에 너무 많이 마시면 물 중독이 발생하여 위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료 2>의 '물 중독 사례'라는 '내용'은 물 섭취에 대한 많은 학생들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에 대해 '그렇다'라고 판단하고 글쓰기 자료로 선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초고]에서는 바람직한 물 섭취를 위해 유의할 점을 설명하고 있을 뿐, 수돗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자료 4>의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이라는 '내용'은 올바른 물 섭취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작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글쓰기 자료로 선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초고]에서는 1일 1인당 수돗물 사용량 현황에 대해 다루고 있지 않다. 또한 <자료 4>는 '출처'가 '환경부 연례 보고서'로 분명하지만, 해마다 발간되는 연례 보고서임에도 최근의 현황이 아닌 '2013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글쓰기 자료로 선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02 [초고]의 1번째 문단에서는 '물이 관절의 충격을 흡수하며, 장기와 조직을 보호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물이 인체 내에서 하는 역할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일 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드러나도록 서술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학생들은 물 섭취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인터

뷰를 통해 만난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고 답했다. '에서는 물 섭취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묻고 답하는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

③ '피로감이 커지고, 두통 또는 어지럼증에 시달리거나, 장기가 붓는 등'과 같이, 물 중독으로 인한 여러 증상의 다양한 정보들을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④ '연구 팀은 먼저 실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물 섭취 유무를 파악하며 과제 수행 능력을 측정했다. '에서는 '그런 다음', '이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물 섭취에 대한 실험 과정을 순서대로 제시하고 있다.

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신 경우는 ~과제 수행 능력이 뛰어나다.'와 '반면 일반적 생각과 달리 목마르지 않은 때 물을 마신 경우는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에서는 물 섭취에 대한 실험 결과를 비교·대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03 <보기>는 초고에 추가하는 마지막 문단을 쓸 때에 반영해야 할 조건 두 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조건은 '중심 내용으로 제시한 두 가지 유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문장을 추가하는 것'이고, 둘째 조건은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언급하는 것이다. '물은 적당한 양을 필요한 때에 마셔야 좋은 것이다.'는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과 물을 마시는 때를 유의해야 한다는 중심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물 섭취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건강을 지키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는 바람직한 물 섭취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다.

| 오답 풀이 |

②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마셔야만 물이 인체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바람직한 물 섭취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언급한 것이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언제 마시는가에 따라 물도 독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는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은 언급하지 않고, 물을 마시는 때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용이다.

③ '물은 인체에 필수적이나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지는 말아야 한다.'는 물을 마시는 때는 언급하지 않고,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용이다. 그리고 '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안다면 ~'은 둘째 조건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④ '물 중독 사례와 연구 팀의 실험을 통해 물 섭취 시 유의 사항을 확인하였다.'는 바람직한 물 섭취를 위해 유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한 내용이 아니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결국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고, 목마르지 않은데 마시면 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내용도 중심 내용에 담긴 정보의 긍정적인 가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둘째 조건

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올바른 물 섭취를 생활화한다면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는 바람직한 물 섭취가 독자에게 어떤 긍정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언급한 것이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짓인 경우도 있는데 물은 많이 마실수록 좋다는 인식도 그러하다.'는 물을 마시는 때는 언급하지 않고, 한 번에 마시는 물의 양에 유의해야 한다는 내용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용이다.

본책 226~227쪽

작문 02

01 ③ 02 ① 03 ②

01 (다)에 범주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제시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다)의 2번째 문단에서 악기의 분류를 예로 들어 범주화를 설명하고 있다.

② (다)의 2번째 문단에서 범주화의 개념을 정의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다)의 1번째 문단에서 범주화에 대한 문제 제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⑤ (다)의 1번째 문단에서 범주화와 관련한 현상을 논의의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02 (나)의 '초고 마지막 문단'에서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일부 제한'한다는 범주화의 한계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으로서 복잡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범주화의 가치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 [A]에서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한정하는 한계'를 제시하며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범주화의 가치와 한계를 함께 언급하여 주장의 일관성이 약화된 '초고 마지막 문단'을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초고 마지막 문단'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으로서 복잡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에서 범주화의 기능과 유용성을 이미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범주화의 기능과 유용성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수정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

③ '초고 마지막 문단'의 '우리는 대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범주화의 한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에서 범주화 과정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언급하고 있으므로, 범주화 과정에서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언급하지 않아 주장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수정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

④ ‘초고 마지막 문단’에 ‘범주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일부 제한한다는 단점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범주화의 단점을 언급하지 않아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수정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범주화가 대상을 바라보는 비판적 시각 형성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은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A]의 내용과 거리가 있다.

⑤ ‘초고 마지막 문단’과 비교할 때 [A]에서는 범주화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사고방식으로서 복잡한 대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내용이 삭제되고 범주화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범주화가 대상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도구일 수 있다는 입장이 강조되도록 수정을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3 (다)의 3번째 문단에서는 범주화가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㉔에서 이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돕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그리고 ㉕의 뒤에서 이전과 달리 새롭게 제안된 성격 유형 검사는 개인이 지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㉕에는 대상의 속성을 새로운 관점으로 포착해 대상을 다채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다)의 3번째 문단에서 범주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㉔에서 범주화가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아니라 사실적 이해라고 반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㉕는 ‘개인이 지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과 논리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

③ (다)의 3번째 문단에서 범주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㉔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보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㉕의 뒤에서 이전과 다른 성격 유형 검사가 개인이 지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대상을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하여 대상을 집중적으로 이해하게 한다는 내용을 ㉕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다)의 3번째 문단에서 범주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㉔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를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㉕의 뒤에서 이전과 다른 성격 유형 검사가 개인이 지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대상의 범주를 새롭게 제시하는 과정에서 대상의 속성을 단순화하여 대상에 대한 이해를 용이하게 한다는 내용을 ㉕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다)의 3번째 문단에서 범주화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㉔에서 대상에 대한 이해

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원활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하지만 ㉕의 뒤에서 이전과 다른 성격 유형 검사가 개인이 지닌 복잡하고 다층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아, 대상을 특정 범주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상 간의 동일한 특성을 제외하고 대상을 이해하게 한다는 내용을 ㉕에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본책 228~229쪽

작문 03

01 ④ 02 ③ 03 ②

01 [초고] 4번째 문단의 ‘또한 지역 청소년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으며 그에 대한 홍보 역시 미흡하다.’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을 뿐 그 이유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메모의 ④는 [초고]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소감’이란 마음에 느낀 바를 의미한다. [초고]의 1번째 문단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하나로, ○○고택 주변을 정화하는 봉사 활동에 참여한 소감이 제시되어 있다.

② [초고]의 2번째 문단에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정의’란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고] 2번째 문단의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는 국가유산을 자발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청소년 자원봉사자이다.’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의 정의가 제시되어 있다.

⑤ [초고]의 6번째 문단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의의가 제시되어 있다.

02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활동 등을 포함한다.’는 자료 ㉑을 활용하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은 지역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지역의 역사와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자료 ㉒을 활용하여 이 활동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다루고 있으며, [A]의 뒤에 제시된 내용과도 중복되지 않으므로 ③은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하다.

| 오답 풀이 |

① ‘홍보 및 모니터링, 주변 정화 활동 등 다양하다.’는 자료 ㉑을 활용하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를 다루고 있다. 이어지는 문장인 ‘이 활동에서 청소년은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유익한 봉사 활동을 스스로 경험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자료 ㉒을 활용하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다루고 있으나, [A]의 뒤에 제시된 내용

과 중복되므로 ①은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이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국가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기르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는 자료 [㉠]을 활용하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국가유산을 돌보는 활동이다.’는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의미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따라서 ②는 자료 [㉡]을 활용하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를 제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④ ‘청소년은 지킴이 활동을 하며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지역 국가유산 학습, 지역 역사 이해의 순서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자료 [㉢]을 활용하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활동 순으로 중요하다.’는 자료 [㉣]에 제시된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를 다루고 있으나, 자료 [㉣]에서 언급하지 않은 활동의 중요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④는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⑤ ‘주변 정화, 모니터링, 홍보 등의 활동이다.’는 자료 [㉤]을 활용하여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종류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주변 정화는 국가유산 주변을 청소하고, 모니터링은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상태를 점검하며, 홍보는 국가유산에 대해 알리는 활동이다.’는 자료 [㉥]에 제시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⑤는 자료 [㉦]을 활용하여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03 4번째 문단에서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과 관련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으나, [B]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친구 1’은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다면 [B]의 4번째 문단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추가할 수 있다. 고쳐 쓴 글을 보면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대한 교육 방안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이러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B]에 이미 지자체에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는 문장이 있으므로, ‘친구 1’의 제안을 고려해 지자체에 활동 프로그램 개발을 촉구하는 문장을 추가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활성화 방안이 실현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바는 [B]의 마지막 문장, 고쳐 쓴 글의 마지막 문장에 모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친구 1’은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친구 2’는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내용은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친구 1’의 제안이 아니라 ‘친구 2’의 제안에 따라 글의 내용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국가유산 관련 캠페인의 필요성은 다른 문단에서 언급된 내용이 아니고 [B]에 제시되어 있으며, 고쳐 쓴 글에도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친구 2’의 제안을 고려하여 이러한 내용을 삭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고쳐 쓴 글에서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을 삭제한 것은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2번째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참여 방법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책 230~231쪽

작문 04

01 ③ 02 ② 03 ⑤

01 ‘타인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이 불안으로 이어질 때’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에서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와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인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③은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아 불안해질 때’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와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초고]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평가의 기준을 자신보다 타인에 두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해지기 쉽다고 제시하였다. 따라서 ‘타인의 시선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시야에만 갇혀 불안한 마음이 든다면’은 글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지 못한 내용이다. 또 ‘일상에서 걷기와 같은 신체 활동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를 제시한 것이 맞지만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므로’는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명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해 보는 것이 어떨까?’는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태도를 제시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어려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초고]의 ‘자기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라는 것과 ‘사회적 지지 추구 행

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으로 보아, '무조건적 자기 수용보다는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린다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는 [초고]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02 [초고]에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의 장단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 ① [초고]의 1번째 문단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의 개념을 밝히고 있다.
- ③ [초고]의 1번째 문단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제시하며 글을 시작하고 있다.
- ④ [초고]의 2번째 문단과 4번째 문단에서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이 높은 사람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초고]의 1번째 문단에서 특정 시기인 청소년기에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03 ㄱ-2는 걷기 효과 검증 실험 결과 걷기 참여 집단의 불안 정도가 미참여 집단에 비해 낮아졌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며, ㄴ은 걷기가 정서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전문가의 인터뷰 자료이다. ㄱ-2와 ㄴ을 종합해 보면, 걷기가 정서 조절에 도움을 주어 불안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걷기가 정서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불안을 해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초고]에서 찾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

- ① ㄱ-1은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의 빈도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하여 사회적 지지 추구 행동이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으로 인한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4번째 문단을 보강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② ㄴ은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을 지닌 학생의 인터뷰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완벽주의적 자기 제시 성향의 구체적 사례로 활용하여 1번째 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③ ㄴ은 정서 조절을 위해서는 먼저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서 조절이 이루어져야 인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인지적 유연성 발휘를 위한 조건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3번째 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다.
- ④ ㄱ-1은 회피적 행동 빈도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자료이고, ㄴ은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되어 발표를 회피한 이후에 발표에 대한 불안이 더 커진 학생의 인터뷰 자료이다. ㄱ-1과 ㄴ을 종합해 보면, 불안이 회피적 행동으로 이어지면 이후 불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회피적 행동 빈도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증가하게 됨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불안이 사회생활에서 회피적 행동으로 이어지고, 회피적 행동은

다시 불안을 가중한다.'라는 2번째 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이를 구체화하는 사례로 ㄱ-1과 ㄴ을 활용할 수 있다.

본책 232~233쪽

작문 05

01 ② 02 ⑤ 03 ③

01 [초고]의 2번째 문단에서는 악기 연주자들의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악기군과 부위의 두 범주로 나눈 뒤, 범주별로 질환 유병률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① [초고]의 1번째 문단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의 개념을 설명의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③ [초고]의 2번째 문단에서는 악기 연주자의 근골격계 질환 경험 사례를 악기군별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건반 악기에 해당하는 피아노 연주자의 질환 경험 사례만 제시하고 있다.
- ④ [초고]의 3번째 문단에서는 근골격계 질환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연습 중 규칙적인 휴식과 적절한 운동을 제시하고 있을 뿐, 질환 완화 방법을 질환의 부위별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지 않다.
- ⑤ [초고]의 3번째 문단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을 뿐, 질환 완화에 효과가 있는 운동의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02 [초고]의 1번째 문단과 달리, 수정 원고에서는 '사무직의 요통이 대표적인 예이다.'가 삭제되어 있다. 이는 '사무직'이라는, 악기 연주자와는 다른 직업군의 예를 삭제한 것이다. 따라서 ㉠에 '다른 직업군의 예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수정 원고에는 '장기간의 반복된 작업으로 근골격계에 손상이 누적'된 것과 '(악기) 연주를 할 때 유사한 동작을 오래 반복하'는 것과 같은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원인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발병 원인 추가'를 요구하는 내용도 들어갔을 것이다.

03 (나-1)은 근골격계 질환이 연주 자세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는 자료가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악기 연주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자료이다. (나-1)은 악기 연주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주 자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따라서 ③은 자료 해석의 방향이 잘못되었으므로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 ① <보기>의 (가)에 제시된 통증 부위에 따른 유병률 중 상지 부

위의 경우 관악기 대비 건반 악기가 1.82배, 현악기가 1.52배였다는 내용을 활용하면, 상지 부위의 유병률이 건반 악기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현악기, 관악기 순이라는 내용으로 2번째 문단을 구체화할 수 있다.

② <보기>의 (가)를 통해 하지 부위의 유병률은 관악기 대비 건반 악기가 1.72배, 현악기가 0.84배로, '건반 악기 > 관악기 > 현악기' 순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전체 부위 유병률은 관악기가 57.6%, 건반 악기가 75.0%, 현악기가 68.1%로 '건반 악기 > 현악기 > 관악기' 순이므로 하지 부위 유병률과 순위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으로 2번째 문단을 보강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보기>의 (나-2)는 연습 중 휴식 유무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을 악기군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이 자료를 보면 현악기보다 관악기의 경우가 휴식을 취했을 때 근골격계 질환 유병률이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나-2)를 활용하여 3번째 문단의 '연습 중의 규칙적인 휴식'이 특히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관악기의 경우가 현악기보다 유병률을 낮추는데 휴식의 영향이 더 크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⑤ <보기>의 (다)는 근골격계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는 운동과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이므로, 3번째 문단의 '근골격계 질환 완화에 도움이 되도록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보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본책 234~235쪽

작문 06

01 ⑤ 02 ② 03 ①

01 1번째 문단에서 커피에 대한 관심이 커피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커피박 문제는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커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으므로, ㉠은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1번째 문단에서 커피박이 '커피를 만든 후 남은 커피 찌꺼기'를 지칭하는 단어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은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2번째 문단에서 '추출 직후의 커피박을 싱크대 배수구에 버리거나 흙에 버리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는 커피박이 잘못 버려지고 있는 예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은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③ 3번째 문단에서 커피박이 일상에서는 '탈취제나 방향제'로, 건축 분야에서는 '합성 목재를 대신하는 재료'로, 농업 분야에서

는 '비료'로, 최근에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커피박이 무엇으로 재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를 언급한 것으로, ㉢은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1번째 문단에서 '우리나라의 연간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세계 평균의 2배 이상'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은 학생의 초고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02 ②의 첫 번째 문장은 초고 2~4번째 문단에서 문제 삼고 있는 커피박의 '잘못된 처리 방법', '재활용 분야에 대한 인식 부족', '수거 시설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각각 커피박의 '올바른 처리 방법', '재활용 분야의 홍보', '수거 시설 확충의 제도화'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두 번째 문장에서는 '커피박에도 관심을 갖는 책임감 있는 태도'가 '커피 사랑의 참된 자세'라며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태도를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련지으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으므로 둘째 조건도 충족한다.

| 오답 풀이 |

① 첫 번째 문장인 '커피에 대한 사랑은 커피박에 관심을 갖는 태도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는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태도를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련짓고 있으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인 '다양한 재활용 분야와 수거 시설 확충의 중요성을 아는 것이 진정한 커피 사랑의 시작이다.'는 초고 2번째 문단에 제시된 문제 상황인 커피박을 잘못 처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용이다.

③ 두 문장의 내용 모두 초고 2~4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태도를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련지은 부분도 찾을 수 없다.

④ 두 번째 문장은 초고 2~4번째 문단에서 언급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커피박의 바람직한 처리 방법과 재활용 분야를 알리고', '커피박 수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태도를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련지은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두 번째 문장은 '커피에 대한 사랑을 커피박에 대한 관심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지녀야 할 태도를 커피에 대한 사랑과 관련짓고 있으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첫 번째 문장은 '시민들에게 커피박의 쓰임새를 알리는' 커피박 수거 시설 설치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을 뿐, 초고 2~4번째 문단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첫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내용이다.

03 <보기>의 (가)에는 커피박 소각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커피박이 분리배출되지 않고 소각되었을 때의 문제 상황을 드러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커피박이 우리 사회에서 관심받지 못하

고 있는 배경을 보여 주는 자료라고 볼 수 없으므로, 1번째 문단에서 커피박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낮은 배경을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2번째 문단에서 추출 직후 휴에 버린 커피박이 토양과 식물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의 (가)는 추출 직후 커피박에 남은 카페인이 '식물의 생장을 저해'할 수 있고, 수분이 많은 커피박이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하며 커피박이 식물과 토양에 미치는 악영향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2번째 문단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자료로 추가할 수 있다.

③ 3번째 문단에서 커피박이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나)는 커피박으로 만들 수 있는 바이오에너지의 종류로 '바이오압축연료,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3번째 문단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4번째 문단에서 커피박 수거 시설이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다)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수거 거점을 마련해 커피박을 효과적으로 수거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내용을 4번째 문단에 추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커피박 수거 시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문제 상황을 부각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4번째 문단에서 커피박 수거 시설을 마련할 때 예상되는 효과로 '커피박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증가'를 언급하였다. <보기>의 (다)의 인터뷰 내용에서는 4번째 문단에서 제시한 효과뿐만 아니라 '커피박 수거나 운반 등과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4번째 문단에 추가하여 커피박 수거 시설이 마련되었을 때의 또 다른 효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본책 236~237쪽

작문 07

01 ② 02 ⑤ 03 ③

01 (나)의 4번째 문단에는 학교에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공간이 조성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그러한 공간으로 인해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두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다. 필자는 생각이 커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 학업에도 더욱 열중할 수 있으며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커질 것이라는 기대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1번째 문단에서 학교 공간이 학습을 위한 공간에 집중되어 있어 아쉽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이는 우리 학교 공간의 실태를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학교 공간의 구조에 대한 내

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 공간의 구조를 비교하여 실태를 부각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1번째 문단에서 학교에는 지적 성장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공간도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 학교에 학습을 위한 공간이 집중되어 있음을 제시하여 학교 공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기능이 변화해 온 과정에 대한 분석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는 글을 시작하면서 학교 공간이 학생들에게는 제2의 집이라며 그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질문을 반복하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 학교 공간 배치의 아쉬움을 드러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드러내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나)의 1번째 문단에서 필자는 우리 학교 공간의 아쉬운 점을 제시하며 3층과 4층에서 현재 사용하지 않는 서편 끝 교실을 새롭게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서 2번째 문단에서는 4층 교실, 3번째 문단에서는 3층 교실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공간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각 공간의 문제점을 나열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02 (나)의 3번째 문단에서는 3층 교실에 교실과 복도 사이의 벽을 없애 누구나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자고 하고 있다. ㄴ에서는 벽을 없애는 형태적 확장을 통해 실내 공간의 개방감이 높아진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3번째 문단에 이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하지만 ㄷ-2에서는 청소년기는 벽을 없앤 공간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있으니, 이러한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서는 색의 대비, 부분 조명을 이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색이 대비되는 소품을 비치하고 부분 조명을 설치하는 것은 공간의 개방감을 높이는 방안으로 볼 수 없으므로 3번째 문단에 추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1번째 문단에서 학교의 공간이 학습을 위한 공간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며, 학교에는 학습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성장을 위한 공간이 필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의 ㄱ에서는 38.0%의 학생들이 조용한 휴식 공간을, 32.0%의 학생들이 자유로운 친교 공간을 바라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1번째 문단의 내용과 연관시킬 수 있다. 따라서 ㄱ은 1번째 문단에서 학습 이외 다른 용도의 공간 조성이 필요한 이유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2번째 문단에서는 4층 교실을 '사색의 방'으로 만들어 자연을 느끼며 안정을 찾고 성찰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한다. ㄷ-1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목재 사용과 천연 소재 소품 이용을 제

시하고 있다. 따라서 2번째 문단에 학생들이 실내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ㄷ-1을 활용하여 창가 의자의 재질을 목재로 하고 천연 소재 방석을 비치할 것을 추가할 수 있다.

③ 3번째 문단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며 소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ㄷ-2를 활용할 수 있다. ㄷ-2에서는 청소년기는 경계를 형성하는 벽을 없앤 공간에서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이동식 가구를 이용하면 그러한 부담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드러나므로, 이를 3번째 문단에 추가할 수 있다.

④ 필자는 2번째 문단에서 통창 설치를 제안하였으며, 이 근거로 ㄴ과 ㄷ-1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ㄴ에서는 투명한 유리 재료를 이용해 변화를 주면 시각적 확장 효과가 있어 실내 공간의 개방감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ㄷ-1에서는 실내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며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창을 통해 자연과의 시각적 연결을 늘리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ㄴ과 ㄷ-1은 2번째 문단에서 통창 설치를 제안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03 <보기>에서 편집부장은 ‘<2편> 초고의 핵심 내용’과 ‘<3편> 표제, 부제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㉔는 학교 공간 조성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3편> 부제에서 제시된 ‘학생 주도의 변화’에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다. 따라서 ㉔는 <보기>에서 편집부장이 정한 기사 작성의 방향과는 다른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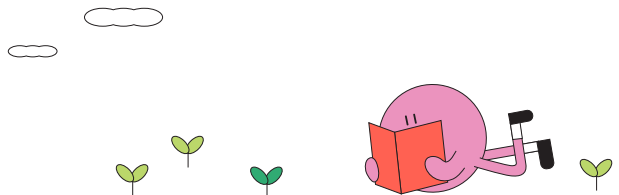
| 오답 풀이 |

① <보기>에서 편집부장은 <3편>의 1번째 문단은 <2편> 초고의 핵심 내용과 <3편> 표제, 부제의 내용이 드러나도록 작성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 공간 외에 사색의 공간, 어울림의 공간을 구상해 보았다는 ㉑의 내용은 <2편> 초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② ㉒는 <2편>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내용으로, 공간의 변화가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학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학교 공간 조성의 효과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는 <2편> 초고의 핵심 내용에 해당하므로 ㉒는 적절하다.

④ ㉓는 국내외의 많은 학교들이 생태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3편>의 표제 ‘국내외의 학교 공간, 어떤 방향으로 바뀌고 있나?’와 부제 ‘생태 공간 조성, 학생 주도의 변화’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⑤ ㉔는 학생들이 학교 공간 개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3편>의 부제 ‘학생 주도의 변화’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MEMO

MEMO